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원 2017-02-01
정간위 심의필 95-13-4-21

ISSN 1225-7168

새국어생활

제27권 제1호(2017년 봄) Vol. 204

인쇄일·발행일 2017년 3월 31일

펴낸이 국립국어원장

편집위원 남길임·박재현·이동은·이상혁·김윤종

기획·편집 김문오·김미현·홍규화

제작 (주)늘품플러스

펴낸 곳 국립국어원(www.korean.go.kr)

주소 075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동 827번지)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154, Geumnanghwa-ro, Gangseo-gu, Seoul, Korea

전화 (02) 2669-9775

전송 (02) 2669-9727

※ 정기 구독 신청 및 구독 소감, 건의 사항 등 문의

《새국어생활》 담당자 | (02) 2669-9688 | urimal365@korea.kr

새국어생활

2017년 제27권 제1호·봄



국립국어원

새국어생활

2017년 제27권 제1호·봄

차례

[특집] 우리 시대의 언어 의식과 사용 실태

우리의 의식을 담는 틀, 언어	
: 언어의 구조, 그리고 그 풍경	9
김하수	

높임말을 다시 생각한다	
: 이른바 ‘사물 존대’ 현상에 대한 상념	31
목정수	

표준어와 방언의 오늘과 내일	51
이기갑	

외래어와 외국어, 그리고 국어	67
김종덕	

북한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소통과 통합의 과제를 중심으로	91
강진웅	



지금 이 사람

의미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다

－ 신현숙 전 상명대학교 교수 107

이경우

문학 속 우리말

고전문학에 나타난 재담의 양상 125

최진형

세계의 언어 사전

일본 방언사전의 경위와 의의 137

양민호

그분을 그리며

잔잔한 미소와 온화한 마음의 김방한 선생님 151

권재일

삶과 우리말

국어기본법 지키려 현재 법정에 서다 163

이건범

국립국어원 소식 177

[부록]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수정 내용 197

특집

우리 시대의 언어 의식과 사용 실태

우리의 의식을 담는 틀, 언어: 언어의 구조, 그리고 그 풍경

김하수

한겨레말글연구소 연구위원

1. 현대 사회와 현대 언어

언어는 역사 속에서 변화해 왔다. 그리고 그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 사회적 함의를 품어 안으며 그 변화와 변천 속에 새겨졌다. 사람들은 그 역사에다가 시대에 따라 특정한 속성을 매겨 둔다. 석기 시대와 철기 시대가 있듯이 현재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시대를 이른바 ‘현대’라고 한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공동체들이 일시에 현대 사회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상당한 시차가 생겼다. 먼저 도달한 사람들이 먼저 열매를 따고, 뒤늦게 도달한 사람들과 발전 수준과 축적의 차이를 만들어 냈다. 그 차이는 경제 수준, 군사력, 지식 축적 등 온갖 면에서 격차를 만들어 내어 시장과 전장에서, 혹은 정치와 문화의 장에서 끊임없는 우열 관계를 재생산해 왔다. 그리고 언어도 이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

‘현대 언어’는 현대의 산물인 동시에 현대 사회의 동력이다. 비록 그 태생은 전근대, 즉 중세 언어의 후예이지만 새로운 시대 상황에 최적화되며 새 시대의 ‘앱’으로 변신에 성공한 사회적이고도 지적인 자산이다. 언어 역시 모든 사회 공동체처럼 동시에 현대라는 시점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언어마다, 또 그 언어를 품고 있는 사회마다 제각각 서로 다른 계기와 시점에 현대의 문턱에 다다랐다.

현대는 전근대와 달리 신분 제도와 각종 세습을 극복해 냈다. 이는 곧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뜻했다. 직업과 노동의 귀천도 무시했다. 그래서 천대받던 고리대금업도 금융업이 되었고, 배움을 갖추었으면 더 많은 기회를 보장받았다.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계급 차이라든지 신분을 나타내는 말보다는 서로를 평등하게 일컫는 방식이 발달했고, 언어의 외피로 사람의 성품이나 됨됨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문장 구조의 의미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수행했다. ‘주의 은혜로……’라든지 ‘……하기를 기도한다’라는 식의 종교적 표현도 수그러들었다.

현대 사회는 특히 정치적인 분화와 발전이 눈부셨다. 대의정치, 정당정치, 선거제도, 결사, 저널리즘, 더 나아가 인터넷 카페 같은 것들이 이른바 ‘공론장’을 형성했다. 이 공론장의 주인 격인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일컬었으며, 정치적 담론을 주도하거나 중요한 대항 담론을 만들어 내는 세력이 되기도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 규범을 사회적으로 관철시켰다. 쉽게 그런 축에 끼 수 없는 영세한 시민들을 아울러 ‘소시민’이라고 불러주면서 동일한 행동 규범에 포섭하여 넓은 의미의 ‘한편’이 되었다.

이렇게 이루어진 폭넓은 지배 세력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시민의 언어’에 자부심이 많았다. 시민의 언어는 왕족과 귀족의 언어, 시골의 사투리, 주변의 소소한 소수민족의 이방 언어 등과는 달랐다. 도시에서 무르익은 그들의 언어는 생경한 지역성이 묻어나는 지방 사투리가 아니었다. 거칠지 않은 억양에, 풍부한 어휘, 귀족들과 지식인들의 영향을 담백 받은 완곡어법들, 풍성한 지적인 기반을 보여 주는 넉넉한 인용구 등으로 해당 언어의 가장 바람직한 ‘현대적 전범’을 만들어 냈다. 또 이 시기는 천재적인 인문학자, 작가, 예술가들이 창의성을 크게 빛내던 시절이기도 했다.

이 시기에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현대의 가치를 선점한 집단은 지금도 이 세상의 정치와 문화를 주무르고 있으며 모든 지역과 사회를 촘촘히 꿰어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세계’를 이룩해 냈다. 그리고 그들이 창조한 새로운 가치, 표준, 모델, 패러다임 등등은 거기에 미처 도달하지 못한 사회를 끊임없이 허덕이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치와 표준을 끊임없이 자신들의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가 가진 형태와 의미가 전 지구적으로 표준화되어 가는 현상을 보여 준다.

현대라는 시대의 초기에는 언어에 대한 차별이 심했다. 현대를 성취한 언어와 그렇지 못한 언어는 심한 차별을 받았고, 당시의 지배적 관념이었던 진화론에 의거하여 도태되어 마땅한 언어라고 생각했다. 이 관념은 20세기에 들어와 식민주의의 정당성이 의심을 받으면서 폐기된다. 그러나 전 세계의 네트워크가 완성 단계에 이른 지금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의 독점 언어, 혹은 몇몇의 과점 언어로 수렴되어 가고 있다. 물론 오히려 자잘한 소수 언어들도 연명의 길을 잘 찾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대의 언어가 되려면 각 개인의 정서나 기분, 신분이나 신앙 등이 나타나지 않는 객체로서의 메시지가 중립적인 언어 구조에 잘 담겨 있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것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 주는 것이 바로 ‘문법’의 세계이다. 메시지의 형식을 체계화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대는 ‘문법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다.

또 현대 사회는 보편 교육을 (거의) 완성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 덕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맹의 질곡에서 탈출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현대 언어는 입말투와 글말투, 두 가지의 말투를 가지게 되었다. 이전 시기에는 낮은 계층은 그저 입말투로만 말을 했고, 지배 계층은 입말투와 글말투 둘 다 사용했다.

또 현대 사회는 구성원의 ‘사생활’을 익명화하여 그들을 무척 자유롭게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언어 역시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형식과 사사

로운 상황에서 쓰이는 형식으로 분화하기도 했다. 그리고 사회적인 제도로 정착되었다.

언어의 현대화와 제도화는 무엇보다도 사회 구성원들 사이, 다양한 조직체들의 내부의 정보와 의사를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소통시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 방식이 일치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행동 방식이 일치한다 함은 모두가 동일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언행(언어 행위)에 대해서 공동의 화용론적 이해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이 언어가 반영된 교육은 역시 ‘상징적으로’ 계급 사회를 극복한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사회 계급 간의 불화를 막는 기능과 동시에 은폐하는 기능도 한다.

2. 현대와 현대 한국어

한국어를 시대에 따라 규정하는 말은 보통 고대 (한)국어, 중세 (한)국어, 근대 (한)국어처럼 개념화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는 당연히 ‘현대 한국어’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현대 한국어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그저 사전적으로는 ‘현대에 사용하는 한국의 언어’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어휘 설명’일 뿐이지 ‘개념’이 아니다. 그것이 개념이 되려면 적어도 ‘현대’의 개념과 ‘한국어’의 개념에 대해 공유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역사학에서의 시대 구분 논쟁은 매우 뜨겁게 진행되었다. 사실 시대의 문제는 역사학의 핵심 개념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국어학에서는 시대 구분은 다양하게 해 왔지만 그에 대한 ‘논쟁’을 보기는 어려웠다. 그리고는 당연하다는 듯이 앞에 언급한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한국어를 가리키는 용어가 편안하게 사용된다. 개념의 불투명함을 기초로 삼

고 ‘오늘의 한국어’에 대해 서술을 해야 하는 마음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역사학에서의 시대 구분과 일치 내지는 어긋비슷 발을 맞추는 구색은 갖추어야 그 타당성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계급과 지역, 그리고 인습의 제약을 넘어서서 매우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며 그들 간의 행동을 조절하고 연결해 주는 매개 역할을 주로 ‘언어’에 맡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언어에다가 일종의 ‘자율성’을 부과하고 이를 ‘규범화’하는 데 힘을 쓰게 된다. 이것을 민족어라고 할 수도 있고, 국가어라고도 혹은 문헌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언어에 따라 일찍 근대 이전부터 규범화가 착실히 이루어진 언어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현대 사회’를 목전에 두고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또 어느 정도는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현대 한국어’도 ‘현대의 여명기’ 어느 시점에서 ‘현대어다움’을 갖추게 되는 시점이 있었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 논쟁의 부재는 이 시점의 타당성으로 삼아야 할 역사적 계기로 무엇을 꼽아야 할지 여러모로 망설이게 한다. 충분한 논쟁을 거치지 못한 한계 속에서 거론해 볼 수 있는 현대 한국어의 시점은 대략 다음과 같은 역사적 계기를 중심으로 간략히 논의해 볼 수 있다.

- 1) 독립신문 발행(1896년 창간, 1899년 폐간)
- 2) 지석영의 신정국문 6개조
- 3) 국어 의정안(1909년)
- 4) 갑오개혁(1894년) 및 이에 따른 을미개혁(1895년)
- 5) 주시경의 상동 청년학원 한글강습소(1908년-1910년)
- 6) 조선어학회의 시작(1908년의 국어연구학회가 모체, 1921년 창립)
- 7) 한글마춤법통일안(1933년)

- 8) 표준어 사정(1936년)
- 9) 광복 및 정부 수립(1948년)
- 10) 큰사전 발간(1957년)

1)의 독립신문 발행은 그 자체가 언어 현대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조선 사회의 현대화를 일으키는 불쏘시개로 언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첫 번째 계기였으며 동시에 현실 사회에서 언어적인 현대성을 실험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2)와 3)은 지식인들이 언어 문제 혹은 언어의 현대화(혹은 제도화)를 위해 국가 기관의 발의로 공동 연구를 했던 중요한 경험들이다. 적어도 언어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논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단계의 기능을 했다. 4)는 근대적인 법치 환경을 만들어 언어의 현대성을 입히는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해당하고, 5)의 한글강습소는 청년층과 기층에 새로운 언어 의식을 불어 일으키는 첫 사업이 아니었나 한다. 6)의 조선어학회 출범은 현대화를 위한 추진체를 구성했음을 보여 준다. 이 추진체는 한편으로는 지식인, 동호인들을 결합시켜 공동의 활동을 꾀하는 엔진의 역할과 사회적 의사 형성 과정을 주도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들의 노력에 의해 그 뒤의 7), 8), 10)의 계기들이 나타난다. 간단히 종합하면 정치 기구의 역할은 3), 4), 9), 의식화된 엘리트에 의해서 생겨난 계기는 1), 2), 5), 조직화된 사회 운동 기구의 역할은 6), 7), 8), 10)이라고 분류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으니 실로 우리 한국어의 현대화는 대략 60년 동안 서서히, 종종 역풍과 반동을 겪으면서 일정한 방향을 유지해 온 것을 눈치 챌 수 있다. 바로 ‘제도적 언어 규범’의 완성이다.

언어 규범의 완성은 어휘(의미)와 문법에 대한 연구 사업이 중심이 되었다. 규범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시적 연구도 필요했다. 앞에

든 열 가지의 현대 한국어의 발생 계기는 거의 60년의 시간을 품고 있지만 그 이후의 전쟁과 분단, 교육 제도의 정착, 출판 문화와 보도 매체의 보급 등까지 고려한다면 거의 100년에 이르는 고난의 기간이기도 했다.

이 기간에 한국어는 현대화의 길을 꾸준히 밟았고, 언어 규범은 뿌리를 내렸다. 아직 분단과 관련한 문제는 생생히 남아있으나 그 문제는 이 글의 흐름에서 일단 배제하고자 한다. 분단 역시 현대 한국어의 규범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분단은 별개의 복수 규범을 불러왔을 뿐 현대어로서의 기능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분단과 관련하여 어휘 면에서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그동안의 냉전과 이념 대립으로 말미암아 일부 어휘에 비합리적인 고정관념이 생겨 퇴화되어 버린 일들이다. ‘동무, 주석, 인민’ 같은 말들은 이념 대립과 무관하게 매우 유용한 의미를 담고 있었음에도 부정적인 선입관을 주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주체’라는 어휘 역시 사용하기에 꽤 거북해졌다. 사실 ‘주체’ 개념은 사회주의 사회보다 시민 사회에서 더욱더 중요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그 관계가 전도되어 버린 셈이다.

3. 사회 변화와 언어

전쟁을 겪고 나서 그간에 겪은 한국 사회의 변화는 산업화를 통한 ‘시민 사회’의 성장이다. 애당초의 산업화 과정은 시민 사회와 무관하게 ‘관치 경제’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으나 대단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그 압축 성장은 자신의 삶과 주변의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반면 한국 사회의 변화가 이끌어낸 현대 한국어의 변화는 그리 요란하

지 않고 조용히 이루어졌다. 주로 입말에만 사용되고 글말에는 한자(어)가 사용되던 한국어는 전근대와 달리 글말에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어의 화제는 상대방에 대한 높임과 낮춤을 드러내던 데에서 서로의 공식성 여부, 말투의 구분을 나타내게 되었다. 다음에 보이는 표처럼 새로운, 혹은 달라진 기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상충어	하충어
글말투	합쇼체	해라체
입말투	해요체	반말

한국어 종결법(마침법)은 전통적으로 대화 상대에 대한 발화자의 ‘태도’를 보여 주었다. 그래서 합쇼체-하오체-하계체-해라체-반말체라는 ‘등급’을 보여 주는 형식이었다. 여기에 가장 높은 층에 ‘하소서체’도 올려놓아 볼 수 있겠으나 역사 드라마나 기독교 기도문에서나 볼 수 있는 퇴화된 형식이므로 굳이 거론할 것은 못된다. 하계체도 많이 퇴화되어 장인과 사위 관계나 은사와 옛 제자 사이 같은 협소한 경우어나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약화되었다. 하오체도 사실상 소멸되고 그 자리에 반말에다가 ‘요’가 연결된 형태가 대치되어 들어갔다.

전형적으로 제시되는 대어섯의 화제는 이제 ‘등급’이 아니라 ‘기능’으로 재편되어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합쇼체는 상충어의 글말투, 해요체는 상충어의 입말투, 해라체는 하충어의 글말투, 반말은 하충어의 입말투로 재편성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해라체는 사실 하충어라기보다는 문장의 복잡한 문법 형태들, 곧 존대 및 겸양과 관계된 ‘-시-’라든지 ‘-읍-’과 같은 형태소들을 소거하여 그 내용을 부정형(不定形, infinitive)으로 만드는 중립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표현

을 위하여 방송에서는 합쇼체를, 신문과 잡지에서는 해라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화제 기능의 변화는 현대 한국어가 전근대 사회에서 현대로 빠르게 변화해 들어가며 언어를 재구성해 낸 결과물이다.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매우 빠른 변신에 성공한 경우는 어휘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가운데 특히 통속적인 호칭과 관계된 변화는 정말 괄목할 만하다. 남녀 관계의 질적인 변화는 이성간의 호칭의 변화가 극적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남자 친구나 남편에 대한 ‘오빠’라는 호칭, 아내에 대한 ‘와이프’라는 지칭이다. 특히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변화는 장인과 장모를 ‘아버지(아버님), 어머니(어머님)’라고 부르며 양가의 호칭을 단일화하여 공식적인 언어 사용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거기 에다 ‘언니’와 ‘이모’ 역시 친족 호칭의 한계를 벗어났고, ‘삼촌’, ‘아저씨’와 ‘아재’도 친족과 그 너머의 세계中间的 경계선에 놓여 있는 것 같다. 친족 호칭 외에는 남성들에게 ‘사장님’ 여성들에게 ‘사모님’과 ‘여사님’이 비공식 부문에서 매우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호칭의 변화를 과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통을 지키고 싶어하는 이들에게는 적절치 못한 어휘 사용으로 볼 것이요, 사회 발전과 변화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혈연이 시민화되지 못하고 시민이 혈연화되는 듯한 변화 양상을 적어 걱정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

이에 비해 언어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좀 더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 1980년대 초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인이 누가 누구에게 반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설문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 ① 의사가 환자에게: 3%
- ② 고객이 점원에게: 5%
- ③ 교통순경이 운전기사에게: 8%
- ④ 의사가 간호원에게: 20%

- ⑤ 사장이 사원에게: 30%
- ⑥ 남편이 부인에게: 40%
- ⑦ 장교가 사병에게: 60%

물론 이 조사가 그리 정밀한 부분까지 살피지 못한 약점을 가지고는 있다. 예를 들어 나이 많은 의사와 어린 소아과 환자 사이였다면 얼마든지 반말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 결과는 비교적 폭넓은 모집단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당시 사회 전반에 깔린 언어 의식을 보여 주기에 그런 대로 큰 모자람은 없는 것 같다.

그로부터 35년 이후에 나온 《201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여 얻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 결과에서는 앞에 든 81년의 조사와는 달리 또 다른 대칭점에서의 언어 의식 조사였다. 표본 집단의 성격도 많이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좀 위험하다.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직업적 특성에 따라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묻는 데에 제시된 답변 가운데 1981년 조사와 대조해 볼 만한 경우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 ① 아내가 남편에게: 72.8%(2005년), 62.4%(2010년), 53.0%(2015년)
- ② 남편이 아내에게: 63.2%(2005년), 54.5%(2010년), 44.9%(2015년)
- ③ 고객이 점원에게: 94.9%(2005년), 86.3%(2010년), 86.7%(2015년)
- ④ 의사가 간호사에게: 92.5%(2005년), 78.7%(2010년), 73.9%(2015년)
- ⑤ 장교가 병사에게: 52.3%(2005년), 61.5%(2010년), 37.3%(2015년)

두 자료의 상반된 접근 방향을 염두에 두고 수치를 해석한다면 그리 혁신적인 변화가 느껴지지는 않는다. 1980년대에 남편이 부인에게 반말해도 좋다는 의견이 40%였는데, 2000년대 이후 결과는 남편이 아내에게 높임

말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63.2%(2005년), 54.5%(2010년), 44.9%(2015년)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대체로 35년 전과 요즘을 견주어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대략 반말과 높임말의 비율은 4:6 정도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반말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1981년의 의견은 약 20%였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높임말 사용을 당연히 여기는 비율이 92.5%(2005년), 78.7%(2010년), 73.9%(2015년)으로 역시 1980년대 초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장교가 병사에게 반말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의견은 1981년도의 조사에서는 60%가 수긍을 했고, 2000년대에는 높임말 사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52.3%(2005년), 61.5%(2010년), 37.3%(2015년) 정도를 보여 다른 영역에 비해서 높임법 요구가 조금 높아지기는 했지만 역시 그리 혁신적인 수준의 수치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조사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어진 자료를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 1980년대의 자료는 ‘한국어에 대한 사용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변했는가?’가 중심이었다. 따라서 언어 사용자들의 변화된 인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응답자들이 혁신적인 답안에 자신을 가질 만도 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의 국어원 조사에는 이 질문들을 던지기에 앞서 한국어의 높임법이 필요한가 아니면 불필요한가 하는 질문이 선행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응답자가 ‘필요하다’는 대답을 하고 그다음의 질문에 답하게 되어 있다. 추측에 불과하지만 만일 선행하는 질문이 ‘한국어의 높임말이 되도록 전통을 계승해야 하는가 아니면 현대 사회에 맞게 개신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앞섰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응답자들이 어느 정도 유도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한국어 높임말의 사용은 현대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가지 않았을까 추론한다.

4. 한국인의 디아스포라와 언어

민족국가의 성립에는 그 구성원을 결정짓는 절차가 필요하다. 순탄하게 현대화의 길을 걷는 국가나 사회 공동체는 이 구성원 결정이 역시 순탄할 수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적잖은 폭력이 수반되곤 한다. 미국도 영국에서의 독립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처형당하거나 캐나다로 도피해야 했다. 오스만 제국에서 그리스가 독립될 때에는 정교회 교인은 ‘강제로’ 그리스 땅으로, 이슬람 교인들은 역시 터키 땅으로 이주해야 했다. 한국도 분단 그리고 뒤이은 월남과 월북의 물결, 그리고 전쟁과 피난으로 두 지역에 따로따로 정착했다.

그러나 이미 분단 이전에도 한국의 민족국가 구성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정주하며 민족적 구심력에서 빠져나갔다. 그들은 지금까지 ‘재외동포’ 혹은 ‘교포’라는 이름으로 민족의 주변부를 메워 주기도 하고 외곽을 넓히는 기능도 하고 있다. 이들 역시 한국어 사용자 집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규범의 사회적 관철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점을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 보고자 한다.

한국어 사용자 집단은 근대화의 맹아기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해외 이주자를 내보내 왔다. 19세기 중후반에 중국의 동북지방과 러시아의 연해주로 사적인 이주가 행해졌으며, 주로 빈농들이 그 중심이 되었다. 이들 농촌 출신들은 전통적인 공동체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며 이주를 했고, 따라서 토착 한국어와 풍속을 잘 유지한 편이다. 그러나 현지의 열악한 교육 문화 환경으로 말미암아 훗날 현지의 공교육 체계 및 외국계 이주민 처리 과정에 용해되어 버렸다. 곧 사사로운 관계라든지 소집단적 마을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는 비록 파편화된 상태로나마 토착 한국어가 사용되었지만 공적인 활동을 담당해 주지는 못했다. 어쩔 수 없이 현지 언어를 중심으로 ‘언어 교체’를 하게 되었다. 특히 연해주 이주민들은 중앙아시아

로 강제 이송되면서 본향과 문화적 결속력이 단절되는 격변을 겪었다.

중국의 동북지방의 한국어는 북한과의 지리적, 사회적 연계 덕분에, 그리고 불충분하나마 어느 정도는 보장된 자치 제도 덕에 한국어의 사회적 정당성은 보존되고 있으나 연해주 쪽의 이른바 고려 말은 사실상 ‘절멸’ 단계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 종종 개인적인 의지로 의식화된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있으나 그들은 대부분 남한의 규범화된 한국어, 곧 한국어의 남한식 변이를 받아들이고 현지의 고려 말을 점점 약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다른 한국어 사용자 집단은 일본으로 유입되었다. 농민들의 이주였던 중국과 러시아 쪽과는 달리 주로 도시 노동자로 편입된 관계로 일부 제주도 출신들을 제외하고는 본향에서의 공동체 관계를 충분히 계승하지 못했다. 그리고 세계대전 이후 재편된 일본 공교육이 소수민족의 언어를 교육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대부분의 후세들이 일본어 사용자로 ‘언어 교체’를 강제당했다. 일본의 오래 정착한 한국인들 가운데 초기 이주자들과 극히 일부 차세대만이 ‘의식화된 한국어 사용자’로 남았고, 또 일부는 뒤늦게 배운, 달리 말해서 모어로 배우지 못하고 외국어로 배운 한국어 사용자들이 있을 뿐이다.

1960년대에 들어 미국이 아시아계 이민에 대해 배타적이던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많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했다. 대부분이 공교육을 잘 받은 중산층이었으며, 이미 규범화된 한국어를 공교육을 통해 ‘충분히’ 학습한 상태였다. 이들은 미국과 캐나다 사회에서도 ‘상당 부분’ 중산층으로, 혹은 소시민 계층으로 편입되었고, 다양한 집거 지역을 형성했다. 이주 초기에는 한국어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현지 적응에만 몰두했으나 나중에는 한국어와 영어의 이중언어 교육의 효율성을 깨닫고 비교적 두 언어 능력을 갖추려고 많이 하였다.

북미 이주는 그 이전의 이주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이전의 중국,

러시아, 일본으로의 이주는 모국 사회와의 소통 및 교류를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 그 여건도 매우 나빴다. 그러나 북미 지역은 여러 사회적, 정치적 이점을 가지고 한국 사회와 끊임없이 동기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직업, 학교 교육, 소비 생활 등 여러 면에서 서로 닮아 가고 같아지고 하면서 서로의 호환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캐나다의 이주라기보다는 이어나 전학 및 편입하는 과정과 비슷해졌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비슷한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유럽을 보면 독일에 광산 노동자들과 간호사들의 노동 이민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이 농촌의 농업 노동력의 이주가 많았다. 독일에서 비교적 공동체적 관계를 이루면서 한국 문화와 언어를 계승했으나 후속 이민이 없는 관계로 소수의 유학생들과의 연계 속에 작디작은 언어 섬이 되어 가고 있다. 또 남미에는 농업을 염두에 둔 이민이 있었으나 거의 대부분이 도시 자영업으로 전환했고, 한국어 사용은 주로 ‘가정’ 내에 머무르는 편이다. 역시 이주자의 연속성이 없었던 관계로 큰 언어 사용자 집단으로 성장하지는 못했다. 또 여러 번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쪽으로 재이민을 간 사람들도 많다.

이상에 열거한 디아스포라와 연계된 한국어의 변종들은 사실 한국어 규범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참조’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 변종들은 한국어 체계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은 ‘변외’ 한국어 변종이 된 것이다. 고려된 것은 오로지 한반도 내의 내부 방언들만이 규범의 외부 요소로 다루어졌을 뿐이다. 그리고 해외에서 사용되었던 변외 한국어 변종들은 이미 20세기 초에도 꽤 널리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의 표준화 과정(1930-1936)에서 소외되었다. 다시 말해 뒤에 태어난 규범에 의해서 부정된 언어 변종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른 시기에 이주를 하여 본향에서의 마을 공동체를 지속성 있게 유지해 왔고 후세를 교육하고 홍보와 예술 활동에 사용되던 이주자 집단의 언어의 정당성은 ‘무효화’되었다.

5. 한국어의 변이와 사회심리적 분절 현상

한국어의 규범화는 표준어 어휘를 확정하게 하였고, 이 결과는 당연히 ‘방언’이라는 또 다른 ‘신분’의 언어를 낳게 했다. 방언은 규범 언어의 지역적 변이형들이다. 그 변이형들은 사회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분절되어 있다. 가장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이 지역 방언이다. 지역적으로 색다른 언어 변이를 가지고 해당 지역의 소통 방식과 의미장들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언어들 가운데 특별하게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지역 변이는 규범화 과정에서 정당성을 잃는다. 동시에 이 변이를 사용하는 지역 사람들의 언어도 소외되거나 무시된다. 낙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어의 지역 방언은 연구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대략 일곱에서 여덟 정도의 지역 변이를 꼽고 있다. 그러나 방언은 오로지 언어 내적인 구조와 어휘의 형태 및 의미에서만 분절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상당 부분 사회적 상징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해당 사용자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곧 사회심리적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 변이를 듣는 순간 발화자의 사회 계층과 직업 종류 심지어 학력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사회적 정보 혹은 선입관이 파다하게 알려져 있다. 언어 구조의 차이보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 심리적 분절화가 해당 변이 사용자들을 더욱 아프고 예민하게 한다. 그리고 해당 변이형 사용자 집단을 공고하게 단결시킨다.

한국의 방언들은 주어진 사회적 배경과 역사적 후유증이 아직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어떤 지역 변이는 낮은 학력과 빈민들의 상징처럼, 또는 폭력배들이나 그들의 단결심을 상징하는 언어 변이로, 또는 세상물정 모르는 어수룩한 사람의 전형인 양 영화나 문학 작품에서 인용된다. 잘돼야 관광용 방언 어휘를 소개하게 되는 정도이다.

한때 북부 지방에서 피난 온 사람들의 거칠어 보이는 방언은 그들의 강인한 생활력을 상징했다. 종종 ‘삼팔따라지’나 ‘이북 것들’이라는 경멸조의 표현도 있었지만 ‘아바이’라든지 ‘또순이’라는 별명은 이들이 얼마나 근검한 삶을 사는지를 드러내 보여 주는 좋은 열쇠 말이기도 했다. 그러나 북녘 변이는 사회적 지위가 드러나지 않는 지역 변이에 머무를 때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뿐, 북한 체제의 중심부 사람들이 사용하는 글말에 가까운 변이에 이르면 오히려 사상적으로 혐오의 대상처럼 비치게 되거나 탈북자의 언어 변이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현지에서는 하층어(L 언어)에 해당하는 변이가 상대적으로 호감을 얻고 상층어(H 언어)에 해당하는 변이는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변이들의 사회심리적 분절에 해외 이주자들의 언어 변이가 중첩된다. 그리고 그들이 머금고 있는 함축적 의미와 가치는 지역 방언 사이의 분절 현상을 더 뛰어넘는다. 일반적으로 중국 동북 지방의 한국어 변종은 지역 방언 정도의 수준으로 분절되거나 조금 더 주변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더욱 더 주변화되고 소외되는, 낮은 층위로 분절되는 변종은 탈북자들이 사용하는 문화어 변이들이다.

여기에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의 언어 변이를 함께 병렬화하면 훨씬 더 복잡한 사회심리적 분절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미주 지역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특이한 변종, 단문 중심의 한국어에 많은 양의 영어 단어, 특히 영어 감탄사의 심한 간섭이 눈에 띄는 북미 변이형은 비교적 낙인 효과가 덜하거나 종종 우월함을 드러내기도 한다. 특히 이들이 사용하는 영어식 단어는 그 발음이 외래어 표기법을 읽는 것이 아닌 현지 발음과 억양을 그대로 옮김으로써 지역적으로 계층적으로 스스로를 차별화하는 징표로 삼는다. 과잉 교정이라 할 수 있다. 영어나 유럽계 어휘에서 온 말들은 종종 과잉 교정이 일어나며 적잖은 우월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영어는 우리와 일종의 내연의 관계에 빠져 있

는 셈이다.

같은 영어에서 온 외래어라 하더라도 영어에서 직접 한국어로 차용된 것이 일본어를 거쳐 차용된 것보다 그 사용자의 사회적 계층을 높아 보이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많은 일본식 발음의 외래어들이 영어식 발음으로 ‘수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식 발음의 어휘는 낮은 계층 또는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하급 기술자나 기능인들의 통속어로, 영어식 발음의 어휘는 교육받은 계층의 공용어로 인정받게 된다. 기름에 튀긴 음식을 보통 ‘후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규범 형태는 ‘프라이’이다. 글로 적을 때는 ‘프라이’로, 말할 때는 ‘후라이’를 쓴다. 이러한 관계는 외래어의 상당 부분에서 늘 일어나는 현상이다.

반면에 귀화에 성공한 어휘도 있다. 머리를 구불구불하게 굳히는 머리를 보통 ‘파마’라고 한다. 그런데도 굳이 이것을 ‘퍼머넌트 웨이브’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사회심리적 분절에서 우위를 점하기 쉽다. 지난 3월 10일 헌법 재판소의 소장 권한 대행의 머리에 ‘헤어 물’이라는 것이 달려 있어서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보통 동네의 여성들은 그것을 ‘구리뿔’ 혹은 ‘구루프’라고 한다. 아직 표기법도 정해진 것 같지 않다. 결국 이날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사람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어휘가 무엇인지 그 분절도 가르쳐 준 셈이다.

한국어는 내국인이나 해외 교포들의 언어만이 아니다. 외국인들도 한국어를 배우고 사용한다. 이들의 한국어도 역시 사회심리적으로 분절화된다. 외국인으로서 인사말 정도 하는 한국어 능력은 어디서든지 환영을 받는다. 그러나 이익을 다투는 문제에 부딪치게 되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의 신분은 무척 예민한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북미나 유럽계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친절한 대우를 받는다. 그 외의 지역 출신들은 그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언어는 인종 차별의 수단이자 상징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외

국민들은 어설프게 배운 한국어보다 자신들이 유창한 영어를 사용할 때 훨씬 유리한 처지에 서게 된다는 것을 영리하게 잘 알고 지낸다.

간추려 본다면 한국어는 지역 차별, 인종주의, 사회 계층, 학력 차별 등이 매우 복잡하게 엉켜 있는 상태이다. 민족 국가를 형성하는 기초 언어, 즉 민족어 형성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상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시민의 언어로 성장 발전하는 데 실패한 언어일 가능성 혹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6. 역사적 분절

좀 더 세밀하게 한국 사회의 언어 변이들이 분포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무심히 지나치게 되는 언어 변이가 있다. 바로 한자어와 일본에서 온 말이 있다. 한자어는 워낙에 오랜 세월 한국어 구조 안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모든 한자어를 하나의 범주에 넣는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그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 토착화된 한자어들이다. 굳이 한자로 쓰지 않아도 의미를 직관적으로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어휘이다. 다시 말해서 이 한자어들은 그 역사적 경로가 문제일 뿐이지 한국어의 사용과 소통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역사적인 다양성을 보태 주는 가치 있는 어휘이다.

또 다른 한자어들은 대개 근대화 과정에서 들어온 어휘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또 이미 토착화되었다. 이 부류의 단어들 대부분이 일본인들이 만든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언어생활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순화의 대상으로 거론이 된다. 특히 한국의 언어 문제에 관한 담론에서 ‘일본식 용어’라는 지적은 마치 불륜의 흔적인 것처럼 지적당한 사람을 뜨끔하게 만든다. 그만큼 한국 지식인 사회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일본’ 혹은 ‘일본식’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일종의 주홍글씨나 다름없다. 이는 언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갖 풍속, 인습, 역사관 등에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이한 현상은 같은 일본식 한자어라 하더라도 해당 어휘를 일본어로 발음하면 기피 대상이 되고 비속한 어휘로 대접받지만 전통 한국식 한자음으로 읽으면 버젓한 공용어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다. 오이꼬시(追越, 추월), 가이단(階段, 계단), 아이노루(合乘, 합승), 분빠이(分配, 분배), 가꾸보꾸/가꾸목(角木, 각목), 겐세이(牽制, 견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일본어의 음운 구조의 한계로 말미암아 간섭을 일으킨 영어 단어 들은 낙인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 다음의 예는 앞의 것은 일본식 영어 외래어이고 뒤의 것은 한국식이라 하겠다. 잠바/점퍼, 샤프/셔츠, 보당/버튼, 세타/스웨터, 마후라/머플러, 뽀뽀/뽀프, 빠따/배트, 도라꾸/트럭, 빠다/버터 등으로, 일본어 간섭이 없을수록 규범에 가깝고 당연히 우월한 형태로 인정받는다. 그 외에도 한국인들이 원래 잘 쓰던 일본어도 일단 새로운 순화어가 생기면 낙인 효과가 생긴다. 손수레/리야까, 양동이/바께쓰 같은 말들이 그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현대 한국어에 켜켜이 쌓여 있는 각종 변이형들의 층위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서울말 중심의 규범어가 가장 상층부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다음 자리에 규범어에 가까워진 방언 사용자 출신들의 매끈하면서도 종종 방언 억양이 섞이는 변이가 있다. 그 다음에는 방언을 사용하지만 공적인 표현은 별 무리 없이 규범적 언어에 매우 가까운 변이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방언 사용자, 연변 억양, 탈북민들의 변이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뒤를 이주노동자들이 이으면서 현대 한국어는 언어 현실 속에서 과연 그 ‘현대성’을 제대로 획득했는지 의문스러워진다.

흥미로운 것은 한자어 가운데서도 ‘사자성어’만큼은 교양과 학식의 상징으로 환영받는다는 것이다. 사자성어를 잘 사용하면 단순히 지식인 정

도가 아니라 남을 가르치고 교화할 수 있는 지력을 가진 사람으로 쉽게 받아들여진다. ‘한국의 현대’ 아니 ‘한국어의 현대’에 아직도 전근대의 중국의 귀족적 언어문화는 깊이깊이 새겨져 있는 셈이다.

영어에 라틴어 관용구가 살아 있듯이, 이슬람권에서 고정 아랍어나 페르시아어로 중요 성구를 주고받듯이 사자성어 역시 우리의 중요한 언어적 인 ‘뗏’일 수도 있다. 서운한 것은 그에 맞먹을 만한 반짝이는 명언이나 깊은 사색거리를 던져 주는 시구절 하나 찾기가 왜 이리 어려운지 모르겠다.

7. 현대어의 완성을 위하여

중세 말기에 서유럽 사람들은 사회 변혁을 진정 갈망했다. 자신들이 염원하던 모든 꿈을 ‘자유’, ‘평등’ 등의 구호로 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사회 제도의 창출과 정착에 힘을 쏟았다. 서로의 평등한 관계가 반영되어 있는 언어 규범을 완성하려고 노력하였고 사용자들의 성향에 의해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일이 없도록 언어를 관리했다.

뒤늦게 현대화의 길을 걸은 한국어는 지나간 100년 동안 가까스로 언어 규범을 완성하고 그 정당성을 획득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렀으나 사회를 통합하여 원활한 소통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지배적인 언어 규범은 완성이 되었는데 그 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지역 변이와 이산 집단과의 매개 기능이 긍정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됨으로써 애써 완성한 언어 규범의 가치가 적잖이 훼손되고 있는 점도 안타깝다. 또 이 글에서는 상세한 논의를 피했으나 분단으로 말미암은 이중 규범의 문제 역시 같은 궤도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현대 한국어의 형성 과정에서도 보완과 개선을 위해 고려할 점이 있다. 특히 이른바 표준어를 제외한 다양한 언어 변이들을 지나치게 배척했고

폭넓은 언어적 사회 통합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형태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분화 가능성이 있는 어휘도 값싸게 방언 혹은 비표준어로 밀려 나간 경우가 보인다. 아마도 훗날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통 큰 시각이 수용될 수 있었으면 한다.

현대 한국 사회의 뚜렷한 언어적 맹점을 찾는다면 아직도 시민적인 호칭이 마련되지 않은 것을 꼽을 수 있다. 시민 사회의 언어활동 가운데 가장 손쉽고 편안한 것이 인사와 호칭이어야 할 것이다. 자유스러운 인간관계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맡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현실은 호칭 하나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서로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대변해 내려고 필요 이상의 힘을 쏟아야 한다. 이 엄청난 ‘맥락 의존적 호칭 체계’는 한국어 원어민에게도 매우 부담스럽고 끊임없는 인간적 오해와 거부감을 상시적으로 극복하며 말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미성년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일단 성인이 되면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함께, 심지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호칭’을 사용하게 한다면 한국어의 현대화는 진정 대미를 장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언어 교양 문제이다. 한국어는 존대법이 발달했다는 특징이 있으나 언어에 반영되는 예절이 지나치게 전근대적이다. 차라리 존대법을 단순화하고 새로운 언어 교양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한 존대법에 경쟁적인 서비스업이 결합되면서 속칭 백화점식 존대법이라고 하는 ‘하실게요’와 같은 부적절한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한국어의 실존적 모습을 중심으로 사회 통합적인 언어의 모습을 다져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인위적인 간섭과 정책으로 될 일은 아니지만 교육적 개입을 적절하게 하고 정책적인 배려를 적절히 한다면 지나치게 형식화된 이상과 실체로서의 언어 현실의 괴리를 인내해야 하는 지금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한다.

참고 문헌

- 강신항(1991), 《현대 국어 어휘사용의 양상》, 태학사.
- 국립국어원(2011), 《남북 언어 통합과 재일동포 언어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_____ (2015), 《201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 김민수(1973, 1984), 《국어정책론》, 탑출판사.
- 김병문(2011), 《언어적 근대의 기획》, 소명출판.
- 김하수(1991), “이른바 마침법 등분의 사회적 분화 과정에 관하여”, 제25회
어학연구회 논문요지 및 자료, 116-117쪽,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_____ (2010),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자의 역할”,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 재외 한글학교 교사 연수회(2010. 8. 11.) 특강 원고.
- _____ (2015), “해방과 분단, 그리고 언어 환경의 변화”, 《새국어생활》 25-2,
국립국어원, 3-24쪽.
- 윤건차(2015), 《자이니치의 정신사》, 이와나미; 한국어 번역, 박진우 외
(2016), 한겨레출판.
- 이기문(1970), 《開化期の 國文研究》, 一潮閣.
- 조준학, 박남식, 장석진, 이정민(1981). “한국인의 언어의식”, 어학연구, 17-2,
167-197쪽.
- 한동완(2006), 《국문연구의정안》, 신구문화사.

높임말을 다시 생각한다: 이른바 ‘사물 존대’ 현상에 대한 상념

목정수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서론

최근 국어학계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른바 ‘사물 존대’ 또는 ‘백화점식 존대’ 현상을 두고, 정문 판정 시비에서부터 이론적 설명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언어학적 논쟁이 있었다. 또한 학계 외부적으로도 국민들의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해 정책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시-’의 규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실천적으로 국민들의 언어 사용을 일일이 국가 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긴 하지만, 국어 사용자로서의 일반 국민들이 ‘사물 존대’ 현상을 목격하면서 우리의 언어 사용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국어학자들은 물론이고 언어 정책의 주무 부서인 국립국어원이 오·남용 사례를 규제하고 계도하여 국민들의 언어 의식을 고양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다음이 최근 백화점, 커피숍 등 서비스업계의 오프라인 환경에서 그리고 이메일, 누리소통망서비스(SNS), 홈쇼핑 등의 온라인 환경에서 흔히 듣고 볼 수 있는 이른바 ‘사물 존대’ 현상의 예들이다.

(1) 가.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나. 이 옷이 훨씬 잘 어울리세요.

다. 모두 값이 3만 원이십니다.

라. 이쪽으로 누우실게요.

(2) 가. 그럼, 선생님 즐거운 주말 되세요.

나. 주문 폭주로 배송 시일이 소요되는 상품이세요.

여기서 ‘주문하신 커피’, ‘이 옷이’, ‘값이’, ‘즐거운 주말’, ‘상품’ 성분의 통사적 기능, 즉 주어나 아니냐의 문제도 국어학의 큰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우선 표면적으로 이들을 주어로 분석하는 시각에서는 소위 ‘주체 존대’ 선어 말머리로 규정되어 있는 ‘-시-’와의 호응이 이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의 문장을 사용한 서비스업계의 종사자들의 발화를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의 의식을 조사한 것을 봐도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¹⁾ 게다가 발화 당사자들도 이런 유의 문장들이 대체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고객들을 대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일종의 압력에 의해 소위 ‘백화점식 존대’를 쓰게 된다는 응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국립국어원에서는 해당 서비스업계에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몇몇 기업체에서는 자정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기도 하였다. 이렇듯 ‘사물 존대’ 현상이 계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1) 사물 존칭의 경우 긍정적인 인식이 부정적 인식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부적절한 사물 존칭은 향후 홍보를 통해 사용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고, 사물 존칭에 대한 표현은 자연스럽거나(15.8%)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으로 느낀다(22.4%)는 응답률이 낮아 사물 존칭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립국어원, 201530-31).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면, 일상생활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사물 존칭 표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느껴진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15.8%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과반(64.7%)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을 보였고, 한편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22.4%로 나타났지만 55.6%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립국어원, 201579). 《201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이에 본고에서는 특이한 현상으로 보이는 ‘-시-’와 관련된 오·남용의 사례를 단계별로 살펴 ‘-시-’의 기본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와 그렇지 않고 국어 문법의 틀에서 잘못 오·남용되고 있는 ‘-시-’의 용법을 구분해 보고자 한다. 최대한 국어학적으로 일관된 설명을 제시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하나의 대안으로서 ‘사물 존대’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핵심 내용은 대부분의 ‘사물 존대’ 현상은 언어 환경 변화에 따라 언중들이 ‘-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자연스러운 사회문화적 언어 현상으로서, 그리 우려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²⁾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우려하고 계도할 대상의 오·남용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는 차원을 달리하는 현상으로서,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극적인 국어 교육이나 홍보를 통하여 국민들의 언어 의식을 높이고 언어 사용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도대체 ‘-시-’는 무엇이기에 문제가 되는가?

2.1. 쟁점의 근원

‘사물 존대’ 현상이라는 문제는 그 발단이 위의 (1)과 (2)의 예문에 보이는 ‘-시-’의 용법이 일반적으로 국어 문법에서 제시된 용법과 차이가 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주체 존대’의 선어말어미로써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어학자들에게 주어진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과 (2)의 예문의 ‘-시-’의 용법을 ‘-시-’ 자체의 기능 변화로 설명할

2) 최근 라보프의 사회언어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실제 현장에서 ‘사물 존대’의 ‘-시-’의 사용 양상을 직접 조사한 김은혜(2016)에 따르면, 백화점 판매원들의 발화에서 오·남용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그 빈도가 그리 높지 않게 발생했고, 대형 마트나 재래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것인가, 아니면 ‘-시-’ 자체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을 것인가 하는 국어학적 논쟁이 불붙는 것이다. 전자의 방법을 취한 것으로는 임동훈(2000, 2011)과 김영일(2016)의 ‘청자 존대설’과 이정복(2010)의 ‘상황 주체 존대설’이 있다. 후자의 입장에서 제시된 것으로는 대표적으로 목정수(2013)이 있다. 이를 ‘(진성) 주어 존대설’로 부르기로 하자.

목정수(2013)은 우선 ‘청자 존대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국어 전통 문법에서 ‘-시-’를 ‘주체 존대’ 선어말어미라고 규정할 때, 그 ‘주체’의 개념이 분명치 않다고 비판하고 ‘-시-’는 새롭게 규정된 주체, 즉 주어 존대 요소로서의 기능 변화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목정수(2014b)에서는 결론적으로 ‘-시-’는 ‘주어 존대’ 요소로서의 대명사 인칭 단계의 인칭 표지로서, 인칭의 구분의 시각에서 말하자면, 비(非)일인칭 주어 지시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3) 가. 목정수 교수님은 참 공부를 열심히 하십니다. (3인칭)

나. 선생님은 왜 언어학을 하십니까? (2인칭)

다. *저는 언어학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1인칭)

2.2. 직접 존대의 ‘-시-’와 간접 존대의 ‘-시-’, 그 허구성

국어학계에서 주체 존대 선어말어미 ‘-시-’가 자연스럽게 연결된 구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문장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다.

(4) 가. 할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 할아버지는 귀가 크시다.

물론, 이러한 자연스러운 ‘-시-’의 용법에 대해서도 (4가)의 경우에는 ‘-시-’가 주어인 ‘할아버지께서’를 존대하기 때문에 ‘직접 존대’라고 하고, (4나)의 경우에는 ‘-시-’가 주어인 ‘귀가’가 아닌 ‘할아버지는’을 존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간접 존대’의 ‘-시-’로 나누어 보고 있다. 이것이 전통 문법이나 학교 문법에서 정설로 채택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연어 구성이나 관용구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전개된다.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많아 활동하는 범위가 넓다’(《표준국어대사전》)를 표현하는 ‘발(이) 넓다’나 ‘기세가 꺾여 풀이 죽다’(《연세사전》 271쪽)를 표현하는 ‘기(가) 죽다’에서도 ‘-시-’의 쓰임은 주체/주어인 ‘할아버지는/할아버지께서는’이라는 성분에 달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도 말하자면 ‘간접 존대’에 해당한다.

(5) 가. 할아버지는 발이 넓으시다.

나. 할아버지께서는 기가 죽으셨다.

이에 대해서 목정수(2013)에서는 의문을 제기하였고, 서술절을 주장하는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서술절 개념의 부당성을 제시한 목정수(2014a)에서는 선어말어미 ‘-시-’를 직접 존대와 간접 존대로 나누는 것 자체의 모순을 지적하였다. 요체는 위 문장에서 ‘-시-’는 ‘할아버지’가 문장의 일정한 자리에 놓였을 때에만 그와 호응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자리는 공히 ‘주어’ 자리로 일반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 문법의 ‘간접 존대’라는 개념은 (4나)의 ‘귀가’나 (5가, 나)의 ‘발이’와 ‘기가’를 주어로 보았기 때문에 나온 개념인데, 이 경우도 아직까지 ‘할아버지’가 아닌 제2명사구가 주어라는 것이 분명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간접 존대설을 무조건 수용해야 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시-’의 난제를 풀기 위해 필자가 고안한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어떤 성분이 주어냐 아니냐 하는 까다로운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국어

화자라면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직관에 더욱 충실해 보자는 것이다. 위 (4가, 나)와 (5가, 나)에서 문장의 구조를 어떻게 분석하든지 간에 ‘-시-’의 사용에 관여적인 것은 ‘할아버지’라는 성분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주체’로 부르든 ‘주어’로 부르든 ‘대주어’로 부르든 상관없이,³⁾ 그 성분이 ‘-시-’와 호응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 ‘-시-’의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시-’에 의해 존대 대상이 되는 요소를 그 성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문법적 주어로 보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에 착안하면, 결론은 의외로 간단하게 도출할 수 있다. 서론에서 ‘사물 존대’의 예로 제시된 것과 학교 문법에서 ‘-시-’의 올바른 사용으로 인정한 ‘간접 존대’의 예를 비교해 보면 되는 것이다. 그 비교 결과에 따라, ‘-시-’의 기능 변화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차이가 인정된다면, 임동훈(2011)에서 제시한 ‘청자 존대설’이나 이정복(2006)에서 제시한 ‘상황 주체 존대설’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차이가 없다면, 그냥 ‘-시-’는 ‘주체/주어 존대’로서의 기능으로 머물기 때문에 ‘(진성) 주어 존대설’이 더 큰 설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서론에서 제시한 ‘사물 존대’의 문제아들 (6)과 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다음의 모범생들 (7)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우리는 이들을 기본적으로 평행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본다.

3) ‘-시-’가 주제어와 일치한다고 하여도 주어 성분이 주제화된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사실은 ‘-시-’가 원래 주어와 일치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1) 가. 김 선생님은 시를 좋아하신다. (김 선생님이 → 김 선생님은)
 나. *김 선생님은 내 동생이 좋아하신다. (김 선생님을 → 김 선생님은)
 (2) 가. 나는 김 선생님이 맘에 든다.
 나. *김 선생님이 맘에 드시지만 그의 수업은 듣지 않을 것이다.

(6) 가.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나. 이 옷이 훨씬 잘 어울리세요.

다. 모두 값이 3만 원이십니다.

라. 손님, 주문하신 게 김밥이세요?

마. 이쪽으로 누우실게요.

(7) 가.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나. 선생님, 힘이 드세요?

다. 선생님, 머리가 많이 빠지셨네요.

라. 선생님, 자제분이 몇이나 되세요?

마. 선생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시죠?

먼저 위 (7)의 문장을 보면, 문장의 패턴에 관계없이 ‘-시-’는 청자이면서 말의 대상(délocuté)인 ‘선생님’ 때문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성분이 가리키는 존재를 전체 문장의 주어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보면, (6)에서도 ‘-시-’는 청자이면서 말의 대상(délocuté)인 ‘손님’ 때문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성분이 가리키는 존재를 전체 문장의 주어로 보면, (6)은 다음과 같은 심층 구조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8) 가. 손님, (손님은)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나. 손님, (손님은) 이 옷이 훨씬 잘 어울리세요.

다. 손님, (손님은) 모두 값이 3만 원이십니다.

라. 손님, (손님은) 주문하신 게 김밥이세요?

마. 손님, (손님은) 이쪽으로 누우실게요.

극단적으로 (6마)에서도 ‘-시-’가 일인칭 주어와 관계가 있는 ‘-을게요’와 결합하여 1인칭 대명사 ‘나’를 높이고 있는 역할까지 한다고 기술하고 있는 논의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시-’는 여전히 청자인 ‘손님’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파악된다. 이 문장은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겠-’의 용법을 활용한 명령의 간접화행보다도 더 간접적인 새로운 형태의 간접화행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일인칭 어미인 ‘-을게요’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화자의 약속의 기능을 청자의 입장에서 함으로써 명령의 직접성을 회피하고자 한 전략이 손님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전략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최근 서비스업계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짝의 명령의 간접성 정도를 비교해 보자.

- (9) 가. 손님, 이쪽으로 누우세요.
 나. 손님, 이쪽으로 누우시겠습니다.
 다. 손님, 이쪽으로 누우실게요.

만약에 임동훈(2011)이나 김영일(2016)의 주장대로 ‘-시-’의 청자 존대 기능으로의 문법화 현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명시할 점이 있다. 그것은 존대의 대상이 되는 ‘청자’가 통사적으로 ‘주어’ 자리에 상정되었을 때만 ‘-시-’와의 호응/일치가 일어난다는 점이다(목정수, 2013). 다음과 같이 ‘청자’가 주어 이외의 자리에 놓일 때는 당연히 ‘-시-’가 나타나지 않는다.

- (10) 가. 사장님, 제가 (사장님을) 도와 드릴까요/*도와 드리실까요?
 나. 선생님, 숙제를 언제까지 (선생님께) 제출하면 되나요/*제출하시면 되시나요?

그리고 ‘압존법’과 관련해서도 ‘청자 존대’의 ‘-시-’는 나타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시-’는 주체/주어 존대의 기능이 일차적인

라는 점을 다시금 입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압존법(壓尊法)’⁴⁾에 따르면, 예를 들어 아들인 ‘내’가 ‘할아버지’를 청자로 두고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경우, ‘-시-’를 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러한 압존법의 의식이 거의 사라졌다 할 정도로 필자를 포함하여 일반인들은 그 쓰임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것이 현실일 것이다. 따라서 다음 문장의 ‘-시-’는 ‘할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와 연관되어 해석된다.

(11) 할아버지, 아버지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임동훈(2011)의 ‘청자 존대설’에 따라 ‘-시-’가 청자 존대의 기능을 한다면, 다음 문장에서 ‘-시-’는 청자인 ‘할아버지’와 연관 해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2) 할아버지, 아버지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시-’가 화자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할 당사자이자 청자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것으로 기능한다는 해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청자인 ‘할아버지’에 대한 존대는 ‘-어요/습니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동사 ‘들어오다’에 결합한 ‘-시-’는 그 행위의 주체인 ‘아버지’와 호응/일치하는 것으로만 해석된다. 따라서 ‘-시-’가 청자 존대 요소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청자 존대설’도 그 청자가 문장의 주체/주어 자리와 겹칠 경우에 한한다는, 즉 주어로서의 청자와만 호응한다는 것으로 수정돼야 올바른 기술이 된다 할 것이다.

4) 압존법은 문장의 주체가 화자보다는 높지만 청자보다는 낮아, 그 주체를 높이지 못하는 어법을 말한다. 《표준국어대사전》

3. 일반 존대와 과잉 존대의 경계

2장에서 우리는 이른바 ‘사물 존대’라는 현상이 구조적으로 ‘사물’을 존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대의 대상으로 상위의 주어 자리에 놓이는 ‘주체’를 존대하는 것임을 밝혀, 이것이 단순한 오·남용의 문제가 아닐 수 있음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는 ‘-시-’의 오용이 아니라는 셈인데, 왜 이런 사용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이상한 문장으로 여기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⁵⁾ 필자는 그 이유를 ‘-시-’의 기능 변화에서 찾지 않고, 우리의 언어 환경 변화에서 찾고자 한다.⁶⁾ 즉, ‘-시-’는 주체/주어 존대 요소로서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언어 환경이 화자와 청자가 마주 보고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언어 환경이 물리적으로 말은 화자가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는 말을 듣는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를 의식하면서 말을 하는 또는 대화를 나누는 매체 환경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물 존대’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일반화하면, ‘1인칭의 음각화(陰刻化)’ 또는 ‘2인칭의 양각화(陽刻化)’ 현상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언어학자 크리스털(David Crystal)이 《언어 혁명》(2009)에서 언급했듯이, 21세기는 ‘인터넷을 통한 언어 사용의 혁명’이 일어난 시기이다. 특히, 인터넷 채팅, 누리소통망서비스(SNS)는 문어적 구어, 구어적 문어적

5) 국민들이 바르게 쓰고 있지 못하는 모습(1순위 기준)으로는 ‘말할 때 내용 연결 미흡’이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맞춤법과 띄어쓰기 부정확’(20.7%), ‘부정확한 발음이나 억양’(16.7%) 등이 뒤를 이었고, 한편 1, 2순위로 택하는 항목에서는 ‘맞춤법과 띄어쓰기 부정확’(44.8%), ‘말하거나 글로 쓸 때 높임말 사용 부적절’(34.2%), ‘부정확한 발음이나 억양’(31.9%) 등의 순이었다(국립국어원, 201561).(밑줄은 필자가 첨.)

6) 언어 조사할 때의 환경의 변화도 ‘사물 존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반영되었다고 본다. 가령, 피조사인이 점원이 고객을 앞에 두고 발화하는 상황을 고려한 상태에서 ‘커피 나오셨습니다’에 대해 판단하여 응답하는 것과 피조사인이 그러한 문맥/상황을 떠나 단순히 ‘커피가 나오셨습니다’라는 발화를 두고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응답하는 것 사이에는 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럼 문어와 구어의 이분법을 뛰어넘는 언어의 하이브리드 현상을 낳았다. 인터넷 언어 사용이 중심이 되면서 일반적인 언어 사용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다. 이정복(2017)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일상적 활용으로 인터넷, 특히 누리소통망서비스(SNS)에 접속하여 읽고 쓰는 시간이 더 길어져서 언어적 상호 작용의 질적, 양적 변화가 나타났고, 더 나아가 맞춤법 의식 및 어문 규범에 대한 태도 변화, 새말의 대량 발생과 확산, 기존 단어와 문법의 변형과 재창조, 말놀이의 생활화와 재미 위주의 언어 사용 일상화 등 언어 사용과 구조에서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시-’와 관련된 ‘사물 존재’ 현상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일반적인 언어 환경은 화자와 청자가 제삼자(화자 자신과 청자를 포함하여)를 화제로 삼아 말을 주고받는 상황이다. 이때 행위자 인칭의 대상이 화자의 존재 대상이 된다면 ‘-시-’와 호응을 할 수 있다. 행위자 인칭의 대상은 제삼자가 주가 되지만, 청자와 겹칠 수도 있다. 다음 (13가, 나)는 전자에 해당하고, (14가, 나)는 후자에 해당한다.

(13) 가. 할아버지가 너를 사랑해 주실 거야.

나. *그놈이 너를 사랑하신타.

(14) 가.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나. *철수야, 잘 지내시니?

그러나 화자와 일치하는 1인칭 행위자는 결코 존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5) 가. *저는 그만 물려가시겠습니다.

나. *내가 보기에 네가 잘못된 거 같으시다.

그런데, 최근에 발달한 인터넷 환경이나 방송 매체에서의 발화 상황을 보면, 발화의 주체(speaker/locuteur)가 발화의 상대자(hearer/allocutaire)

를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구조라고 해도 사실상의 청자는 발화 현장에서 벗어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업계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구조에서의 발화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백화점의 점원이 옷을 설명하는 상황이라든가,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을 빌려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입장에서 어떤 사물에 대해 주체적으로 묘사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발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16) 이 옷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옷을 입어보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자신의 모습이 어떠냐고 평가해 주길 바라는 고객을 앞에 두고 점원은 자신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입장에 서기 어렵다. 고객을 소위 ‘갑’의 위치에 두고 점원은 ‘을’의 위치에서 발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발화 환경 때문이다.

(17) 고객님, 이 옷이 좀 크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은 것 같다’라는 주관적 양태 표현은 구조적으로 당연히 1인칭 화자의 시점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이 개입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점원은 여기에도 과도하게 ‘-시-’를 붙여 쓰는 이른바 과잉 존대의 발화를 하게 된다.

(18) 고객님, 이 옷이 좀 크신 것 같으세요.

따라서 필자는 (17)과 (18)에서의 ‘-시-’의 사용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물 존대’ 현상 중에서 ‘-시-’의 오·남용

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고 변화된 매체 환경에서 문법 요소를 적절하게 재활용하여 사용한 경우를 구분하자는 것이다. 다음의 짝들은 일반적인 ‘-시-’의 적절한 창의적 활용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가) 계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서 ‘간접 존대’로 설명되어 온 것들이고, (나) 계열이 소위 ‘사물 존대’의 예로 비판의 대상이 된 것들이고, 잘 살펴보면 그 구조가 평행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9) 가. 선생님, 지금 계신 곳이 어디(이)세요?

나. 선생님, 주문하신 게 김밥이세요?

(20) 가. 선생님, 품이 페더러 같으세요/품이 죽이세요.

나. 선생님, 잔액이 만 원이세요.

(21) 가. 선생님, 얼굴이 정말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나. 선생님, 반품은 안 되시는 거 아시죠?

김은혜(2016:102)에서 대형 마트의 점원이 ‘사물 존대’ 기능으로서의 ‘-시-’를 사용한 발화로 제시한 다음과 같은 (22)의 문장도 사실은 화자가 아닌 청자를 주어로 상정한 상태에서 발화하고자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점원인 화자가 자신을 중심으로 발화했다면 (23)과 같이 되었을 것이다.

(22) 오늘 핸드크림 할인 들어가세요.

≡ 오늘 (고객님은) 핸드크림 할인 들어가세요.

(23) 오늘 핸드크림 할인 들어갑니다.

≡ 오늘 (우리 백화점은) 핸드크림 할인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사용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다음과 같은 문장에 나타나는 것은 오용의 사례로 고발될 만하다고 생각된다. 앞서 (18)과 관련하여 잠깐 언급한 바 있듯이, 다음과 같이 1인칭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 관련 표현에서 나타나는 ‘-시-’는 과잉 존대로 보인다. 왜냐하면, ‘양태 표현’이란 것은 화자의 명제 내용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에 1인칭을 높일 수 없는 ‘-시-’가 결합된다는 것은 매우 어색하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화자가 청자의 시점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양태 표현은 1인칭 화자의 시각을 반영하기 때문에 어색하게 되는 것이다.

(24) 가. *?손님, 여기서 커피를 드시면 안 되세요.

나. *?이제 가셔도 되십니다.

다. *?비가 올 예정이십니다.

김영일(2016)에서 다루고 있는 다음의 특이한 예문들은 ‘청자 존대’로의 ‘-시-’의 기능 변화로 설명하고자 든 예인데,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예문들은 그야말로 이상해 보인다. 일종의 말실수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돌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용법이 필자를 비롯하여 일반 언중의 문법 의식에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25) 가. 저희는 그 제품이 없으세요.

나. 이 부분은 저희 쪽에서 처리해 드리기가 어려우세요.

다. 저희 보험은 단순히 입원비만 보장해 드리는 것이 아니십니다.

또한 많은 논의들에서 목정수(2013)를 인용하면서 ‘-시-’가 주제어뿐만 아니라 여격어, 속격어 등도 ‘-시-’의 존대 대상이 된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 목정수(2013)의 오독이란 점을 밝히고자 한다. 목정수(2013)에서

주장한 바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주체 존재’의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 이를 ‘주어 존재’라고 해야 간명해진다는 점, ‘주어’는 조사 ‘이/가’보다는 ‘은/는’으로 실현되는 빈도가 훨씬 높다는 점, 그래서 조사 ‘이/가’가 붙었다고 무조건 주어로 볼 수 없다는 점, 그러나 소위 여격 주어를 포함하여 비주격(non-nominative) 주어라고 하는 것은 ‘-시-’와 호응하기 어렵다는 점, 백번 양보하더라도 일반 주어 구문에 비해 여격 주어 구문에서의 ‘-시-’ 일치는 상대적으로 어색하다는 점 등을 분명히 하였다. 다음 두 문장의 짝을 볼 때, (가) 계열의 문장은 비문이라고는 하지 못한다고 해도 매우 어색하고, (나) 계열의 문장이 매우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국어학계에서 (가) 계열의 문장을 중심으로 ‘-시-’의 기능을 파악하는 방식보다는 (나) 계열의 문장을 올바른 문장으로 제시하고 그를 바탕으로 ‘-시-’의 본질을 규명하는 논의의 방향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 (26) 가. ??할아버지께 돈이 많이 필요하신가 보다.
나. 할아버지께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신가 보다.

- (27) 가. ??선생님께 제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나. 선생님은 제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 (28) 가.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셨다.
나. 할아버지는 손이 떨리셨다.

- (29) 가. ??할아버지의 코가 크시다.
나. 할아버지는 코가 크시다.

4. 규범 문법 대 기술 문법

언어 현상을 두고 문법가들의 태도는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어 왔다. 언어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입장에서는 언어의 규칙을 딱 정해 놓고 그를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그와 별도로 언어는 변하기 마련이고, 변화가 있을 때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보고, 그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 입장도 있다. 이때는 언어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른바 규범 문법(prescriptive grammar)과 기술 문법(descriptive grammar)의 대립 구조이다. 영어의 다음 현상을 두고 벌인 논쟁이 유명하다.

(30) 가. It's me.

나. It's I.

규범주의자들은 (30나)의 문장이 맞는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I'는 주격형이고 'me'는 대격형이므로 주격보어 자리에는 주격형이 쓰여야 한다는 것을 든다. 그래서 <왕과 나>(1956)란 영화의 제목도 'The King and I'로 정해졌다. 그러나 실제로 말뭉치(corpus)를 조사해 보면, 이 주격보어 자리에 소위 주격형이 나타나는 예는 거의 없다.

그리고 실제로 대명사의 자립 형식은 다 대격형이다. 영화 제목 <그녀(her)>(2013)도 그렇다. 만약에 남자 가상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를 만든다면 그 제목은 당연히 'he'가 아니라 'him'이 될 것이다. 이는 영어의 대격형이 소위 약세형과 강세형의 두 계열로 나뉘는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의 소위 주격형, 대격형이라는 것은 일종의 접어(clitic)로서 굴절어미가 다 소실된 영어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문법 요소로 쓰이는 것이고, 대명사의 명사 차원에서의 자립 형식은 강세형 대격형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기술 문법가라면 밝힐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어와의 비교를 통해 금방 알 수 있다.

- (31) 가. I - me - ME
나. je - me - MOI

- (32) 가. It's ME.
나. C'est MOI.

본고는 규범주의자들의 이야기도 경청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술주의자의 입장에서 한국어의 ‘-시-’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고 그것의 본질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것과 관련하여 수년 전에 네티즌들의 권상우 비난 악플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건의 발단은 배우 권상우가 일본 기자단과 공식 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우리나라’가 아닌 ‘저희 나라’라고 했다고 해서 왜 ‘한국’을 낮춰서 말했느냐, 그것도 일본에서 라고 하면서 권상우를 밀어붙인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필자는 누리꾼의 국어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목정수, 2014b:341-351). 한국어 사용자 권상우는 ‘한국’을 낮춰 말하려고 한 의도가 전혀 없었을 것으로 보았고, 권상우가 ‘저희 나라’라고 한 것은 공식적인 기자회견장에서 말의 상대가 되는 기자단에 대해 권상우 자신을 낮추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닌 ‘저희 나라’라고 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것이 ‘우리 X’와 ‘저희 X’ 명사구 문법의 정수(精髓)인 것이다. 이것도 규범 문법가와 기술 문법가의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는 한 사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이른바 ‘사물 존대’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규범주의자가 아닌 기술주의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예와 다양한 논의들을 검토해 보았다. 분명하게 결론지을 수 있는 사항만을 간추려 제시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아무리 ‘-시-’가 오·남용된다 하더라도 1인칭 주어를 높이는 데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소위 ‘백화점식 경어법’이라고 해서 ‘-시-’의 오용을 지적하고 있는 배상복·오경순(2012:56-57)에서 본질을 호도하는 언급이 있었다. 서비스센터 직원이 냉장고 수리를 부탁한 주인에게 “모터가 망가지셨습니다.”라고 한 것은 ‘모터’라는 사물을 존대한 것이라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이런 말을 자주 듣다 보면 자신들도 냉장고가 고장 나면 서비스센터에 전화해서 “냉장고가 고장 나셨습니다.”라고 할지도 모르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 직원이 수리를 의뢰한 고객에게 “모터가 망가지셨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만, 수리점에 전화해서 의뢰인 자신의 냉장고가 고장 난 것을 알리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냉장고가 고장 나셨습니다.”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배상복·오경순(2012)에서 우려한 “우리 집 냉장고가 고장 나셨습니다.”와 같은 문장은 한국인의 입에서 발화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 이는 분명히 ‘사물 존대’ 현상에 대한 오진이다.

둘째, 이른바 ‘사물 존대’ 표현 가운데 그 원리를 인정할 만한 것 대부분은 소위 이중 주어 구문에서의 제1명사구에 대한 존대 현상과 동일한 원리로 설명된다. 따라서 ‘사물 존대’ 현상은 언론이나 학계에서 요란하게 떠든 것에 비해 그리 크게 우려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33) 가. 우리 할머니는 얼굴이 아직도 예쁘십니다.

나. 선생님, 지금 위치가/계신 곳이 어디세요?

(34) 가. 네, 고객님의, 환불이 안 되십니다.

나. 고객님의, 아직 커피가/주문하신 게 안 나오셨습니까?

셋째, ‘-시-’의 오·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화자의 주관적 표현을 반영하는 양태 어미나 양태 구성에 개입하는 경우이다. 물론 이도 화자의 청자로서의 시점 이동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언어 구조상 이는 ‘-시-’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35가)보다는 (35나)가 올바른 표현이다.

(35) 가. ??고객님, 여기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시면 안 되십니다/되세요.

나. 고객님의, 여기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돼요.

마지막으로, 소위 주체 존대 선어말어미 ‘-시-’를 문법에서 다룰 것인가, 사회언어학적으로 다룰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시-’를 문법 요소의 하나로 보고 이를 통사론, 즉 문법에서 다루는 것이 일차적이고, 그것의 변용 현상을 이차적으로 사회언어학적 또는 화용론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언어는 변하기 마련이다. 변화의 원인은 언어 내적 요인과 언어 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언어 외적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체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사물 존대’ 현상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원인이 매체 환경의 변화 때문인 것이지, 언어 내적으로 ‘-시-’의 기능 변화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흔들림 없는 소견이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2015), 《201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 김영일(2016), “청자 존대 ‘-시-’의 종합적 검토”, 《언어과학》 23-1, 한국언어과학회, 53-87쪽.
- 김은혜(2016), “한국어 선어말 어미 ‘-시-’의 사물 존대 기능: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판매원의 발화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24-1, 한국사회언어학회, 91-113쪽.
- 목정수(2013), “선어말어미 ‘-시-’의 기능과 주어 존대”, 《국어학》 61, 국어학회, 63-105쪽.
- _____(2014a), “한국어 서술절 비판: 통사단위 설정을 중심으로”, 《현대문법연구》 76, 현대문법학회, 101-126쪽.
- _____(2014b), 《한국어, 그 인칭의 비밀》, 태학사.
- _____(2016), “한국어의 진성 주어를 찾아서”, 《어문연구》 17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7-46쪽.
- 배상복·오경순(2012), 《한국인도 모르는 한국어: 쉽고 재미있게 익히는 우리말》, 21세기북스, 56-57쪽.
- 임동훈(2000), 《한국어 어미 ‘-시-’의 문법》, 태학사.
- _____(2011), “담화 화시와 사회적 화시”, 《한국어 의미학》 36, 한국어의미학회, 39-63쪽.
- 이정복(2006), “상황 주체 높임 ‘-시-’의 확산과 배경”, 《언어과학연구》 55, 언어과학회, 217-246쪽.
- _____(2017), 《사회적 소통망의 언어문화 연구(SNS, 21세기 언어의 화두)》, 소통.

표준어와 방언의 오늘과 내일

이기갑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표준어의 제정과 개정

표준어는 지역이나 사회적 요인에 따른 언어의 변이가 심한 경우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국민들에게 통일된 어문 교육을 시키며, 국가적 공용어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한 나라의 규범 언어이다. 표준어는 우리나라처럼 국가 기관이 명시적인 규정을 통해 제정할 수도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수도나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지역의 말을 묵시적인 표준어로 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여왕의 영어(the Queen’s English)’라 하여 왕족의 언어를 표준어로 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표준 발음만을 떼어서 ‘용인된 발음(RP: Received Pronunciation)’이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용인된 발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특권을 가진 계층을 이루는 경향이 있다. 일본에서는 표준어를 ‘공통어’라 하는데 도쿄 지역에서 사용되는 일본어를 두루 일컫는다. 중국의 경우도 수도인 북경에서 사용되는 중국어를 ‘보통화’라 하여 표준어로 삼고 있다. 중국의 보통화는 북경어 음을 표준음으로 하고 북방어를 기초 어휘로 하며 전형적인 현대 구어로 쓰인 저작을 문법적인 기준으로 삼은 공통어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조선어학회가 1933년 <한글맞춤법통일안>을 제정하면서 맞춤법의 표기 대상이 표준어임을 명시하고, 표준어는 ‘현재 중류사회가 쓰는 서울말’로 규정하였다. 이렇게 규정된 표준어의 실제적인 내용이 드러난 것은 1936년 조선어학회가 제시한 <사정한 조선어표준말모음>을 통해 서였으며, 이후 《우리말큰사전》 등 모든 국어사전에서 표준어는 올림말의 대상이 되었다. 해방 후 국어 교육이 본격화되면서 표준어는 교육용 언어로서 규범의 구실을 하게 되었으며, 방송과 신문 등 모든 매스컴의 언어로 사용되면서 명실상부한 한국의 공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88년 표준어는 ‘중류사회가 쓰는 서울말’에서 ‘교양 있는 사람이 두루 쓰는 서울말’로 그 기준이 바뀌면서 ‘중류’와 같은 계층의 개념 대신 ‘교양 있는’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기준이 적용되게 되었다. 그 결과 표준어는 교육 받고 교양 있는 사람의 말씨라는 인식이 더욱 굳어지게 된 것이다. 1988년 이후 표준어는 계속 새로운 낱말들을 받아들이면서 단수 표준어에서 복수 표준어의 시대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다수의 낱말들을 표준어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우렁챙이’ 외에 ‘멍게’가 표준어로 인정되고, 팔다리를 뺀고 엎드린 사람의 허리 위에서부터 목까지를 물로 씻겨 주는 일을 가리키는 표준어는 ‘등목, 등물, 목물’의 세 가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표준어가 개방적으로 변하게 된 것은 현실 생활에서 다수의 언중들이 사용하는 것을 표준어로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표준어는 고정된 어휘 목록이 아니라 언제든지 넓혀질 수 있는 개방된 목록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던 ‘짜장면’이 마침내 ‘자장면’과 함께 표준어로 대접받기에 이르렀다.

2. 표준어와 서울말

1933년의 <한글마춤법통일안> 이후 한국의 표준어는 ‘중류’ 또는 ‘교양 있는’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는 했지만 서울말이었다. 그런데 ‘서울말’의 개념은 매우 모호하다. 한국의 서울은 서울 토박이들만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거주지를 옮긴 결과 오히려 서울 토박이보다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러니 교양 있는 서울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울말이란 개념도 어차피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실제 대대로 서울에서 살았던 서울 토박이들의 말을 정밀하게 살펴보면 표준어와 거리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사 ‘하다’는 충청도나 전라도의 말과 같이 서울 토박이들도 ‘허다’를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듯이’와 같은 연결어미를 ‘-데키’처럼 사용하여 서남방언의 형태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연결어미 ‘-고’는 대부분의 교양 있는 서울 사람들이 ‘-구’로 발음하고 있어, 서울 사람들의 고유한 말인 ‘서울 사투리’의 존재를 인정할 경우 우리가 아는 표준어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193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표준어는 국어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정되고 고쳐졌다. 처음에 제정된 표준어와 달리 현실의 서울말은 변화를 겪기 마련이다. 이 변화는 서울말 자체의 변화일 수도 있지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변화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다. 비록 표준어의 기준이 자연과학과 같은 엄격성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아마도 다수의 서울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표준어의 근간을 이루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서울 사람의 범위에 지방 출신들도 다수를 차지하면서 서울말의 외연이 자연스럽게 넓혀지게 된 결과 표준어의 대상이 되는 서울말 속에는 지방의 방언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채소의 한 가지인 ‘무’가 과거에

‘무우’였다가 오늘날 ‘무’로 바뀐 것은 서울말 자체의 변화 탓일 것이다. 그러나 ‘상추’가 과거에 ‘상치’였다가 ‘상추’로 바뀌게 된 것은 ‘상추’라고 말하는 지방 사람들이 서울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생긴 변화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에서 ‘정구지(=부추)’, ‘건덕지(=건더기)’, ‘찌짐(=부침개)’과 같은 방언 낱말들을 표준어로 삼자는 의견에 응답자의 54.5%가 찬성하였다. 이 결과는 표준어와 방언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하겠다. 어쨌든 방언도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여 일반화된다면 굳이 표준어로 삼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니, 이는 표준어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 가는 열린 존재임을 말해 준다.

3. 표준어의 권위

해방 이후 본격적으로 우리말 교육이 시행되면서 표준어는 교육의 규범 언어로서 압도적인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교육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공문서나 언론 매체 등에서 표준어만을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표준어는 모든 국민이 반드시 배워서 익히고 써야 할 언어가 된 것이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나 언론 매체에 종사하는 아나운서, 기자들은 반드시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 표준어 대신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려면 따로 표준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결과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은 시골 사람 또는 교육받지 못한 사람, 교양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기에 이르렀다. 글쓴이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도 1960년대 초등학교 시절에는 교장 선생님이 사투리를 쓰지 말자는 현수막을 교문에 달고 전체 조회 시간에도 이를 강력히 권고하였던 기억이 있다. 그만큼 표준어는 절대선의 위치를 차지하였고, 상대적으

로 방언은 없어져야 할 우리말의 잡초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표준어가 누리는 언어적 권위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중국의 경우 북경어인 보통화가 표준어이지만, 북경과 정치적, 경제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상해에서는 자신들의 방언을 고집하여 보통화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정서가 있기도 하다. 수년 전 글쓴이가 상해를 방문했을 때 길거리에서 ‘보통화를 씹시다’라는 현수막이 걸린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 그만큼 상해는 자신의 방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해 방언과 북경어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표준어인 보통화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공용어, 교육어로서는 보통화가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각 지역 방언은 이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용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국은 표준어의 권위가 가장 강한 나라이다. 영국에서 ‘용인된 발음(RP)’을 구사하는 것은 교육받은 상류층임을 말해 주는 징표이니, 상류 계층으로 신분 상승을 할 경우 표준 영어를 반드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이나 공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표준 영어, 그리고 용인된 발음을 구사하여야 한다고 한다. 오드리 헵번이 주연한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My Fair Lady)>(1964)는 런던의 하류 계층에 속하던 여인이 상류층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때 원래 사용하던 런던 사투리인 ‘코크니(Cockney)’ 대신 용인된 발음인 ‘RP’를 배우기 위해 개인 교습까지 받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처럼 나라에 따라 표준어가 갖는 권위의 정도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영국처럼 강력한 권위를 자랑하던 나라에서도 조금씩 그 권위가 약화되는 변화를 겪는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지역 방언의 부상으로 인해 표준어의 권위도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변화도 결국은 언어 현실을 인정하면서 표준어의 권위가 그만큼 약해졌음을 말해 주는 증거라 하겠다.

4. 방언에서 표준어로의 전환

표준어 교육이 일반화되고 매스컴 특히 텔레비전의 영향 때문에 방언은 점차 표준어로 바뀌게 된다. 특히 표준어로의 대체는 낱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변화 때문에 세대에 따른 언어 차이도 뚜렷하게 발생한다. 현대적인 학교 교육을 받은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의 차이는 표준어 사용 능력에서 압도적으로 나타나는데, 아마도 50~60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과 이후의 언어 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가해지는데, 텔레비전은 세대를 불문하고 영향을 미치므로 이미 표준어 교육을 받은 세대의 경우 그 영향력은 미미하다 할 수 있지만, 교육받지 못한 세대나 나이 든 세대의 경우에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결과로 실제 방언 조사를 가 보면 70대의 노인이라 할지라도 상당한 표준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있어 과거처럼 60대 이상의 노인들을 찾아 방언조사를 하던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이처럼 표준어 교육과 매스컴의 영향으로 방언의 자리를 표준어가 차지하게 되지만, 어휘 차원에서의 ‘방언 > 표준어’의 변화는 다양하게 일어난다. 이때 가장 급속한 변화를 겪는 부분은 아마도 ‘명사’가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 표준어 ‘부추’는 전라도에서 ‘술’이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날 50대의 전라도 출신 여성들은 ‘술’의 의미를 알면서도 실제로는 ‘술’ 대신 ‘부추’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더 즐겨 한다. 그러나 20~30대의 전라도 출신 젊은이라면 아마도 ‘술’이 가리키는 식물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일 것이다. 60대 이상의 세대가 ‘술’만을 사용하고, 50대의 여성들이 ‘술’의 뜻을 알면서도 ‘부추’를 사용한다면, 20대나 30대의 사람들은 ‘술’의 의미를 아예 모르는 형편이니, 이것은 곧 ‘술 > 부추’의 변화 과정을 보여 주는 실증적인 예라 할 것이다.

나이 든 전라도 사람들은 떡국을 ‘끓인다’고 하지 않고 ‘ս다’고 한다.

동사 ‘쭈다’는 곡식의 알이나 가루를 물에 끓여 익힌다는 뜻인데, 떡국은 곡식의 알이나 가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쭈다’고 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 이것은 ‘떡국’을 전라도 지방에서는 과거에 ‘떡죽’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떡국을 국이 아니라 죽으로 인식한 탓에 동사도 ‘끓이다’ 대신 ‘쭈다’를 쓴 것이다. ‘국’은 고기, 생선, 채소 따위에 물을 많이 붓고 간을 맞추어 끓인 음식이나 일반적으로 밥을 먹기 위해 준비한 음식이다. 따라서 끼니에 밥이 없이 국만 먹는 경우는 없으니 ‘국’은 ‘밥’을 전제로 하는 음식인 셈이다. 그런데 ‘떡국’은 결코 밥을 전제로 하는 음식이 아니며 밥 없이 독자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 국이라 하기에는 무리함이 있다. 한편 ‘죽’은 ‘국’과 달리 밥 대신 먹는 음식이므로 기능적 측면에서 본다면 떡국은 ‘국’보다는 ‘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곡식의 가루나 알갱이가 아니고 가래떡이란 점에서는 ‘국’에 가까운 면이 있다. 이처럼 떡국은 국과 죽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역에 따라 이를 ‘국’이나 ‘죽’의 어느 한쪽으로 분류했던 것이다. 그래서 중부지방에서는 ‘떡국’, 전라도 지방에서는 ‘떡죽’이라 했으니 이에 따라 자연히 ‘떡국’은 ‘끓이다’, ‘떡죽’은 ‘쭈다’의 동사와 호응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나이 든 전라도 사람들이 ‘떡죽’ 대신 표준어 ‘떡국’을 사용하게 되면 서 동사와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었다. ‘떡죽 쭈다 > 떡국 쭈다 > 떡국 끓이다’와 같은 세 단계의 변화 단계 중 두 번째 단계에 와 있는 셈이다. 이것은 동사보다 명사가 더 표준화되기 쉽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다. 오늘날 전라도의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 번째 단계인 ‘떡국 끓이다’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미 전라도의 토착적인 표현 대신 표준어로의 전환이 완결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휘 차원에서는 명사가 동사나 형용사보다 표준화가 더 쉽게 일어난다. 반면 운율적 요소는 어떠한가? 우리말에서 변별적으로 기능하는 운율적 요소는 방언에 따라 길이와 높이가 있다. 동북방언, 강원도 영동 지역어, 동남방언은 중세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성조가 변별적으로 기능하는

반면 서부방언 지대에 속하는 서북방언, 중부방언의 대부분 그리고 서남방언에서는 높이가 대신 길이가 변별적으로 기능한다. 그런데 표준어는 서울말을 기반으로 하므로 길이언어인 셈이다. 따라서 같은 길이언어에 속하는 방언의 경우 표준어로의 변화가 쉽게 일어난다. 이 때문에 적어도 운율적 차원에서는 중부방언권이나 서남방언권 사람들은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표준어와 가까운 운율을 구사할 수 있다. 반면 성조언어를 지닌 동남방언권 화자들은 높이에서 길이로의 전환이 어려운 탓에 표준어의 운율을 따라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동남방언권 화자들은 꽤 긴 시간을 서울에서 살더라도 자신의 어릴 적 운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운율은 낱말이나 문법적 요소에 비해서는 훨씬 방언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요소이다. 그래서 동남방언의 화자들은 자신의 의지에 상관없이 언어의 표준화에 저항하는 것으로 비춰지곤 한다.

5. 방언

5.1. 방언의 가치

방언은 한 언어 내부에서 지역과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변이체를 말한다. 과거의 신분제가 없어지고 사회가 평등화하면서 계층에 따른 언어 변이는 많이 사라졌다. 그렇지만 아직도 남성과 여성에 따른 언어 차이, 직업이나 세대에 따른 언어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는 비교적 좁은 땅이지만 산이 많은 탓에 나라의 크기에 비해서는 지역 방언의 차가 큰 편이다. 그래서 서울이 포함된 중부방언 외에 서북방언, 동북방언, 서남방언, 동남방언, 제주방언 등이 따로 존재하고 함경북도 일부 지역에서는 육진방언을 별도로 설정하기도 한다.

방언은 독자적인 체계와 역사를 지니고 있어 우리말의 다양성을 보여

주는 귀중한 언어재이다. 언어학적으로는 우리말의 변이와 역사를 보여 주는 자료일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는 방언이 사용되는 지역의 언어문화 그리고 언어에 투영된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의 귀한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학문적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표준어가 제정된 후로 방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준어가 말 그대로 우리 언어생활의 규범으로 작용하면서 방언은 표준어 사용을 방해하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학교에서 표준어 교육이 시행되자 방언 사용자는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인식도 생겨나게 되었다. 더구나 방언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말로 이해되면서 방언은 시골말, 방언 사용자는 시골 사람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되었다, 방언은 우리말의 다양성을 보여 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사람들은 다양성보다는 표준화와 획일성을 더 귀한 가치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지역에서 방언은 그 지역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로 사용되어 왔다. 비록 표준어의 영향으로 방언 어휘가 많이 사라지기는 하였지만 지금까지도 방언은 우리의 일상 언어인 셈이다.

방언은 표준어와 더불어 사용된다. 특히 문학 작품에서 방언은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사용되어 왔다. 잘 알려진 대로 평북방언으로 쓰인 백석의 시, 충청도 방언이 투영된 이문구의 소설 등은 방언을 활용한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조정래의 《태백산맥》, 최명희의 《혼불》 등에서도 생생한 방언이 작품 속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경우이다. 작가들은 작품의 공간적 배경인 지역을 드러내기 위해 방언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등장인물의 계층성을 드러내기 위해 방언을 사용하기도 한다. 문학 작품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인물은 주로 교육받지 못한 하류 계층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데, 조정래의 《태백산맥》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김범우 등 인텔리 계층은 표준어를 사용하고, 하대치, 염상구 등의 비인텔

리 계층은 별교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방언은 방송의 소재로 쓰인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드라마에서 방언 사용자는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 지역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역시 하류 계층이나 특정 직업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 밖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를 웃기는 웃음의 소재로 사용된다. 우리 희극의 역사에서 사투리가 웃음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쓰인 것은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코미디언 백남봉, 남보원이 팔도 사투리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웃긴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황산벌>(2003)과 같은 영화에서는 고대 삼국시대가 그들이 사용하는 방언의 차이로 구분된 것도 영화 속에서 방언이 지니는 가치를 명시적으로 보여 주는 예이다.

최근 방언은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 그리고 상업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상호나 상품의 이름에 사투리가 쓰여 색다름을 주고,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나 가게의 간판에서도 심심찮게 사투리가 쓰여 고객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이처럼 방언 또는 사투리는 지역의 일상어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문학, 문화, 상업 등의 여러 영역에서 새로운 쓰임새를 찾고 있으니, 이러한 언어적 다양성은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며 유산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표준어의 가치와 상관없이, 방언이 지니는 고유한 가치 역시 이해되고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5.2. 방언에 대한 의식의 변화

표준어의 위세가 대단했던 시절, 상대적으로 방언은 시골말, 세련되지 못한 거친 말, 상스러운 말 등으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가려면 말하는 데 눈치를 보아야 했다. 그 결과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도 1학년 여름방학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올 때쯤이면

어느새 말이 서울말 비슷하게 변하게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여학생들에게서 심하게 나타나는데, 표준어에 대한 지향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증거라 하겠다. 이러한 서울말 또는 표준어 지향의 변화는 그러나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기도 한다. 마치 고향을 배반하였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서울말 사용을 흔히 ‘경사(京辭) 쓴다’라고 하여 부끄러운 일로 비난하였다고도 한다.

이처럼 표준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여겨졌던 방언들이 근자에 들어 조금씩 제 가치를 인정받아 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방언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에서 쉽게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방언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이 그만큼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선 사투리를 사용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 자신이 방언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이 이를 굳이 배척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 것이다. 더불어 매스컴에서 방언 사용자들이 늘어난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옛날에는 엄격한 표준어 사용 심사를 거친 아나운서들만이 뉴스를 진행했었지만 근자에는 이른바 앵커가 뉴스를 진행하고 지방 출신 사회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의 말에서도 방언을 손쉽게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방언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지방자치체의 확립 때문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5.16 군사혁명 이후 정지되었던 지방자치법이 1988년에 개정되면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다.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독립성이 확보되면서 자치단체의 위상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행정적 변화로 인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자긍심도 함께 커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자신들이 사용하는 말도 새롭게 인식하기에 이른 것이다. 방언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이러한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방언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이 조금씩 약화되는 변화는 실제 국립국어원이 수행한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국립국어원은 5년마다 언어 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0년에 이어 2015년에 조사가 이루어져서 5년 동안에 일어난 의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평소에 사용하는 말로서 표준어와 지역 방언의 사용 실태를 묻은 결과, 표준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4.5%를 차지하였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표준어를 사용하는 셈이니 그만큼 표준어 교육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방언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경상방언 26.4%, 전라방언 9.7%, 충청방언 5.8%, 강원방언 2.2%, 제주방언 1.3%, 북한방언 0.1%의 순서를 보였다. 영남 지역의 인구가 많은 데다가 표준어로 바뀌기 어려운 언어적 특징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표준어와 방언의 사용 비율을 5년 전인 201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표준어 사용 비율이 7% 상승한 반면 방언 사용률은 특정 방언에 관계없이 모두 조금씩 낮아진 결과를 보인다. 이것은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지역 방언에서 표준어로 전환되어 간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준어는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학력이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그 사용 비율이 높는데 이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지역에 따라서도 표준어의 사용 비율이 현격하게 차이 나는데, 특히 영남 지역은 6.1%의 사용 비율을 보여 다른 지역(호남 28.8%, 제주 32.2% 등)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경상도 방언의 언어적 특징이나 언어적 보수성 그리고 자신의 방언에 대한 고집 등이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해석된다.

자신이 지역 방언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역 방언의 사용에 대해 묻은 결과,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모든 지역에서 10% 이내로서 자신의 말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방언과 다른 방언 사용자와의 대화에 대한 의식을 묻은 결과 제주 32.3%, 강원 23.6%, 경상권 16.8%, 수도권 9.3%, 전라권 8.3%,

충청권 7.4%가 불편하고 어색하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타 지역 방언에 대한 배타적 의식을 반영하는 순서로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제주도와 강원도 및 영남 지역 사람들이 비교적 다른 방언에 대해 배타성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적으로 섬이거나 산악 지대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고립되고 폐쇄적인 지역일수록 타 방언에 대한 배타성이 강함을 짐작할 수 있다.

지역 방언의 사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고 지역 방언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19%를 차지하였다. 이는 2010년의 28.6%에 비해 9.6%가 낮아진 수치로서 지역 방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표준어와 지역 방언 가운데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응답은 2010년 28.4%에서 2015년 31.4%로 약간 상승하였으며, 때와 장소에 따라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비율은 28.2%에서 39%로 10% 이상 상승하였다. 이 역시 지역 방언에 대한 거부감이 5년 전에 비해 줄었음을 의미한다.

지역 방언이 언어 통일에 방해가 되고 지역감정을 유발하므로 없애야 한다는 비율은 11.5%로서 2010년의 19.1%에 비해 줄어들었다. 반면 표준어와 기능이 다르다거나 국어의 역사를 밝히는 귀중한 자원이라거나 지역 고유의 말이라는 이유 등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비율은 88.6%로서 5년 전의 80.7%에 비해 8% 정도의 상승을 보였다. 이러한 비율 역시 방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졌음을 말해 준다.

반면 자신의 자녀가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표준어만 사용하기를 바라는 비율은 30.3%에서 36.1%로 증가한 반면 지역 방언만 사용하기를 바라는 비율은 3.1%에서 1.2%로 줄었다. 또한 표준어와 지역 방언 모두를 사용하기를 바라는 비율은 44.2%에서 39.3%로 줄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응답자 자신의 세대에서는 방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미래의 세대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텔레비전의 대담이나 토론 프로그램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부정적인 반응이 47.4%로서 2010년의 44.3%에 대해서는 약간 높아진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부정적 반응 가운데서도 특히 자신의 지역을 드러내는 것 같아 보기가 좋지 않다는 반응이 13.8%에서 20.1%로 높아졌다. 이것은 5년 사이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방언 사용자가 많아지면 서 그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따라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에서 5년 동안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우리 국민들은 5년 전에 비해 전체적으로 방언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미래의 세대에 대해서는 표준어의 사용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인다고 해석된다. 또한 방송 등 매스컴에서 방언 사용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커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의 세대에서는 방언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공적 언어로서의 표준어의 위상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에는 표준어의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점차 커 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6. 미래의 표준어

언어 의식 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들은 미래 세대에 표준어가 더 널리 사용될 것을 바라고 있다. 실제로 표준어 교육과 매스컴의 영향력이 지금과 같이 지속된다면 방언은 점차 표준어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지역 방언의 상당 부분은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 특히 제주 방언처럼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방언은 표준어로의 전환이 심하게 일어날 것이며, 중부방언이나 서남방언처럼 표준어와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방언

역시 표준어에 쉽게 동화될 수 있을 것이다. 동남방언이 표준어로의 전환에 가장 저항을 할 만한 방언으로 생각되지만 이 방언 역시 어휘 차원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다만 성조가 포함된 억양의 경우는 표준화하는 데 상당한 세월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의 남쪽뿐만 아니라 북한 방언의 미래는 어떠한가? 이미 북한 지역은 남쪽의 표준어에 대응하는 문화어를 표준 삼아 언어의 통일화를 이루어 가고 있다. 물론 평양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 그리고 산악 지대가 많은 지역에서는 지역 방언이 아직도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나 도시를 중심으로 문화어 중심의 언어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미래에 통일이 되었을 경우의 표준어 상황은 어떠한가? 북한의 문화어는 일정 부분 남한의 표준어와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일치를 보이는 부분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표준어와 문화어는 큰 어려움 없이 언어적 통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에도 남한의 텔레비전 드라마 등이 유입되어 남한의 표준어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기에 통일 이후 학교 교육이나 사회 교육 등을 통해 통일된 언어의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표준어 차원에서는 큰 무리 없이 언어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탈북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에 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표준어와는 별개의 문제라 하겠다.

표준어의 세력이 점차 커질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방언의 위치는 어떠한야 하는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언은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우리 언어문화의 한 유산이다. 따라서 이를 애써서 없애려는 노력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방언 사용을 권장하거나 강요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엄연히 국가에서 정한 표준어가 존재하고, 의사소통의 효율성이나 언어적 통일성을 위해서도 표준어의 존재 이유가 분명하므로 표준어 사용은 권장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적인 차원에서

는 표준어 사용을 권장하고, 비공식적 또는 사적인 차원에서는 방언을 용인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태도라 하겠다. 이 밖에 문학, 문화, 상업의 측면에서 방언이 활용되는 것은 우리말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적극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낯설고 색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 외국어 대신 방언을 이용한다면, 우리말의 활용력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외래어와 외국어, 그리고 국어

김종덕
연세대학교

1. 들어가는 말

외래어와 외국어를 둘러싼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고찰되고 연구되어 왔으나 아직도 외래어와 외국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 외래어와 외국어의 오용 및 남용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논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외래어의 개념은 다음 장에서 논의하겠거니와 일단, 이 글에서는 한자어와 귀화어¹⁾(‘고무, 부처, 담배, 고추, 절, 붓, 떡²⁾’ 등과 같이 더 이상 외국어에서 온 것이라는 인식이 없는 단어)는 논의에서 배제하기로 한다.

2. 외래어와 외국어

2.1. 외래어의 개념

외래어는 ‘외국어에서 기원한 국어’(임동훈, 1996:41)이다. 외국어가 국어로 되려면 의당 ‘국어의 일부로 받아들여진 말’(정희원, 2004:5)이어야 하고

1) 김민수(1973) 참조.

2) 열거된 단어들 중 몇몇의 어원 및 한국어로의 정착 과정은 임흥빈(1996)에 제시되어 있다.

그 잣대로는 ‘한국어화(Koreanization)되었느냐가 중요한 기준’(김하수, 1999:251)이다. 그러나 ‘국어의 일부로 받아들여진 말, 한국어화’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지적인 작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림없는 외래어³⁾가 아닌 외래어 언저리에 있는 단어들은 외국어와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것이다.

2.2. 외래어는 한국어이고 외국어는 한국어가 아니다.

‘외국어에서 기원한 국어의 일부로 받아들여진 한국어화된 단어’가 외래어라면 그것은 고유어, 한자어와 마찬가지로 우리말의 중요 요소임은 명백하다. 임동훈(1996:41)에서는 “외래어는 외국어에서 기원하였다는 점에서 고유어나 한자어와 다른 특수성을 보이기도 하나, 이러한 특수성이 외래어의 국어 지위를 흔들지는 않는다.”라고 하였다. 즉, 외래어는 한국어다.

‘이랏사이마세(일본어), 봉수와(프랑스어), 차오(이탈리아어)’ 등은 명백한 외국어이다. 해당 언어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위크 포인트, 텐 이얼즈 올드, 트러스트 미’⁴⁾도 마찬가지이다. 영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과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즉, 외국어는 한국어가 아니다. 송철의(1997:4)에서도 “외래어는 고유어와 함께 자국어의 일부이지만 외국어는 자국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⁵⁾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래어를 쓰지 말고 우리말을 사용하자.”라는 주장은 틀렸다.

3) ‘버스, 택시, 뉴스, 라디오, 텔레비전’ 등은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외래어로 인정할 것이다.

4) 모두 방송 드라마에서 사용된 예(조민하·홍종성, 2015:46)이다.

5) 그러나 바로 뒤에 “실제의 문제에 들어가면 어디까지가 외래어이고 어디까지가 외국어인지를 구별해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덧붙이고 있다.

2.3. 외래어와 준외래어

외래어와 외국어 중간 언저리에 있는 단어들은 골치가 아프다. ‘모바일 뱅킹, 플레잉 코치, 올 누드, 오픈카, 오디션, 애드리브, 로브스터’를 보자. 분명히 외국어에서 온 말들인데 어떤 것은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전혀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사람마다 조금씩 친밀도가 다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일단 준외래어라 하자. 준외래어는 아직 한국어는 아니나, 완전히 한국어화된다면 외래어라 할 만한 단어들로서 ‘준외국어 안에 있는, 동화 중인 외래어’(김슬옹, 2008:72)와 비슷하나, ‘동화 중’은 시간이 흐르면 완전 동화가 된다는 뜻인데, 준외래어는 한국어의 단어 목록에서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동화 중인 외래어’와 다르다.

3. 외래어와 외국어의 오·남용

3.1. 오용과 남용

오용은 잘못 쓰는 것이고 남용은 함부로 마구 쓰는 것이다. ‘책’을 ‘잭’ 혹은 ‘잭’이라고 하는 것은 ‘책’이라는 규범에 어긋난 잘못된 사용, 즉 오용으로 서 앞뒤 문맥으로도 의미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의사소통에 실패할 것이다. ‘더우기’를 ‘더욱이’로 썼다면 비록 의사소통은 될 것이나 규범에 어긋나므로 쓰기 측면에서의 오용⁶⁾이다. 오용이란 의사소통의 성공·실패 여부에 상관없이 규범에 어긋남을 의미하며, 오용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규범이 필요하다.

6) ‘깍두기-깍두기-깍둑이, 설거지-설겂이, 숟가락-숫가락’ 등도 마찬가지이다.

3.2. 외래어의 오용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규정에 맞지 않는 틀린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오용이다. 예를 들어, ‘로봇’은 올바른 외래어이지만 ‘로보트’라고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은 그 자체가 오용이다. 비슷한 예로 ‘컴퓨터’를 ‘컴퓨타’라고 하는 것도 역시 오용이다. 그런데 오용임에도 불구하고, ‘로봇-로보트, 컴퓨터-컴퓨타’의 대체는 의사소통은 될 것이다. 또, ‘초콜릿’이 아닌 ‘초코레토’ 혹은 ‘쪼꼬레또’를 구사하는 것도 역시 오용이고 아마도 의사소통은 될 것이나 말하는 이는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와인빠’가 ‘외래어의 오용’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려면 ‘와인빠’에 해당하는 표준 표기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외국어를 사용한 결과가 되므로 외래어의 오용에서는 벗어난다. 이렇게 오용의 대상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에 대칭되는 표준 외래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표준 외래어는 규정에 의해서 외국어가 아니라는 사실과 그 표기가 표준 표기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어휘가 외국어인지 외래어인지 명확히 가르는 규정은 아직 없다. 어떤 단어가 외래어로 정착되었는지를 권위 있는 기관에서 지정해 주어야 하는데, 외래어에 관련된 국립국어원의 표준어 사정 원칙 1장 2항을 보면 외래어는 따로 사정하기로 되어 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따로 사정한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언어 사용자들은 국립국어원에서 출간한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사전)을 참조할 수밖에 없다. 일단, 표준사전에 등재된 단어라면 ‘외국어, 준외래어, 외래어’ 가운데, 외래어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데 표준사전에는 ‘로보트’를 ‘→⁷⁾ 로봇’으로 기술하고 있는바

7) 《표준국어대사전》 2008년도 개정판부터 그 전에 쓰던 비표준어는 ‘~의 잘못’이라는 기술을 피하고 대신 화살표(→)를 사용하고 있다(최혜원 2011:80). 비표준어가 잘못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에서는 벗어났으나 여전히 화살표는 그 표제어가 비표준어임을 분명히 나타낸다.

‘로보트’는 비표준어이고 ‘로봇’이 표준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표준사전에 올라 있는 외래어 가운데 표제어의 뜻풀이 부분에 ‘→’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것은 모두 표준 외래어⁹⁾로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연구를 봐도, 이은경(2015:406)에 “표준사전에 실린 외래어는 모두 표준 외래어로 보아야 한다(차재은, 2007:370; 각주 13).”를 인용하면서 그 의견에 동의한다고 하였고, 조민아·홍종선(2015:33)에서도 “외래어와 외국어의 기준은 《표준국어대사전》의 등재 여부로 판별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론과 다르다. 표준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화살표가 아닌 멸절된 뜻풀이가 있는 단어들 가운데, ‘다라이’¹⁰⁾, ‘빠꾸’¹¹⁾ 등은 ‘버스, 택시, 라디오’와 동급의 표준 외래어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¹²⁾. 표준사전에서는 ‘우동→가락국수, 벤토→도시락, 빠다→버터, 쓰리→소매치기, 뽀스→팬티, 쓰메키리→손톱깍이, 사시미→생선회’로 되어 있으나, ‘다라이, 빠꾸’는 뜻풀이와 함께 순화어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우동’은 표준 외래어가 아니고 ‘빠꾸’는 표준 외래어라는 뜻인데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표준 외래어라는 개념이다. 표준어에 대한 대칭적인 개념으로 방언을 들 수 있는데, 외래어에는 표준어와 방언의 대립을 생각하기 힘들며 그러므로 표준 외래어라고 해서 방언 외래어¹³⁾가 따로 있다는 뜻은 아니다.

8) 위에 예를 든 ‘더우기’도 ‘→더욱이’로 되어 있고 표준어는 ‘더욱이’로 인정된다.

9) 표준 외래어가 모두 표준사전에 등재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사전에 위의 조건에 맞는 것은 표준 외래어로 인정해야 한다.

10) ‘금속이나 경질 비닐 따위로 만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둥글넓적한 그릇’이 표준사전에서의 뜻풀이이다.

11)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1) 차량 같은 것을 뒤로 물러가게 함 2) 물건을 받지 않고 되돌려 보냄.

12) 박동근(2016:93)에는 “뜻풀이에 잘못이나 비표준어라는 정보가 없으나 모두 표준어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고 있다.

13) 방언에서 자생적인 외래어가 있거나 어떤 지역에만 특이하게 유입되어 저장되어 있는 외래어 혹은 어떤 방언의 영향으로 어형, 즉 발음이 특이하게 변형된 외래어가 있다면 방언

3.3. 외래어의 남용

외래어의 남용에 이르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버스, 택시, 컴퓨터, 인터넷’ 같은 외래어는 아무리 많이 여러 번 사용해도 적절한 경우라면 남용이 아니다. 적절하지 않게 마구 사용하는 남용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막론하고 용납되지 않는데 굳이 그동안 외래어의 남용만 문제가 된 것은 준외래어 혹은 외국어의 적절치 않은 사용을 외래어의 남용이라 취급했기 때문이다. 외래어와 외국어의 구분이 올바르게 되지만 한다면 외래어는 오히려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어려운 한자어도 굳이 배우고, 한쪽 귀퉁이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는 고유어도 굳이 찾아내서 사용을 권장하는 마당에 외래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외래어로 인정된 어휘가 어려워져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외래어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휘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즉, 남용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더 가르치고 더 배워야 한다.

그러나 공공을 대상으로 너무 어려운 외래어를 마구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너무 어려운 외래어라 한 것은 일반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전문 용어로서의 외래어(이하 ‘외래어 전문 용어’)를 뜻한다. 예를 들어, 의사들끼리의 의사소통 장면이라면 외래어 전문 용어를 사용하든 외국어로 대화를 하든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그런 지식을 지니지 못한 환자 혹은 대중들을 향해서는 외래어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역시 외래어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 용어의 문제이다. ‘캔서’는 외래어이니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악성종양’은 외래어가 아니므로 사용해도 좋은 것이 아니다. 둘 다 대중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암’으로 순화¹⁴⁾해서 전달해야 한다.

외래어라 이름 붙일 수 있다.

14) 김수업(2007:101)에서는 토박이말로 전문 용어를 가다듬고 길들이기를 강조했으나 토박이말, 즉 고유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알려진 단어라면 한자어라도 동원해서 전문 용어의 순화로 사용해야 한다. 표준사전에 제시된 순화어들이 모두 토박이말만은 아니다.

3.4. 외국어의 오용과 남용

외국어의 오용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 외국어를 제대로 하든 제멋대로 오용을 하든 그것은 한국어와 전혀 상관없다. 그런데 남용 문제와 엮물려서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다면 외국어는 남용은커녕 한 마디도 용납될 수 없다. 왜냐하면 대중 가운데는 그 외국어를 모르는 다수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연설 안에 몽고어 혹은 모잠비크어가 함부로 마구 섞여 있다고 생각해 보라. 단 한 마디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될 것이다. 반면 개인적인 대화나 편지 등의 글에서는 둘 사이의 관계에 맞춰 한국어가 아닌 어떤 언어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든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국어가 능숙한 미국 친구를 만나면 중국어로 얘기해도 괜찮고 영어로 얘기해도 된다. 그때에도 한국어로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다. 심지어 대학 안에서는 영어 수업을 권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외국어의 남용을 부추기는 한 가지 중요하고 큰 문제가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몇 번만 두드리면 일반 언어 사용자들도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국립국어원 누리집¹⁵⁾의 외래어 표기법의 용례 찾기 및 규정 보기에서 나오는 용례 중에는 완전히 외국어인 단어들이 그렇지 않은 단어들보다 훨씬 더 많다. 이는 물론 외래어 표기법의 대상이 ‘현재 우리말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어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어 인명, 지명, 그리고 앞으로 우리말에 들어올 수 있는’(신형옥, 1996:142) 예비 외래어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으나, 분명히 국립국어원에서 내놓은 외래어 표기법 안에 있는 단어들이므로 마음껏 외래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2001년에 국립국어원에서 출간된 《언론 외래어 순화 자료집》(담당 연구원: 최용기) 안에는 외래어와 외국어가 마구 섞여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외래어로 용인한다면 결국, 외국어를 외래어로 사용하도록 조장하

15) 국립국어원 누리집(홈페이지) 주소는 ‘www.korean.go.kr’이다.

는 결과가 된다. 국립국어원에서 외래어와 외국어의 구분이 확실해야 외국어 사용을 자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외래어와 외국어가 분명히 구분됐을 때, 외래어가 적절한 경우에 사용되었는데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하는 이의 잘못이 아니다. 말 듣는 이의 배움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어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에 실패한 경우라면 완전히 말하는 이의 잘못이다.

4. 외래어 오용 방지를 위한 세 가지 방안

4.1. 복수 표준어 확장

2011년 8월 31일 ‘짜장면’이 ‘자장면’과 함께 복수 표준어로 확정¹⁶⁾되었다. 그 전에는 ‘자장면’만 표준어였기 때문에 ‘짜장면’이라고 말을 하든 표기를 하든 모두 외래어의 오용으로 취급되었으나 그 조치 이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짜장면’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짜장면만 그런 것이 아니다. ‘카페’의 오용인 /까페/가 92%¹⁷⁾(차재은, 2007:384), ‘사인, 샌드위치, 선글라스’의 어두음 ‘ㅅ’의 경음 발음이 90% 이상(최혜원, 2002:18-19), ‘나레이션(내레이션), 스태프(스태프), 캐비넷(캐비닛)(이상, 팔호 안에 있는 것이 올바른 표기)’의 발음이 90% 이상(최혜원, 2001:46) 실현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면 역시 오용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90% 이상 실현되는 오용 표기뿐 아니라, ‘로봇-로보트¹⁸⁾’도 복수 표준어로 허용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오해의 여지가 생기는

16) 39개의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안건이 국어심의회에서 통과되었고 그 안에 짜장면이 들어 있다.

17) 차재은(2007:384)에는 82%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92%의 오타라는 것을 한명숙(2016:232) 각주 25에서 밝히고 있다.

18) 둘 다 약 50%씩 실현된다고 생각하자.

가? 의사소통에 문제만 생기지 않는다면 길지 않은 기간 여러 경로로 들어오는 외래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로보트가-로봇이, 로보트를-로봇을, 로보트에게-로봇에게’ 등을 모두 허용한다면, ‘로보트척척보일러’를 ‘로봇척척보일러’로 고치라는 시정 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 ‘로봇학, 로봇 지능’ 등과 같은 외래어 전문 용어는 고유의 사용 영역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반드시 표기를 일치해야 한다면 그 안에서 내규를 정하면 된다. 굳이 전 국민 모두가 ‘로보트’가 아닌 ‘로봇’이 올바른 표기임을 알고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복수 표준어를 인정한다는 것은 규정의 존재 가치를 희미하게 하는 처사이다. 규정은 규정대로 정해 놓고 복수 표준어라는 예외는 그것대로 인정한다면 자연스럽게 규정의 개정 및 보완보다는 일단, 복수 표준어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수 표준어의 숫자가 마구 늘어난다면 물론 외래어의 오용이라는 면에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으나,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성문화된 규정의 권위는 사정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또, 실태 조사 후 과연 몇 %의 사용 빈도부터 복수 표준어로 인정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복수 표준어 기준 설정¹⁹⁾의 가장 큰 어려움이다. 예를 들어 90%의 사용 빈도부터 기존의 표준어와 함께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다고 의견이 모아진다고 하자. 그러나 이렇게 확실적인 기준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팸플릿(표준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외래어이기 때문에 발음이 지정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ㅅ’의 어말중성 발음이 적용된 [팸플린]을 표준 발음이라 하자.)’의 경우, 실태 조사에²⁰⁾ 의하면 365명의 응답자 중 /팸플렐/이 199명(54.5%), 표준 발음이 29명(7.9%)이었고 나머지 37.6%는 무려 9개 발음이 조금씩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54.5%의

19) 최혜원(2011:91)에서는 사전에서의 복수 표준어를 반영하기 위하여 “어문 규정의 개정을 통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룬 표기형을 사전에 올리는 방법을 심분 활용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거기서 사회적 합의가 어떤 경로를 거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20) 최혜원(2001:55)에 나온 ‘팸플릿’의 발음 실태 조사 결과이다.

/팜플렌/과 현행 표준 표기 발음 7.9%만으로 사용 빈도 비율을 보면 /팜플렌/이 87.3%를 차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까페/(92%)와 별 차이가 없다. 이처럼, 복수 표준어를 확장하려면 정밀한 실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후 몇 퍼센트의 사용 빈도를 현행 표준어와 함께 복수 표준어로 결정할 기준으로 세울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4.2. 외래어 표기법의 폐지

외래어의 오용을 막기 위한 가장 급진적이고 완벽한 방안은 전문가들이 만든 성문화된 외래어 표기법을 폐지하는 것이다. ‘언어 정책가의 인위적인 조여와는 상관없이 물결의 흐름과 같이 대중의 언어생활은 흘러가는 것’(강신항, 2004:57)이므로 성문화된 규범을 폐지하면 더 이상 규정에 의한 표준 외래어는 없어질 테고 자연스럽게 ‘빠스’라고 말을 하든 글을 쓰는 적절하게 의사소통이 된다면 외래어의 오용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4.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래어의 복수 표준어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외래어 표기법이 권위를 잃어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규정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르면 된다. 그러나 ‘[콩트]가 원음에 가까운지 [퐁트]가 원음에 가까운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콩트’를 선택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김슬옹, 2008:74-75) 확실히 적으로 편하게 하고자 ‘콩트’로 했다면 게다가 그것이 원음과 상당히 차이가 있으며 더 더해서 누가 봐도(들어도?) 원음에 가까운 ‘퐁트’라는 표기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 규정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또 규정에 의해 표기한 ‘사인(sign)’과 ‘시너(thinner)’의 규정에 의한 발음인 ‘[사인]은 사인(死因)으로, [시너]는 신어(新語)로 영락없이 오해하게 된다’(배주채, 2015:57)면 그리고 동시에 그 표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음이

원음과 너무 멀다면 그 규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외래어 표기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언어의 기본적인 질서와 관이 주도한 획일적인 언어 규범의 충돌이다. 획일적인 규정에 의해서 언어 현실이 완전히 부정되어 버리는 예는 ‘불도그’에서 찾을 수 있다. ‘dog’의 표준 외래어는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는다.”²¹⁾라는 규정에 의해서 ‘도그’가 되고 같은 규정으로 ‘bulldog’은/는 ‘불도그’가 된 것인데, 최혜원(2001:49)의 일반인 발음 실태 조사에 의하면, ‘bulldog’의 발음으로 14개의 서로 다른 응답²²⁾이 나왔으나 정작 ‘불도그’라는 발음은 전혀 없었다. 결국, ‘불도그’라는 표기는 현실을 외면한 채 규정만을 쫓은 결과임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런 제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독’이라는 동일한 응답이 359명 가운데 296명(82.5%)이 나왔으며 심지어 20대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분포²³⁾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4.1.에서 언급한 90% 이상의 분포를 보인 틀린 발음²⁴⁾(/까페/, /짜인/, /썸드위치/, /썸글라스/, /나레이션/, /스텝/, /캐비넨/)을 보아도 언중들의 “외래어 발음이 어느 정도 하나의 발음으로 정형화(고정화)되어 가고 있다.”(한명숙, 2016:233)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이니 언어의 규범을 언어 사용자에게 돌려준다면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정착될 것이다.

외래어 표기법을 폐기하기에는 현재 있는 표준사전의 내용이 불충분하니 시기상조라고 하는 주장은 외래어 표기법의 폐지에 반대를 하는 주장이 아니므로 시간이 흘러 제대로 된 사전이 구비된다면 사라질 것이다.

21) 외래어 표기법 표기 세칙 영어 제2항 유성 파열음([b], [d], [g])

22) 불독, 불덕, 불둑, 불도고, 불루둑, 부르둑, 부르덕, 부루둑, 부르도고, 부르도크, 부르도꼬, 부루도고, 부루도꼬, 부루도꾸

23) ‘20대 71명, 30대 77명, 40대 63명, 50대 58명, 60대 27명’으로서 다른 응답의 어떤 세대도 ‘불독’보다 많은 응답은 없다.

24) 외래어 표기법에 의한 표기와 달리 발음한 것을 틀린 발음이라 하였다.

4.3. 외래어 표기법의 규정 완화

외래어 표기법의 완전한 폐기가 현재 여건상 곤란하다면 그 규정을 어느 정도 완화하여 외래어의 오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있다. 복수 표준어를 허용한다는 것은 단어 차원에서 외래어의 오용을 줄이는 것이고, 규정을 완화하는 방지 방안은 어떤 범주 안에 있는 해당 단어들의 오용을 모두 방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두 경음 표기를 허용하는 것이다. ‘짜장면’도 허용한 마당에 ‘콩트, 쉐터, 폴키퍼, 땀, 썬드위치’ 등을 허용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단어 끝음절에 ‘ㄱ’과 ‘ㄴ’을 모두 허용하면 ‘센터/센타, 디지털/디지탈, 센티멘털/센티멘탈, 뮤지컬/뮤지칼, 웨이터/웨이타’의 갈등이 해소된다. ‘ㄱ’과 ‘ㄴ’의 규정을 완화하면 ‘설루션/솔루션, 세컨드/세콘드, 컴퓨터/콤퓨터’에서 비롯되는 오용을 방지할 수 있다. 또 ‘메시지/메세지, 소시지/소세지’의 오용 분쟁도 ‘ㄷ’과 ‘ㄱ’의 규정 완화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의 완화는 ‘기타(guitar)’를 ‘기터’로 써도 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즉, 규정의 완화로 인해 잘못된 예가 과잉 생성될 수 있다는 염려이다. 그러나 언어는 그렇게 이론적인 것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규정이 완화된다고 해도 일상생활에서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억지 단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설루션(solution)-솔루션’을 보자. 현행 규정으로는 ‘설루션’은 올바른 표기이고 ‘솔루션’은 틀린 표기이다. 그런데 현재 표기 실태를 보면 ‘솔루션’이 압도적이다. 이런 추세라면 현재 표준 표기로 되어 있는 ‘설루션’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그러나 그 영향으로 ‘세콘드, 콤퓨터’가 세력을 얻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와 ‘컴퓨터’가 두루 쓰이는 것, ‘설루션, 세컨드’가 공존하는 것, 그리고 절대로 ‘기터’가 생성될 리 없다는 것은 모두 현실 언어이다. 즉, 엄격한 규정을 통해 언어생활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규정을 완화하여 오용이 줄어드는 언어생활로 유도하되 그 규정 안에서 외래어의 표기와 발음이 정리되는 과정은 일반 언어 사용자에게 맡기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계속 규정을 완화해 나가다 보면 결국 외래어 표기법에는 완화 규정만 가득 차게 될지도 모른다. 설사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해도 완화 규정이 많아질수록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규정 자체의 존재 가치가 상실될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외래어 표기법의 폐지와 뜻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새로운 사전을 통한 외래어의 규범화

외래어 표기법의 폐지는 사전을 통한 규범화라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어문 규정 없이 사전에 의존해 개별 어휘의 규범을 지켜가는 언어생활이 일반화되어 있다. (중략) 일반 언증은 어휘의 규범을 공통의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 의한 학교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을 통해 확인하곤 한다.”(조태린, 2016:80)라는 내용은 외래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을 참조하기보다는 표준사전의 표제어 등재 여부, 표기, 발음 등을 확인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표준사전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표준사전이 필요한 것이다. 특별히 외래어만을 위해서라면 국립국어원에서 ‘외래어 사전’을 따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5.1. 현실음을 반영한 표제어의 표기

외래어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사전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역시 현실음을 반영한 표제어의 표기이다. 박동근(2014)에서는 웹 언어 자원을 활용하여 현재의 외래어 표기법이 현실 발음을 고려한 표기 규정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현재 외래어 표기법의 근간이 되고 있는 ‘1음운 1기호 원칙, 어말의 7종성 표기 원칙, 파열음의 된소리 표기 금지 원칙’들이 표기

실태에서는 지켜지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웹 언어 자원을 활용한 실태 조사²⁵⁾를 통하여 2004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표기 실태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개인이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면 국립국어원이라는 기관에서는 훨씬 광범위하고 다양한 조사를 할 수 있을 테고 그 결과²⁶⁾를 토대로 그에 걸맞은 현실적인 표제어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케익→케이크’에서 ‘케이크(38.29%), 케익(47.63%), 케익(14.08%) 2013년 표기 실태’²⁷⁾와 같은 사전에 바라는 것이고 이렇듯 실제 언어 사용자들의 실태를 반영한다면, 현행 ‘개그(gag), 도그(dog), 불도그(bulldog)’와 같은 획일적인 규범에서 ‘개그, 독/도그(혹은 도꾸), 불독’과 같은 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규범²⁸⁾이 형성될 것이고, ‘팬티를 팬치로 인정해야 한다는 비아냥(김상준, 1996:68) 때문에 ‘센티’를 ‘센치’로 못 쓰는 과오도 없어질 것이다. 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지면 쓰기 생활이 정말 엉망진창이 될까? ‘짜장면’도 쓸 수 있으니 ‘돈까스, 뽕스, 까스’로 표기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많은 대중이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 사전을 통해 확인되었으니 그냥 그렇게 쓰면 된다.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버쓰, 뽕쓰’로 표기를 하면 어떨까?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규정이 없어졌으니 표준어가 아니라는 손가락질을 당할 염려는 없다. 그러나 언어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무도 강제하지 않았지만 “‘버쓰’ 또는 ‘뽕쓰’의 표기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너무 낮아 제시하지 않았다.”(박동근, 2014:81 각주 17)라고 할 만큼

25) 이기황(2006)에서 더 먼저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단어의 사용 빈도 조사를 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기러기 아빠, 오노스럽다, 꽃히다’의 용례를 분석하였는데 그 분석 방법으로도 외래어의 용법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26) 박동근(2014:89) “적어도 국어사전에 수록된 외래어에 대해서는 언중의 표기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며 상당수는 이에 따른 재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하고 있다.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는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벅찬 사업이므로 국립국어원에서 해야 할 것이다.

27) 표기 및 괄호 안의 수치는 모두 박동근(2014:78)에서 취하였다.

28) 신지영(2011:126)에서는 “‘민’의 언어 현실이 ‘관’에 의해 정리되어 ‘민’이 따를 수 있는 어문 규범을 ‘관’이 정립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일반 표기에서 도태되는 것이다.

현재의 표기 실태 조사를 보면, ‘버스’가 ‘빠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표기 빈도²⁹⁾를 보인다. 이는 현실적으로 /빠스/라 발음을 한다고 해도 현재의 표준 표기인 ‘버스’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고 ‘빠스’라는 표기는 너무나 껍박³⁰⁾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에 외래어 표기법이 폐지된 이후에 같은 실태 조사를 한다면 어떤 변화를 보일지는 예측할 수 없다.

‘커피쥬, 슈퍼마켓, 케익, 테잎’³¹⁾ 등의 표기는 /커피쇼비/, /슈퍼마켓시/, /케이기/, /테이비/와 같은 주격 조사 연결형의 발음이 지배적이라면 또 단독형의 발음 역시 /커피숍/, /슈퍼마켓/, /케이/, /테입/이라면 교육을 통해 점차 ‘ㅂ, ㅅ, ㄱ’ 받침 표기를 권유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단독형으로 ‘커피쥬’를 쓰고 싶다고 해도 /커피쇼비/, /커피쇼블/에서는 ‘커피쥬’를 끄집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5.2. 표제어의 발음 표기

표제어의 표기 문제와 함께 발음 문제도 새로운 사전에서는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일단, 외래어 표기의 현실화는 어느 정도 발음의 현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내가 [짜장면]이라 발음하고 ‘짜장면’이라 쓰면 된다는 것은 사전에 있는 ‘짜장면’을 보고 누구나 /짜장면/이라고 하면 된다는 것이다. ‘빠스, 까스, 땀, 폰트’ 모두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모든 발음 문제가 이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사전에 외래어 등재어 및 외래어가 포함된 등재어에 발음란³²⁾을 두어 고유어나 한자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외래어 표기법의 폐지로 인하여 ‘로보트’가 등재될 경우에는 표기와 발음이

29) 버스 99.82%, 빠스 0.18%

30) ‘너는 다 큰 놈이 우리말도 제대로 못 쓰느냐’는 질타는 불을 보듯 환하다.

31) 박동근(2014) 77쪽부터 79쪽에 걸쳐 나오는 표기의 예들이다.

32) 현재 표준사전에는 외래어가 조금이라도 비치는 모든 등재어에는 발음 정보가 전혀 없다.

일치³³⁾하므로 특별한 발음 정보가 필요 없으나 ‘로봇’에는 ‘읏’과 마찬가지로 ‘로봇[로본], 로봇만[로본만]³⁴⁾이라는 발음 정보를 주어야 한다.

이번에는 외래어와 한자어 혹은 외래어와 고유어로 이루어진 복합어에 표기와 발음이 얹혀 있는 문제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 ‘로봇학(robot學)’은 발음이 분명히 [로보탁]이다. 그런데 발음이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외래어가 섞였다고 해서 외래어 표기법의 폐기를 근거로 ‘로보탁’이라고 표기를 할 수는 없다. 형태소별 표기 원칙을 지키자면 ‘學’은 항상 ‘학’으로 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로봇학’의 발음란에는 [로보탁]이 표시가 되어야 하고 ‘로봇학만[로보탁만]이라는 발음 정보도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외래어와 고유어로 이루어진 ‘히스테릭하다’를 ‘히스테리카다’로 표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혹시 먼 훗날, ‘히스테릭하다’에서 ‘하다’ 부분의 어원적인 의미를 일반 언어 사용자들이 상실하게 된다면 그때는 ‘히스테리카다’로 표기를 해도 이상할 일은 없다. 그러나 현재라면 ‘히스테릭하다’로 표기하고 발음란에는 [히스테리카다]가 들어가 있어야³⁵⁾ 한다. ‘북유럽’을 보자. 한자어와 외래어의 복합어로서 발음상 ‘ㄴ 첨가³⁶⁾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표기는 ‘북유럽’이 될 테고 발음란에는 [붕뉴럽/부규럽]으로 표시해 주어야³⁷⁾ 한다. 이처럼 외래어 표기법의 폐기는 현재의 표준사전과는 다른 ‘훨씬 더 많은 언중들의 외래어 사용 실태를 있는 대로 음성학적으로 관찰하여 정리’(유만근, 1996:115)한 정보를 지닌 사전³⁸⁾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33) 여기서 발음이 일치한다는 것은 음소 차원에서의 일치를 의미한다. 음성 차원에서는 표기와 발음이 다르나, 국어사전에서는 그렇게까지 발음을 세밀하게 밝혀 줄 필요는 없다.

34) 표준사전에서는 ‘ㅅ’ 발음 명사에 단독형과 조사 ‘만’ 결합형의 발음을 제시한다.

35) ‘로맨틱하다, 에로틱하다’도 같은 경우이다.

36) ‘ㄴ 첨가’는 발화자에 따라 규칙의 적용이 다르게 나타나는 수의적 규칙이다.

37) ‘남유럽, 동유럽’도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할 단어들이다.

38) 변정수(2011:101)에서는 어문 규범으로서의 ‘표준어 규정’ 자체를 폐기하자는 주장과 함께 표준어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 모아 놓는 것으로 족하며 특정한 어휘가 표준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개별적인 사전 편찬자들이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6. 두 가지 남는 오용

6.1. 발화 즉 발음 측면에서의 오용

외래어를 한국어로 발음하지 않고 외국어로 발음하는 것은 대단한 오용이고 오류이다. 첫 번째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f], [v]를 원음 그대로 발음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한글로는 절대로 [f], [v]를 정확히 표기해 낼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나마 가까운 ‘ㅍ, ㅂ’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다. 가끔 일반 언어 사용자 가운데에는 ‘핀란드’보다 ‘흰란드’가, ‘에펠탑’보다는 ‘에헬탑’이 원음에 더 가까운 표기라는 주장을 하는데, 원어민 화자에게는 모두 원음과 먼 발음이다. 두 번째 예는 ‘오렌지’이다. 이것을 [어원지]라고 마치 영어에 가깝게 하는 것은 올바른 한국어 발음이 아니다. ‘파리’를 [빠히]로 마치 원어를 발음하듯이 하는 것도 올바른 한국어 발음이 아니며 그것을 영어식대로 발음하자면 [페리스]가 되어야 하는데, 모두 올바른 발음이 아니다. 외래어는 한국어이므로 한국어 표기에 따른 발음을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외래어 발화의 오용이다.

6.2. 쓰기 즉 표기 측면에서의 오용

외래어는 한국어이므로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 외래어를 원어로 표기하는 것은 대단한 오용이고 오류이다. 다음의 예들은 모두 외래어는 아니지만 영어, 프랑스,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를 위한 로마자 표기와 일본어를 위한 일본어 글자 표기의 예들이다.

영어: usb, mp3, coffee, salad, TV

불어: café, jardin, salade, école

독일어: Bier, Weizen

이탈리아어: pizzeria, mare

스페인어: casa, vino, tapas

일본어: おでん, かけうどん, いざかや/居酒屋

필요한 경우, 한글 표기를 한 후 괄호 안에 원어를 보충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으나, 한글로 표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미 한국어임을 포기했다는 것이고 아무리 널리 알려진 단어들이라고 해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한국어 일반 사용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실상 오용이라기보다는 한국어의 테두리 안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표기이나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횡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각한 문제는 신문, 방송 등의 언론과 심지어 공공 기관에서 외국어 글자를 민낯으로 내보인다는 것이다.

신문, 방송: DJ, YS, JP, TK, KBS, MBC, SBS, JTBC, YTN, TV,
PD, SPORTS, SNS

공공 기관: KT&G, KT, KDI, HOMETEX

대부분 약자이긴 하지만 일반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언론 및 공공 기관이라면 이런 표기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그리고 비록 브랜드라는 하지만 전문가가 만든 'I·SEOUL·U'는 그 가치는 둘째 치고 표기만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영어를 모르는 사람³⁹⁾들은 '아이 서울 유'로 읽지도 못하고 편지에도 쓸 수 없다. 심지어 서울시 누리집에는 '아이 서울 유'라는 한글 표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심각한 오용이고 오류이며 횡포다.

39) 한글을 모르는 노인들에게는 지금이라도 한글을 교육해야 한다. 그러나 영어 알파벳을 지금 가르칠 수는 없다. 영어가 끝나면 일본어, 중국어 순으로 가르칠 것인가?

7. 남은 문제

7.1. 표준사전의 외래어 등재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 언어 사용자들은 표준사전에 의지해서 어떤 단어가 외래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표준사전에는 ‘버스 01’과 ‘버스 02’가 있다. 그중에 버스 02는 우리가 흔히 아는 교통수단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외래어이다. 그런데 버스 01은 해양 부분의 전문 용어로서 ‘선박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선박이나 육지와의 사이에 남겨 두어야 할 공간. 또는 항만에서 배를 매어 두는 위치’이다. 물론 버스 01이 외래어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 용어 분야가 아닌 일반 언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두 개의 버스가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전의 표제어를 결정지을 때는 아무래도 사용 빈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버스 01은 아무래도 버스 02와 어형이 같기 때문에 등재된 것이 아닌가 싶다. 표준사전에 외래어로 등재되는 것은 일반 언어 사용자에게는 외래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다. 어떤 방식으로 외래어 표제어를 골라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찰이 다음 연구에 이어져야 한다.

7.2. 이른바 콩글리시

콩글리시는 사전의 정의로는 ‘한국식으로 잘못 발음하거나 비문법적으로 사용하는 영어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그 정의 안에는 영어와 다른 뜻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영어이지만 영어 단어의 목록에는 없는 단어들을 모두 지칭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커닝, 핸들’은 영어에도 있는 단어지만 ‘부정행위, 자동차 운전대’라는 뜻은 한국어에만 있다. ‘핸드폰, 모닝글, 아이쇼핑, 포켓볼, 골인’ 등은 비록 영어로 구성된 단어들이지만 영어에는 없는 한국식 영어 단어이고 그 독특한 의미 역시 한국어에서만

통한다. 최근, 주변에서 또는 방송에서 흔히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모태솔로’이다. 뜻은 ‘태어난 이후 한 번도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남자 또는 여자’이다. 홀로라는 의미로 ‘솔로’가 붙은 것 같지만 그것이 영어에서 들어온 외래어⁴⁰⁾라고 본다면, 실제 영어로는 ‘싱글’이 맞다. 더 이상 퍼지기 전에 그나마 영어에 가까운 ‘모태싱글’로 바꾸기 운동을 하여야 하는가? 그런데 모태싱글이 아닌 모태솔로가 자리 잡게 된 까닭⁴¹⁾은 무엇일까? 발음상 차이 때문일까? 싱글보다는 솔로가 더 흔하고 널리 알려진 단어이기 때문일까? 이런 여러 가지 콩글리시에 관련된 내용들도 이 글에서는 전혀 다루지 못하였다. 콩글리시에는 어떤 종류가 있어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표준사전에 등재하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8. 결론

외래어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외국어와의 구분에서 시작된다. 외래어의 오용, 외래어의 순화, 외래어의 음운론적 특성, 외래어의 품사 등이 모두 그러하다. 그러나 자생적인 고유어나 오랜 세월 동안 익어온 한자어와는 달리, 외래어는 어느 순간에 우리 주변에 자리 잡아 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다. 언어 현실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외래어와 외국어의 구분, 구분된 이후 목록

40) ‘솔로’의 원어인 이탈리아어인 것은 틀림없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41) 김해연(2007:48)에는 “물래 camera’와 같은 한국식 조어에도 여러 의미 성분 중에서 한국인에게 현저하게 인식되는 의미 성분을 반영하여 어휘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저하게 인식되는 의미 성분’에 대한 연구로 ‘콩글리시’ 같은 어휘가 어떻게 조성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안에 들게 되는 외래어의 표기 및 발음을 결정지어야 한다는 뜻이다.

획일적이고 편의적인 규정에 의한 표준 외래어는 실제 언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언어 현실은 복잡다단하기만 한데 규정으로는 두어 줄로 요약해 두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급진적인 사고의 전환에 의한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규정의 폐기 및 외래어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은 새로운 외래어 사전의 구축에 대한 더 많은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

참고 문헌

- 강신항(2004), “외래어가 국어에 끼친 공과”, 《새국어생활》 14-2, 국립국어원, 23-58쪽.
- 김민수(1973), 《국어정책론》, 고려대 출판부.
- 김상준(1996), “외래어의 발음 문제”, 《새국어생활》 6-4, 국립국어원.
- 김수업(2007), “전문 용어의 순화 방안”, 《새국어생활》 17-1, 국립국어원, 89-101쪽.
- 김슬옹(2008), “외래어표기법의 된소리 표기 허용에 대한 맥락 잡기”, 《새국어생활》 18-4, 국립국어원, 71-86쪽.
- 김하수(1999),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점”, 《배달말》 25, 배달말학회, 247-259쪽.
- 김해연(2007), “콩글리시 어휘의 유형과 형성의 인지적 동기”, 《담화와 인지》 14-3, 담화인지언어학회, 25-52쪽.
- 박동근(2014), “외래어 표기 선호도의 변화 양상 연구 - 웹 언어 자원을 활용하여-”, 《언어와 문화》 10-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65-93쪽.
- _____(2016), “표준 외래어 정립을 위한 정책 분석과 대안”, 《한말연구》 40-2, 한말연구학회, 87-112쪽.
- 배주채(2015), “국어 발음 정책과 발음 교육의 방향”, 《새국어생활》 25-1, 국립국어원, 45-62쪽.
- 변정수(2011),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새국어생활》 21-4, 국립국어원, 99-102쪽.
- 송철의(1997), “외래어의 순화방안과 수용대책”, 《외래어 사용 실태와 국민 언어 순화 방안》, 국어학회, 1-15쪽.
- 신지영(2011), “어문 규정 폐지를 통한 어문 규범의 현실화 정책을 펼 때”, 《새국어생활》 21-4, 국립국어원, 121-126쪽.
- 신형욱(1996), “외래어 표기법과 나의 의견”, 《새국어생활》 6-4, 국립국어원, 137-160쪽.
- 俞萬根(1996), “外國語를 歸化시켜 국어다운 外來語로! - 現地原音式/音素 對應式은 言語學的 沒常識-”, 《새국어생활》 6-4, 국립국어원, 105-121쪽.
- 이기황(2006), “신어의 정착과 낱말 용법의 변화”, 《새국어생활》 16-4, 국립국어원, 47-62쪽.

- 이은경(2015), “외래어의 표준 발음과 어문 규범”, 《비교문화연구》 38,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405-431쪽.
- 임동훈(1996),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와 실제”, 《새국어생활》 6-4, 국립국어원, 41-61쪽.
- 임흥빈(1996), “외래어 표기법의 역사”, 《새국어생활》 6-4, 국립국어원, 3-40쪽.
- 정희원(2004),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 《새국어생활》 14-2, 국립국어원, 5-22쪽.
- 조민아·홍종선(2015), “방송 언어의 외래어·외국어 사용 실태와 개선 방안 - 주말 드라마를 중심으로 -”, 《한어문교육》 34,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9-52쪽.
- 조태린(2016), “성문화된 규정 중심의 표준어 정책 비판에 대한 오해와 재론”, 《국어학》 79, 국어학회, 67-104쪽.
- 차재은(2007), “외래어의 표준 발음 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어학》 35, 363-390쪽.
- 최용기(2001), 《언론 외래어 순화 자료집》, 국립국어원.
- 최혜원(2001), 《외래어 발음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_____(2002), 《표준 발음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_____(2011), “표준어 정책의 새로운 방향 -복수 표준어 발표의 경과와 의의-”, 《새국어생활》 21-4, 국립국어원, 77-94쪽.
- 한명숙(2016), “대학생들의 외래어 표기와 발음의 상관성 연구”, 《한말연구》 41, 한말연구학회, 205-240쪽.

북한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소통과 통합의 과제를 중심으로

강진웅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교수

1. 들어가며

가족을 북녘에 남겨 둔 채 한국 땅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수는 이제 3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2천만 북한 주민들의 인구에 비하면 턱 없이 적은 수치이지만 분단의 현실에서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비중과 의의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이해함으로써 현지 북한인들의 삶 또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통일 시대의 미래 역시 점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적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 중 언어 문제는 이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의 언어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남북한 주민들 상호 간의 언어생활과 언어 의식 등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수행한 <2016년 남북 언어 의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언어 통합의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언어생활과 언어 의식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문제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016년 남북 언어 의식 조사>는 2016년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에 걸쳐 일반인 2,021명, 접촉국민 200명, 북한이탈주민 305명,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남북한의 언어 현실에 대한 인식, 남북한 주민들의 소통 문제, 남북한 언어 통합과 언어 정책 방향 등에 관한 설문 및 면접 조사를 수행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남북한 주민 간의 상호 언어 의식과 소통의 문제를 검토하고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의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사용하는 북한어에 대한 각 주체별 인식 현황과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언어 통합의 관점에서 북한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가를 성찰해 보고자 한다.

2. 북한어에 대한 인식과 편견

그동안 소수 귀순자들의 증언이나 영화, 드라마에 비친 북한어에 대한 인식은 적성 국가의 언어로서 이념에 덧씌워진 부정적인 정치적 산물이었다. 그러나 탈냉전과 함께 북한의 식량난을 거치면서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북한어에 대한 인식 역시 변화했다. 과거에는 반공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우스꽝스럽게 묘사되었던 북한어가 이제 우리의 친숙한 이웃의 언어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 역시 한국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현실적 여건과 함께 언어생활을 통한 강한 동화 및 실천 의지를 갖고 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할 때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묻은 결과, ‘중요하다(매우 76.0%, 약간 22.0%)’라는 응답이 98.0%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 사이의 교류에서 차지하는 언어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표

1]에서 전문가 10명 중 5명은 북한어를 ‘북한 내의 규범어(문화어)’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표 1 한국어 틀 안에서 북한어를 바라보는 시각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북한 내의 규범어(문화어)로 본다	‘남한어’에 대비되는 ‘북한어’라는 개념으로 본다	방언의 일종으로 본다	이질화의 심화로 ‘남한어’와 전혀 다른 외국어가 되었다고 본다	계
전문가	50	48.0	30.0	18.0	4.0	100.0

문] 한국어의 틀 안에서 ‘북한 말’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1]에서 ‘북한 내의 규범어’로 보는 전문가의 비율은 48.0%였고 ‘남한어에 대비되는 북한어’로 보는 시각은 30.0%, ‘방언의 일종’으로 보는 시각은 18.0%, ‘외국어’로 본다는 시각은 4.0%였다. 상호 배타적이지 못한 설문항목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들은 표준어(남한) 대 문화어(북한)라는 규범어의 틀에서 북한어를 평가하고 있고 남한어에 대비되는 북한어 또는 지역 방언으로도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식은 북한어가 하나의 체제의 산물로서 규범어로 굳어진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질적인 체제 및 사회 문화의 반영으로서 남한어와 대비되는 북한어 혹은 방언의 일종으로도 평가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에서든 북한어가 우리말과는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일반 한국인들의 시각도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다. [표 2]에서 북한말이 우리말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냐 아니면 지역 방언 혹은 외국어처럼 다른 것이냐를 묻은 결과 일반인의 75.8%, 접촉국민의 64.5%는 북한어를 다른 지역의 방언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표 2 북한어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본질적으로 우리말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지역의 방언이라고 생각한다	영어나 일본어처럼 외국어라고 생각한다	계
일반인	2,021	20.7	75.8	3.5	100.0
접촉국민	200	32.5	64.5	3.0	100.0

문] 북한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주십시오.

일반인의 20.7%, 접촉국민의 32.5%는 북한 말이 우리말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나머지 다수는 ‘다른 지역의 방언’ 정도로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평가는 본질적으로 언어의 동질성에 대한 생각에서 우리말과 북한 말이 같지 않다는 다수 한국인들의 평가를 드러내 준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차이에 대한 평가가 해당 언어를 쓰는 사람에 대한 차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며 상당 부분 편견에 근거한 비언어적 차별로 인해 다시 그 언어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표 3 남한에서 북한 말씨 사용의 영향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계
북한이탈주민	305	14.1	55.7	7.2	6.6	16.4	100.0

문] 남한에서 북한 말씨를 쓰는 것이 귀하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에서 북한 말씨를 쓰는 것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의 응답이 69.8%였던 반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의 응답은 13.8%, ‘아무런 영향이 없다’의 응답은 16.4%였다. 기존의 언론 매체 분석이나 통계 결과를 반영하듯이 북한이탈주민들 상당수는 북한 말씨로 인한 차별을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의 40.7%는 말씨로 인해 차별이나 무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과 차별에 관한 경향은 우리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발견된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인의 53.2%, 접촉국민의 75.5%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차별과 무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북한이탈주민들이 말씨로 인해 차별이나 무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일반인	2,021	5.6	41.2	50.1	3.1	100.0
접촉국민	200	2.5	22.0	62.0	13.5	100.0

문]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언어적인 문제로 차별이나 무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접촉 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말씨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¹⁾ 전문가의 경우는 더욱 분명하다. 전문가 조사에서 북한 말씨를 쓰는 ‘부정적인 영향’은 98.0%에 달했다. 또한 북한 말씨를 사용하는 부정적 영향이 우리 사회의 다른 방언 사용의 영향보다 더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95.9%에 이른 것을 고려하면 유사한 지역 방언으로 범주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북한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 한국인들이 주로 방송 매체를 통해 북한어를 접하는 상황에서 방송 매체가 북한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1) [표 4]에서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서 일반인들의 응답률이 높은 것은 접촉국민에 비해 일반인들이 북한이탈주민들과 이들의 언어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끼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 편협성의 문제는 물론 북한이 탈주민 관련 언론 매체의 선정성이나 흥미 위주의 보도 경향은 여전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방송 매체에 나타나는 북한어에 대한 영향을 나타낸 결과이다.

표 5 방송에 나타나는 북한어가 남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생각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북한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한다	북한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이질감을 강화한다	북한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친숙함을 갖게 한다	북한 말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게 한다	북한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적대감을 갖게 한다	기타	계
일반인	2,021	48.2	23.9	15.4	5.7	4.6	2.2	100.0
접촉국민	200	37.0	14.5	32.5	13.0	0.5	2.5	100.0
북한이탈 주민	305	45.2	15.4	11.5	23.3	4.6	0.0	100.0

문] 방송에 나타나는 북한 말이 남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5]에서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북한어가 북한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호기심 및 친숙함을 갖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함과 동시에 이질감을 강화하고 북한 말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거나 적대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접촉국민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북한어 및 북한인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참조하면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체제에 대한 평가가 언어 의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 의식은 북한어에 대한 연상 이미지와 느낌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설문 결과에서 일반인의 30.1%는 북한어가 ‘강하거나 세다’고 응답했고 ‘낮설거나 이질감이 든다’ 17.9%, ‘딱딱하다’ 11.1%, ‘다른 지역의 방언 같다’ 7.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접촉국민의 경우 ‘강하거나 세다’ 43.9%, ‘다른 지역의 방언 같다’ 10.4%, ‘낮설거나 이질감이 든다’ 9.1%,

‘재미있거나 신기하다’ 7.9% 등의 순이었다. 두 주체 모두 북한어가 강하거나 세다는 것에 동의했고 낮설거나 이질감이 들며 다른 지역의 방언과 같다는 것에서도 평가를 공유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어에 대한 느낌에 대한 평가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표 6]은 강한 긍정, 약한 긍정, 약한 부정, 강한 긍정의 4점 척도에서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어에 대한 느낌을 나타낸 결과이다.

표 6 북한어에 대한 느낌

(4점 척도)

구분	사례 수 (명)	정중 하다	차분 하다	세련 되다	부드 럽다	듣기 좋다	순박 하다	강하다	느리다	가볍다	낮설다	품위가 없다	장황 하다	불친절 하다
일반인	2,021	2.0	1.9	1.7	1.7	2.0	2.7	3.3	2.1	2.1	3.0	2.7	2.5	2.5
접촉국민	200	2.2	2.0	1.9	1.9	2.3	2.8	3.4	1.8	1.9	2.6	2.2	2.3	2.3
북한이탈 주민	305	2.9	2.6	2.6	2.5	2.8	2.8	3.0	2.3	2.4	2.3	2.3	2.2	2.4

문] 평소 북한 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느낌 중 가장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표 6]에서 남북한 사람들은 모두 북한어에 대해 ‘강하다’는 느낌을 갖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또한 북한 말이 순박한 면도 있지만 낯선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남북한 주민들 모두 북한어가 우리말과는 이질적이거나 다른 무엇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표 7]은 이러한 북한어에 대한 느낌을 단어나 표현으로 확장해 물어본 결과이다.

표 7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4점 척도)

구분	사례 수 (명)	순우리 말을 많이 쓴다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	한자어를 많이 쓴다	비속어를 많이 쓴다	직설적으로 말한다	사과나 감사 표현을 자주 한다	빈말이나 가식적인 말을 많이 한다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
일반인	2,021	2.8	1.8	2.3	2.2	3.0	2.2	2.3	2.9
접촉국민	200	3.1	1.6	2.0	2.2	3.3	2.2	2.0	2.7
북한이탈 주민	305	3.3	1.9	2.0	2.1	3.0	2.3	2.2	2.6

문]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 귀하의 느낌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북한어에 대한 연상 이미지나 북한어에 대한 느낌에 이어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에서도 유사한 평가 양상이 나타났다.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설적으로 말하며 순우리말과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는 느낌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사람들이 쓰는 단어나 표현에서 순우리말이 많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대체로 직설적이고 공격적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던 것이다.

이 같은 설문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북한어에 대한 남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 통합의 맥락에서 언어 통합의 문제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해명되어야 하며 북한어의 문제 역시 북한인과 북한 체제를 고려하는 사회적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3. 소통과 통합: 북한어, 북한인, 북한 체제

언어 통합의 과제에서 북한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북한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사회성’의 맥락에서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며 소통과 통합의

방식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번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 언어 의식이 언어적 요소 이외에 사람과 체제에 대한 편견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8]은 북한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느낌을 나타낸 결과이다.

표 8 북한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느낌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매우 불편하고 낯설다	어느 정도 불편하고 낯설다	어느 정도 편하고 친근하다	매우 편하고 친근하다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는다	계
일반인	2,021	8.6	53.1	12.9	0.6	24.7	100.0
접촉국민	200	5.5	32.5	40.0	4.5	17.5	100.0

문] 북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인의 61.7%, 접촉국민의 38.0%는 북한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불편하고 낯설다’는 느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어에 대한 연상 이미지, 북한어에 대한 느낌이 북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느낌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드러내 준 것이다. 또한 이 결과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과 소통의 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북한 사람은 물론 북한어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에서 일반인의 13.5%만이 북한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편하고 친근하다고 응답한 반면 접촉국민의 경우는 44.5%가 편하고 친근하다고 응답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실제로 접촉국민들 중 71.5%가 북한이탈주민을 만난 후 북한어가 친근해졌다고 응답했고 북한이탈주민의 69.5% 역시 남한에 온 이후 남한어가 친근해졌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하면, 남북한 언어 의식에서 상호 소통의 의지와 실천 정도에 따라 편견과 부정적 이미지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9 남북 언어 차이가 큰 요소(1+2+3순위)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발음이나 억양이 다르다	맞춤법 등 표기법이 다르다	고유어 (순우리말) 를 많이 쓴다	다른 단어를 쓰거나 같은 단어라도 다른 뜻으로 쓴다	존댓말이나 호칭·지칭 등의 표현이 다르거나 사용되는 상황이 다르다	사과, 칭찬, 질문, 거절, 요청 등의 말을 하는 방식이 다르다	기타	모름/ 무응답
일반인	2,021	94.9	64.4	55.5	44.6	21.4	18.1	0.1	0.0
접촉국민	200	95.0	35.0	60.0	47.0	20.5	39.5	1.0	0.5
북한이탈 주민	305	93.8	45.9	40.0	38.4	42.0	38.7	1.3	0.0

문] 남한 말과 비교할 때 북한 말이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국민과 북한이탈주민 90% 이상은 모두 남북한 언어 차이가 가장 큰 요인으로 '발음과 억양'의 차이를 꼽았다. 이것은 일반인의 57.4%, 접촉국민의 53.0%, 북한이탈주민의 45.9%가 북한어와 조선족어의 차이를 인지하고 그 주된 이유를 발음과 억양의 차이로 꼽은 평가와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발음과 억양에 대한 이러한 평가와 달리 실생활의 소통에서는 다른 요인들이 더 부각되었다.

표 10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어 교육이 필요한 분야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발음과 억양	단어와 표현	사회· 문화적 지식	언어 예절과 화법	기타	모름/ 무응답	계
일반인	1,641	45.7	30.8	13.7	9.6	0.1	0.0	100.0
접촉국민	172	24.4	34.9	17.4	22.7	0.6	0.0	100.0

문]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을 더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10]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 말 교육이 필요한 분야를 묻은 결과 일반인의 45.7%가 '발음과 억양'을 꼽은 반면 접촉국민의 34.9%는 '단어와

표현'을 꼽았다. 이 같은 결과는 일반인의 경우 상대방의 언어를 평가하는 데서 이미지나 편견에 좌우된 발음과 억양을 중요시한 반면 접촉국민의 경우 실제 소통에서 문제가 되는 단어와 표현의 차이를 더 부각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통에 따라 상호 언어 의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소통과 이해의 증진이 부정적인 언어 의식을 극복하고 언어 통합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다. [표 11]은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 소통의 이해 정도를, [표 12]는 상호 간 이해가 되지 않은 이유를 나타낸 결과이다.

표 11 본인이 하는 말에 대한 남북한 사람들의 이해 정도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접촉국민	200	0.5	17.5	72.5	9.5	100.0
북한이탈주민	305	2.0	30.8	58.7	8.5	100.0

문] 북한이탈주민들이 귀하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접촉국민)

문] 남한 사람들이 귀하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북한이탈주민)

표 12 본인이 하는 말을 북한탈주민/남한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한 이유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북한(남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쓰거나 같은 단어라도 뜻을 다르게 써서	사과, 칭찬, 질문, 거절, 요청 등의 말을 하는 방식이 달라서	존댓말이나 호칭·지칭 등의 표현이 다르거나 사용되는 상황이 달라서	발음과 억양이 달라서	대화의 주제나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어서	계
접촉국민	36	66.7	11.1	8.3	8.3	5.6	100.0
북한이탈주민	100	51.0	8.0	5.0	33.0	3.0	100.0

문]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골라 주십시오.

[표 11]에서 남북한 주민들은 상대 언어를 대체로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12]에서와 같이 상대의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존재했는데,²⁾ 남북한 주민 대부분 모두 ‘북한(남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쓰거나 같은 단어라도 뜻을 다르게 써서’라고 응답했던 반면 발음과 억양의 차이는 거의 부각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일상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74.4%는 관공서나 병원, 은행 등에서 쓰는 용어가 ‘어렵다(매우 22.3%, 다소 52.1%)’고 느꼈고 그 이유로는 ‘외래어, 한자어 등 어려운 말이 많아서’가 50.7%,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해서’가 48.0%를 차지했다.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학교나 직장에서 전문 용어를 중심으로 대화를 할 때’가 46.0%로 가장 높았고, ‘은행, 병원, 우체국, 주민 센터 등에서 업무를 볼 때’ 32.0% 등의 순이었다. 무엇보다도 실제로 80% 이상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새롭게 사용되는 외래어, 인터넷 용어, 일상생활에서 줄여 쓰는 용어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남북한의 언어 통합에서 북한어를 바라보고 이에 대처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언어 문제를 단지 언어에서만 찾지 말고 사람과 체제의 문제로 확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과 체제를 바꾸는 노력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언어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 가는 노력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의 체제에 대한 비교에서 일반인과 북한이탈주민들은 모두 정치, 경제, 문화, 언어 순으로 차이의 정도 순위를 꼽았지만 실제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이 언어라는 점은 매우 역설적이다. 이것은 정치 경제적 통합이 체제 및 사회 통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지만 개인들의 일상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언어 통합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2) 그러나 북한어에 대한 접촉국민의 이해도에 비해 우리말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언어 통합은 작게는 한국 사회 내 소수자 집단인 탈북자 집단을 통합하는 문제이며 크게는 미래의 남과 북의 사회를 통합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이질적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체제를 획일적으로 통일할 수 없듯이 언어 역시 획일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언어가 언어 이외에 사람, 체제와 관련되어 나타나듯이 언어, 사람, 체제의 통합은 획일적인 언어 공학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언어 통합은 체제와 사람의 문제를 고려하는 ‘통합’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에서 북한 말을 가르친다면 어떤 방향에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 설문 결과에서도 ‘남북 언어 차이를 알리고 극복하는 방향으로’가 46.9%, ‘북한이탈주민 등 다문화 사회에서의 소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가 34.4%, ‘북한 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가 6.3%로 나타난 반면 ‘남북 언어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는 3.1%에 불과했던 결과 역시 일방적인 언어 동화가 아닌 사회 문화적 교류와 통합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어 통합의 과제에서 교육적 과제에 관한 남북한 주민들의 의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의 약 80% 이상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남한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표 13]에서 보이듯이 북한어 교육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했다.

표 13 학교에서 북한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가르쳐야 한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일반인	2,021	30.4	54.2	15.4	100.0
접촉국민	200	48.0	24.0	28.0	100.0
북한이탈주민	305	40.0	43.3	16.7	100.0

문]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북한 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어 교육에 대한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의 동의 비율은 모두 남한어 교육에 대한 동의 비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일반인의 동의 비율은 30.4%에 머물렀다. 그러나 접촉국민의 경우 48.0%로 동의 비율이 더 높았고 전문가의 경우는 동의 비율이 64.0%에 이른 것을 고려하면 우리의 학교 교육에서 북한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 역시 학교 교육에서도 획일적인 동화나 통일의 관점이 아니라 소통에 의한 통합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4. 나오며

이 글은 <2016년 남북 언어 의식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언어 의식과 사용 실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언어 통합의 관점에서 북한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언어와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볼 수 있는가를 성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기본적으로 언어는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입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언어 통합의 과제 역시 북한어의 문제만을 따로 떼 놓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북한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 체제의 문제를 남북 간의 관계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발음과 억양은 물론 단어와 표현, 표기와 화법, 규범과 문화 등을 포괄하는 문제이며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의 인식과 실천의 문제 등이 수반되는 문제이다.

지역 방언의 수준으로 차별화되는 것을 넘어서 북한 사람과 북한 체제에 대한 이미지가 투영되어 무시와 차별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 한국 사회 내 북한어의 현주소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자 아나운서의 말을 따라 하며 북한 말씨를 교정하는 등 정(+)의 효과도 나타나지만 북한 말씨를 숨기거나 사교 생활을 꺼리는 부(-)의 효과도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가

소수자 집단에서 2천만 북한 주민 전체로 확대된다면 언어 통합의 과제는 흡수 통일처럼 획일적인 동화의 관점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상호 차이와 다양성의 맥락을 사회 문화적 통합의 틀로 융해하지 않는 통일의 논리는 현재의 정치 외교적 갈등만큼 커다란 사회적 갈등을 낳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물론 한국 국민들의 언어 의식과 실천을 함께 고려하며 통합의 노력을 경주해 가야 한다. 또한 국어 순화와 언어 동질성 회복의 노력을 해 가면서 이러한 언어적 실천을 시민 사회 내 소통의 차원으로 확대하고 사회 문화적 교류 속에서 상대 체제에 속한 사람과 언어에 대한 편견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 시대를 대비한 언어 통합의 과제는 시민 사회의 소통과 함께 가야 하며 북한어, 북한인, 북한 체제의 문제가 하나의 묶음으로 해결되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의미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다 — 신현숙 전 상명대학교 교수



신현숙(전 상명대 국어교육과 교수)

질문자 이경우(서울신문 어문팀장)

때 2017. 2. 13.(월) 곳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어학자 신현숙 전 상명대 교수는 2010년 《꿈 소리 바람 소리》라는 시집을 냈다. 대학 다닐 때 쓴 시들이 바탕이 됐는데, 그의 주 관심사인 담화의 의미 연구와 무관하지 않다. 시 역시 그에게는 담화인 까닭이다. 시를 정리하면서 담화를 생성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밝히고 싶은 마음이 작용했다. 이 시집은 2014년 영문판으로도 출간됐다. 영문판의 제목은 ‘드림 보이시스 윈드 보이시스(Dream Voices Wind Voices)’이다. 영문판으로도 출간한 것은 한국어와 영어의 공통점, 차이점을 밝히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 전 교수는 본래 문학을 전공하고 싶었다. 학부 논문은 문학과 관련한 내용을 썼다. 그런데 1970년대 중반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의미론을 공부하게 됐다. 알고 보니 의미론이 문학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 당시 의미론이 철학 쪽으로 기운 것도 있어서 주위에선 국어학에서의 의미론 연구가 가능하다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사 학위 논문으로 <동사 ‘받다/얻다/버리다/잃다’의 의미 연구>를 썼

다. 의미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측정할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논문은 의미 연구 방법을 새롭게 제시하고 의미 연구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학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그는 국내외 학회지에 70여 편의 논문을 실었다. 국어학, 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이 주를 이룬다. 이 가운데 언어 정보와 관련한 논문은 사전 정보를 구축하고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그의 논문들은 연구 영역을 넓히고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특히 1988년 《한글》 200호에 실린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의 언어 현상>은 북한, 북한어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

2000년에 출간한 《의미로 분류한 현대 한국어 학습사전》, 《의미로 분류한 한국어·영어 학습사전》, 《의미로 분류한 한국어·중국어 학습사전》, 《의미로 분류한 한국어·일본어 학습사전》은 외국인들의 한국어 학습에 크게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 전 교수는 담화인지언어학회, 국제한국어교육학회(IAKLE), 국제한국어문화학회(INK), 한국어의미학회에서 이사, 부회장, 회장 등을 맡으면서 학계,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아동문학에서 의미론으로

이경우 지난해 퇴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신현숙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 하지 못했던 일을 찾아서 하나씩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경우 선생님, 시집도 내셨습니다.

신현숙 예, 제 평생 한 번 낸 거죠. 대학 다닐 때 문학의 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썼던 작품들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하

고 가지고 다니다가 그래도 정리 한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내게 된 거죠.

이경우 국어학만 하신 게 아니라 문학 쪽도 하신 거군요.

신현숙 사실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동문학에 관심이 있었어요. 초등학생도 가르쳤었는데, 아동문학을 좀 더 전공하고 싶었죠. 학부 논문도 아동문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원에서 의미론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미론이 문학하고 어학하고 철학하고 중간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라고 하는 게 언어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고, 프로세스하고 그런 개념이죠. 형태론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 과학적인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고, 의미론은 약간 철학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제가 의미론을 연구할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그거 철학에서 하는 거 아니야? 국어학에서 그게 가능해?”라고 하셨죠. 의미를 어떻게 계량화하고 측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과제였죠. 제 박사 논문이 의미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측정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경우 지금은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그 시절에는 그랬군요.

신현숙 이제 많은 분들이 의미론을 하시잖아요. 제가 박사 논문 공개 발표할 때도 “이거는 철학에서 해야 하지 않아?”라는 분위기였어요. 지금은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돼 있죠. 실제로도 측정이 좀 가능해졌고요.

이경우 학교에는 아예 안 나가시는 건가요?

신현숙 40년을 가르쳤는데 이제 후배들이 가르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고요. 뭐랄까 좀 쉬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우 지금까지 쉽 없이 달려오셨군요.

신현숙 그것도 그렇고, 제자를 키워 봤으니까 그 친구들의 영역이 좀 더

넓어져야 되고요. 학회 특강 외에 정기적인 수업은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선생님께서는 의미망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두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이지요.

신현숙 이제 의미망이 일반화됐다고 봐야죠. 사전에도 보입니다. 네이버 같은 데 보면 단어에 대해 방사형으로 제시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의미망이에요.

이경우 선생님께서 초창기에 그걸 하신 거네요?

신현숙 제가 계속 의미망이 먼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는데, 최근 국립국어원에서도 사전에 반영을 한 거지요. 예를 들어 ‘감동’이라고 하면 ‘감동’과 비슷한 ‘감격’, ‘감성’ 등의 낱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감동했다’ 하는 것과 ‘감격했다’ 하는 것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구분하는 작업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동했다’라고 하려면 머릿속에 ‘감격’과, 어떤 목록이 짝 뜨는 거죠. 뜨다가 어떤 때는 ‘감동’ 아니면 ‘감격’, 어떤 경우에는 ‘감성’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 있는 어휘들이 그냥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크로 들어 있는 걸 보여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엄마’ 이라면 ‘아빠’가 생각나잖아요. 엄마하고 아빠가 생각나면 딸하고 아들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엄마를 얘기했는데 머릿속에 아빠가 뜬다면 엄마하고 아빠는 공통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거죠. 부모라는 공통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차이는 여성, 남성 이러한 것을 구축해 주는 게 의미망을 만드는 작업이죠.

이경우 의미망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어휘 교육에서는 꽤 효과적이겠습시다.

신현숙 굉장히 유용하죠.

- 이경우 한국어 교육에서 의미망을 활용한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 신현숙 예를 들어 ‘사과’를 가르친다면 사과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도, 감도 다 섞어서 가르치는데, 그걸 하나의 네트워크로 보는 거죠. 사과를 가르치면 어떤 친구는 “아, 사과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친구 머릿속에는 네트워크가 하나 더 있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애플(Apple)’과 연결되고요. 사과를 많이 먹어 본 친구는 ‘부사’도 나오겠죠. 그러면 머릿속에서 사과 충위와 부사 충위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상하 관계로 연결되는 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 학생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 하나의 네트워크로 가르치면 더 효율적으로 어휘를 습득시킬 수 있죠.
- 이경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어휘 교육을 많이 하는군요.
- 신현숙 그런 식으로 가르치죠. 아마 선생님도 배우셨을 거예요. 비슷한말 반대말 찾는 거요. 그게 전에는 일대일의 네트워크였는데 이제 조금 다양화된 네트워크로 만들어 가는 거죠. 의미망을 구축해 놓으면 자동 번역에서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떤 한국어 의미망은 다섯 개가 있고, 일본어는 세 개가 있을 때, 자동 번역기라든지 인공지능을 만들면서 관계를 정확하게 묶어 줄 수 있죠. 그러면서 자동 번역이 가능해지는 거죠.
- 이경우 그러면 의미망 연구하시면서 그쪽도 같이 들여다보셨겠습니까.
- 신현숙 오, 그럼요. 보통 인지언어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인지언어학을 바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언어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경우 지금까지는 자동 번역이라는 게 주로 단어 위주로 하는 것이어서 만족스럽지 않았었습니다.
- 신현숙 그랬죠. 그리고 한국어 자동 번역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미묘한 차이가 안 밝혀진 데 있습니다. 기본

적으로는 돼 있는데 미묘한 차이라든지 감정 이러한 것은 잘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위해 감정에 대한 풀이를 하려면 상당히 치밀하게 해야 하는 거죠. ‘불그스름하다’와 ‘불그죽죽하다’의 차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인 거죠.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색채어가 언뜻 보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들의 차이를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에 대한 정리가 덜 됐다고 보면 되겠죠.

이경우 계속 연구가 되고 있을 텐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면 “아,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현숙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구 대상이 무궁무진해서 좋다고 얘기하죠. 어느 정도 연구를 하게 되면 언어는 또 변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어휘하고 지금 쓰는 어휘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끝은 없을 것 같아요. 100% 가능하다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이경우 저는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이 연구하는 것을 기계가 학습하면서 발달시키면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내다봤습니다.

신현숙 그렇죠. 그런데 기계가 학습한다기보다는 사람이 연구한 결과를 입력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도출되는데 그게 얼마만큼 들어가는냐, 입력과 출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1992년쯤에 미국 오하이오에서 실제 대화를 기계가 읽게 했을 때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를 연구했어요. 호텔 예약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하는 데만 컴퓨터 용지가 거의 한 박스 나왔어요. 아주 어렵게 진행됐죠. 요즘은 호텔 예약할 때 자동으로 예약하는 시스템이 가능하거든요. 그만큼 축적이 돼 있는 거죠. 음성 인식도, 문자 인식도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이경우 의미 쪽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군요.

신현숙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을 로봇한테 넣어 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로봇이 대신 해 줬으면 좋을 수 있죠. 그러한 부분을 하려다 보니 인지과학이 나오게 됩니다. 인지과학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인공지능을 만들어 내는 일이 되겠죠. 시리(Siri)¹⁾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거겠죠. 예를 들어 “알람 좀 맞춰 줘.”라고 말하는데 “몇 시에 맞춰까요?”라고 답하는 건 제 목소리를 인식하고, 언어학적 의미를 분석해 또 다른 문장을 생성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많은 작업이 들어갑니다. 제 목소리가 계속해서 바뀔 것 아니에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다는 말이죠. 그중에서 딱 뽑아내야 하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음성학, 의미론, 어휘론, 통사론의 연구 결과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경우 그 데이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겠네요.

신현숙 그렇죠. 바로 그 데이터가 아주 많아야 되는데, 컴퓨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죠.

이경우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지만 한국어와 관련해서 자료가 그리 많이 축적된 게 아니죠?

신현숙 영어 자동 번역하고 한국어 자동 번역을 본다면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있죠.

한국어에는 감정적 어휘가 많다

이경우 국가 차원에서 말뭉치를 구축하는 작업을 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은 이미 많이 진행돼 있는 거죠?

1) 휴대 전화 제조업체인 애플사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자연어를 기반으로 한 음성인식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현숙 훨씬 많이 돼 있죠. 우리가 그게 더 어려운 건 한국어가 가진 특징 때문이기도 해요.

이경우 어떤 특징들 때문인지요?

신현숙 한국어에는 다른 언어에 비해 감정적인 어휘가 많아요.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단어라면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책’은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까무잡잡하다’ 그러면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지가 필요한 거죠. ‘새까맣다’와는 또 차이가 있는데, 미묘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경우 현재 인공지능과 자동 번역은 얼마나 발전했다고 보시는지요. 전망은 어떤가요?

신현숙 언어 정보 또는 언어문화 정보, 특히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구축되느냐에 따라 인공지능 분야나 자동 번역의 성과도 달리 나타나겠죠. 최근의 경험처럼 언어 정보 또는 언어문화 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분야나 자동 번역 분야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기반을 둔 한국어 정보와 함께 한국 언어문화 정보가 명시적으로 구축된다면 한국어를 활용한 인공지능이나 자동 번역 분야도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이경우 이 분야에 대해 연구를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지요?

신현숙 의사소통에 기반을 둔 한국어 정보와 한국 언어문화 정보를 명시적으로 구축한다면, 인공지능이나 자동 번역기 개발은 물론 인지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자나 한국어 학습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언어문화 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개발의 연구 성과 또한 한국어 교육을 위한 도구나 교재로 적극 활용할 수도 있죠.

이경우 선생님 연구 업적을 살펴보니가 국어 담화 의미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오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에 관한 것이지요?

신현숙 언어 연구는 단어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 사전에서 단어를 뽑아서 연구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연구해 가지고는 앞에 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층위가 높아졌습니다. 문장 층위로 높아진 거죠. 처음에는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를 연구하다가 그다음에는 단어를 어떻게 연구하느냐, 그다음에는 이 문장이 잘된 문장인지 자연스럽게 읽는지 이런 걸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엄청나게 바뀝니다. “참 잘했어.”라고 했을 때 ‘참 잘했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일을 잘해서 “참 잘했어.”라고 하는 것과 어제 가방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참 잘했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뽑아내려면 상황을 다 줘야 되는 거죠. ‘수우미양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가 끝이죠. 그런데 ‘가나다’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가’가 맨 앞이에요. 이러한 상황을 주지 않고 “가”를 받았어.”라고 하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대화 속에서 또는 상황 속에서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참 잘했어.”라고 할 때 모든 상황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하려면 담화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경우 담화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신현숙 한 단락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영화에서 운동화가 첫 장면에 나왔다고 하죠. 그 운동화가 왜 나왔는지 처음에는 모르죠. 나중에 범인을 밝히다가 운동화가 증거로 나왔다면, 그 영화 전체를 봐야지 그 운동화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담화는 두 문장일 수도, 한 문장일 수도, 어떤 경우에는 큰 덩어리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려면 언어 형식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주변에 시간이나, 장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인지하는 방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장면마다 의미를 해석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장면들을 인공지능도 알아야 되고, 한국어 학습자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경우 한국어 교수·학습과 관련해서 문화와 관련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신현숙 언어 교육에서 문화 정보는 매우 중요하죠. 어휘는 문화 정보와 사회 정보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언어 정보와 문화 정보를 나누어 생각하기는 어려운 거죠. ‘김치’를 배우기 위해서는 한국의 음식 문화, 나아가서는 지역 문화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외국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꾸 밥을 먹자고 해 놓고 얘기가 없다고요. 그게 한국 사람들은 큰 의미를 두고 한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를 가져오는 거죠. 의미 해석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경우 이런 게 다 언어문화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군요.

신현숙 네, 다 언어문화예요. 외국 사람들에게 나이를 물어보면 자신에게 관심이 있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고 나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요.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 내가 발화를 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학생들이 저에게 “신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이상하죠. 다른 신 선생님이 있다면 혹 모르겠지만요. 그러면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알려주죠. 이렇게 미묘한 문화적인 차이, 감정적인 차이 같은 것들이

다 언어문화 속에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이경우 그걸 인식시키려면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신현숙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는 “너 나이가 몇이냐?”라고 묻는 것은 괜찮지만, 외국 사람한테는 “너 나이가 몇이냐?”라고 묻는 것은 좀 이상한 거라는 게 인공지능한테는 쉽지 않은 거죠.

이경우 문장을 아무리 제대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해도 바탕에 깔린 문화를 모르면 제대로 대화를 나눈다고 할 수 없는 거네요.

신현숙 안 되는 거죠.

이경우 언어 교육에서 언어 자체와 문화는 같이 가야 하는 거군요.

신현숙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고 봐야겠죠. 아직 한국어를 안 배운 학생이었는데요. 저한테 처음 와서 인사를 하는데 “선생님, 굿모닝.”이라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개를 같이 숙이더라고요. 한국에 가면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거라고 배운 거죠. 그래서 제가 ‘굿모닝’ 할 때는 굳이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음식 문화에서는 음식 예절이, 밥상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모든 인간관계는 의미 생성과 해석의 관계

이경우 의미를 공부한다는 것이 실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면서 재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신현숙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눈뜨고 일어나면서부터 계속 의미를 생성하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시계를 보는 것도 의미 해석이죠. “지금 몇 시니까 늦었네.” 아니면 “늦지 않았네.”라든지, 티브이를 켜면 그것도 의미 생성과 해석을 하는 거가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의미 생성과 해석의 관계라고 봐야겠죠.

이경우 선생님 그런데 국어나 국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재미없다는 말들

을 하기도 합니다.

신현숙 아, 그게 지나치게 어떤 규범을 강조해서 그런 거 같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라는 개념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계속 학생들이 외우게만 되는 거예요. 저는 외우는 수업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선생님, 그러면 정답이 뭐예요?”라고 합니다. 정답은 없다고 하죠.

이경우 외국인한테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인가요?

신현숙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한국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해’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사실 문법적으로 틀릴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교정해 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딱 틀에 박힌 걸 하다 보니까 국어 시간이 재미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어 교육 쪽에서도 문화적인 맥락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글을 쓸 때 국어 하면 국어에 관한 얘기만 했거든요. 한글의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음악이나 미술, 드라마에 관한 얘기도 있습니다. 언어로 된 것은 전부 다 국어 교육의 자료이고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판도 흥미 있어 합니다. 간판에 관한 논문도 몇 편 썼죠. 어떤 식당은 ‘이모네’가 들어가 있고, 어떤 식당은 ‘고모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모네’하고 ‘고모네’ 가운데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은가요?

이경우 ‘이모네’가 더 많은가요?

신현숙 네, 이모네가 더 많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고모가 반찬을 해 준 기억보다는 이모가 해 준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또 이모라고 하면 엄마 쪽이기 때문에 이게 밥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것도 우리 문화하고 관련지을 수 있는 거겠죠. 요새는 ‘충각’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털보네’ 이런 것이 들어간 것도

있고요. 그게 사회적인 변화를 보여 주는 하나의 예가 되겠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음식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간판이 달라지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경우가 되겠죠.

이경우 그런데 선생님, 옛날에는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구분했지만, 최근에는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신현숙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됐죠.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어만 쓰는 사람만 사는 사회였잖아요. 지금은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어려워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한국어 사용자를 위한 국어 교육과 외국인 사용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을 구별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봐야죠. 국내 한국어 교육 현장도 국어 교육 현장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외국 학생이 주를 이루고 있는 대학원의 강좌명은 ‘국어 의미론’보다 ‘한국어 의미론’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교수·학습 목표나 교수·학습 대상에 따라 교수·학습 범위나 순서 또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교수·학습 정보나 내용은 같아야 하고요. 지금은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엄청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취미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를 배웠는데, 지금은 학문적인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처럼 대학이나 대학원에 가려고 배우는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보려고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면 상당한 혼란이 오는 거죠. 예전처럼 생활 한국어를 배우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목표가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과 같은 정보를 습득하고 동일한 내용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경우 그럼 결혼해서 이주한 분들한테도 마찬가지인가요?

신현숙 그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같은 정보를 배워야 그

엄마나 아빠가 가르칠 수 있겠죠. 그 학생들이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야 되니까 언제나 동일한 정보를 배워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국어 교육하고 한국어 교육을 나눠서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진 시대가 된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중심으로 ‘국어’라고 얘기했는데, 미안할 때가 있더라고요. ‘국어 의미론’이라고 할 때 사실 외국인들한테는 국어가 아니잖아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한국어 교육 전공이에요. 이유는 다른 언어들이 죽 있는데, 거기서 ‘국어’라고 얘기하면 맞지 않잖아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지금은 외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된 거죠. 한국 사람이 조금 더 많으니까 ‘국어’로 쓰고 있지만, 다문화 사회가 더 커진다면 중학교에서 국어라고 쓰기가 미안할 수도 있죠.

이경우 한국어를 교육하는 환경이 많이 좋아졌겠지만,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현숙 아쉬운 것 있어요. 제가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장 할 때 한국어 교육자라는 개념으로 국내외 연수도 많이 주관했습니다. 이제 연수 부분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됐어요. 세종학당이라는 열매까지 맺어서 아주 활발해지고 있죠. 그런데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어 교사는 교육부 관할이에요. 그래서 임용고사에 합격하면 국어 교사가 되고 정규직으로 들어가죠. 하지만 한국어 교사는 아직까지 정규직으로 돼 있는 경우가 아주 적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제도화되고 정책적으로 더 정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게 되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외국 학생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국내에도 세종학당을 설치한다면

이경우 정부가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건가요.

신현숙 할 수는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마다 양상이 아주 달라지고 있는 거죠. 학습자들의 양상도 다르고요.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중국에서 왕창 들어오면 중국어 학습자가 많아지고, 어떤 경우에는 몽골에서 들어오면 몽골…….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국가 차원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일 겁니다. 지금은 약간 우후죽순 격이라 할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아주 내실 있게 운영되고, 어떤 학교는 그냥 비자 주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제대로 된 지원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경우 제도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하는 거보다는 예산 문제가 더 크겠습니까.

신현숙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움직이겠죠. 지금은 등록금 가지고 움직이니까 들쭉날쭉한 거죠. 딱 정해진 게 아니라 학생이 많이 오는 학교는 좀 넉넉하고, 학생이 적게 오는 학교는 좀 열악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경우 정부에서 더 필요하다고 받아들여야 할 텐데요.

신현숙 그래도 그게 많이 설득이 돼서 세종학당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세종학당도 좀 더 확장해야 합니다. 세종학당을 외국에만 두지 말고 국내에도 학교마다 하나씩 둔다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될 수도 있겠죠.

이경우 세종학당을 국내에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신현숙 그렇죠. 만약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가 잘한다면 연세대학교에 세종학당을 같이 운영하게 하는 거죠. 안산 지역에 외국인 학생이

많다면 그쪽에 세종학당을 둘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경우 세종학당은 당연히 해외에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했는데, 그럴 수도 있군요.

신현숙 국내에 없으라는 법도 없잖아요. 잘하면 그 대학도 더 살고, 지역에 있는 외국 학생들도 큰 부담 없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등록비가 없어서 못 배우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노동자들이 배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오는 학습자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예요. 조금 생활이 어렵거나 직장이 만만치 않은 친구들은 거의 한국어를 배울 생각을 못 하죠. 그냥 친구가 얘기하는 것 듣고 배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건 그들의 노동력을 높여 준다는 의미도 있겠습시다.

신현숙 그럼요. 그러면 사실 그 자손들도 우리가 많은 돈 안 들이고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봉사활동으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인데, 사실 그분들한테도 큰 짐을 지워 주는 거죠. 정부에서 일부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체계화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경우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교재 상황은 어떤지요.

신현숙 교재는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코이카에서도 하고, 국립국어원에서 하고 그렇죠. 그런데 교재를 어떻게 학생들한테 보급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만든 교재들은 엄청 비쌉니다. 거의 3만 원, 4만 원 이러거든요. 이러면 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교재를 국가가 정확하고 다양하게 개발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재가 있긴 한데 제한돼 있죠. 몇 개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교재들이 만들어져서 무료로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료로 접근하지 않으면 국내 학생들도 안 하는데, 외국 학생들은 당연히 안 하죠.

이경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 학습지, 국어 잡지와 같은 것들을 선생님께서 하시면 어떨지요.

신현숙 그런 것도 굉장히 좋죠. 온라인상으로도 한번 뭔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봅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많지는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언어의 팁 정도라도 넣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정리해 놓은 것들은 논문이었으니까 그것을 약간 칼럼 비슷하게 정리해 가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언어 정보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경우 오랫동안 한국어 교육 연구에 힘쓰셨습니다. 후학들도 많이 양성 하셨고요. 선생님께 한국어 교육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요?

신현숙 한국어와 한국어 교육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은 국내외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국가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과 교육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죠. 또 한국어 학습자나 교육자가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를 구축하려고 했고요.

이경우 앞으로 특별하게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신현숙 특별한 건 없어요. 제가 전에 외국인을 위한 사전을 만들었어요. 오래됐죠. 2000년이니까 16년 정도 됐네요. 그걸 바탕으로 요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의미를 중심으로 만든 사전이죠. 그 사전을 만들 당시에 제가 뭘 생각했나면 한국의 ‘과일’ 하면 과일끼리 전부 모아 놓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죠. 또 음식이면 음식과 관련된 그릇이라든지 먹는 동작, 마시는 것 등 개념들을 묶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한 5만 단

어 정도 했는데 혼자 다 못 했죠. 그리고 한국어판, 영어판, 일본어판, 중국어판이 나왔죠. 그것을 좀 더 확장하는 작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미묘한 차이 같은 것들은 못 했거든요.

이경우 40년 넘게 한국어 교육, 한국어 연구를 해 오셨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신현숙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다른 전공을 했으면 제 마음대로 못 했겠죠. 영어를 전공했다든지 그랬으면 그만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했을 거예요. 아주 미묘한 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연구하기에는 직관이 없으니까 아주 어려웠을 테죠. 또 수학이나 과학을 공부했다면 자부심을 가지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수학은 다른 나라에도 잘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국어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잘하는 사람 쪽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요. 제자들도 많이 키웠고, 학회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 학회를 하다 보니까 이쪽 분야 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어를 어떻게 바깥으로 알릴 것이냐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경우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현숙 고맙습니다.

고전문학에 나타난 재담의 양상

최진형

덕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언어유희의 사회적 기능

언어가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 중 의사소통이라는 본질적 기능 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사회적 기능’이다. ‘사회적 기능’이란 당대 사회상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나아가 상호 소통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적극적인 실현태로서의 측면을 의미한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임금은? 최저임금
고등학생이 싫어하는 나무는? 야자나무
읽다가 지치는 책은? 지침서

위에 제시한 것은 문답을 통해 경쟁을 하는 말장난 또는 언어 게임의 하나로 수수께끼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다. 흔히 이러한 언어유희를 ‘아재 개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다지 신선한 내용이 아니어서 듣는 사람에게 더 이상 웃음을 자아내는 내용이 못 되기 때문에 유행에 뒤처진다는 의미로 이같이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위에 제시한 사례는 얄잡아 볼 만큼 저급하지도 단순하지도 않다. 단순한 언어유희에 머물지 않고

당대 현실의 문제점을 재치 있게 풍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문학 작품에는 이처럼 ‘재치’ 있게 쓰인 표현이 많다. ‘재치’를 통해 ‘재미’를 느끼고 웃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재담(才談)’이라고 한다. ‘아재 개그’도 일종의 재담이라고 할 수 있다. 재담이 추구하는 재치와 재미는 일상적인 언어 관습을 파괴하는 데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일상적 언어 소통 체계에 존재하는 사소한 간극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 이를 흔들거나 뒤집기도 하고, 당연시되던 관습과 사고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이러한 효과를 유발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가 바로 ‘언어유희(言語遊戱)’이다. 흔히 언어 유희(또는 어휘語戱)라고 하면 가벼운 ‘말장난’을 떠올리지만, 단순한 말장난에 그치지 않고 관습적·보수적 사고나 가치관을 뒤흔들 정도의 비판적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우리 고전문학 작품에 나타난 재담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재미나 흥미를 추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사유에 이르게 하는 경우라든지, 발칙하면서도 자유로운 상상력을 보여주는 경우에 주목하여 보고자 한다.

2. 재담이 유발하는 반성적 사유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병신되면 못 가보리
—구전 민요¹⁾

이 작품은 동학혁명 당시 불렀던 노래로서, 갑오년(甲午年, 1894)에 일어난 혁명이 내세웠던 명분과 목적, 즉 ‘부패 척결—내정 개혁—외세 배격’

1) 임동권, 《한국민요집》, 동국문화사, 1966, 595쪽.

등을 단행하는 데에 이르지 못한 채, 다음 해인 ‘을미년(乙未年)’까지 미적거리다가는 ‘병신년(丙申年)’이 되었을 때 결국 혁명이 실패하고 나라가 병신 꼴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구전 민요이다. 시대적 상황이나 정치적 징후를 암시하는 노래인 참요(讖謠)의 면모를 매우 선명하게 보여 준다. 이 노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심적 시어가 간지(干支)와 동음이의(同音異義) 관계에 놓여 있으며, 역사적 배경으로서 동학혁명 및 갑오개혁이 자리하고 있음을 간파하여야 한다. 작품의 핵심 시어는 ‘가보세’이다. ‘을미(乙未)’와 ‘병신(丙申)’을 ‘을미적거리다’나 ‘병신되다’와 연관 지은 발상도 재치 있지만, 갑오세(甲午歲)를 ‘가보세’라는 청유형 어미로 바꾼 부분은 매우 탁월하다. 타자의 입장에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체로서 현실 참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뜻을 모아 함께 하기를 청자에게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핏 보아 이 작품을 간지와 음이 같거나 비슷한 어휘를 활용한 말장난 수준의 재담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그 안에 함축된 사유와 표현의 수준과 깊이는 결코 단순하거나 저급하지 않다. 참혹할 정도로 암울했던 질곡의 근대사에서 한줄기 빛처럼 중요한 변곡점(變曲點)을 마련했던 것이 바로 갑오년(甲午年)이기 때문이고, 우리 민족의 슬픈 운명을 내다본 듯 날카롭고 정확하게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역사를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던 어느 역사가의 말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 작품에 담겨 있는 세계관과 실천적 문학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반성하게 한다.

이처럼 재담이 유발하는 효과와 파괴력은 때론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장되기도 한다. 재담은 우리의 기대지평(期待地平)을 뒤흔들거나 무너뜨림으로써 신선한 자극, 즉 미적 쾌감을 얻게 하기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독특한 문학적 효용 가치를 획득하기도 하는 것이다.

[안이리] 놀보 화를 내어 “이 밥 아니 먹었으면 고만이지요” 하며 발로 밥상을 탁 차니 상발은 부러지고 종자는 둥글고 접시는 폭삭, 사발은 딱딱, 수저는 쟁그렁, 국물은 쏟아져 장판방 네 구석에 좌르르 흐르니 홍보 처 이른 말이 “아주버님 들으시오 사람을 치지 밥상도 치십니까? (중략) 밥이 어떻게 중한 것이라고 밥상을 치셨노? 밥이라는 것이 나라에 올리면 수라요, 양반이 자시면 진지요, 하인이 먹으면 입시요, 제 배가 먹으면 밥이요, 제사에는 진메이니 얼마나 중한가요? 동리가 알고 보면 손도가 싸고 관가에서 알면 불기가 싸고, 감영에서 알면 귀양이 싸요”

— 심정순 창본, <박타령>²⁾

위의 예문은 판소리 <홍보가(박타령)>에서 부자가 된 동생 집을 찾아온 놀보가 심술을 부리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놀보의 행패를 대하는 홍보 아내의 발화가 주목된다. 더 이상 먹을 것에 연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밥상을 걷어 찬 시아주버니에게 쏟아 내는 홍보 아내의 목소리는 예사롭지 않다. 우리는 그 목소리에서 몰상식한 행위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밥에 대한 예의, 나아가 인간에 대한 예의에 관한 준엄한 꾸짖음일 것이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가족에게 줄 밥 한 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던 가장(家長) 홍보에 대한 마음, 가난으로 인한 고통과 설움을 견디다 못해 목을 매려했던 자신의 처지에 대한 회한이 사무쳤기 때문일 터다. ‘수라-진지-입시(하인이 먹는 밥을 낮잡아 이르는 말)-젯메(제사 때 올리는 밥)’ 등 밥을 지칭하는 단어가 다양한 것은 그만큼 우리 삶에서 밥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밥을 함부로 한 대가로 ‘손도(損徒: 지역에서 내쫓음)-불기-귀양’ 등의 형벌이 당연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밥의 종류와 벌의 종류를 나열하며 대비

2) 김진영 외 편저, 《홍부전 전집 1》, 박이정, 1997, 108쪽.

하는 재치 있는 방식은 단순한 언어유희와는 차별화되는 방식의 재담이다. 홍보 처의 입장에서 볼 때 시아주버니의 행패에 정면 대응하기 쉽지 않은 것이 당대의 현실이었을 터이므로 재담을 활용하여 재치 있게 응대한 것은 여러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수로 작용했을 것이다.

3. 재담에 나타난 비판과 풍자

[말로] 글을 읽는데 맑은 정신은 춘향집으로 벌써 붓짐 싸고 등신만 앉아 글을 읽는데, 노루뿔염으로 읽어 가다 춘향 말을 띄시루에 고물 적지 두듯 하겠다. “맹자라. 맹자견양혜왕 하신대 왕알 수불 원천리이래 하시니 ㉠맹자 어찌 양혜왕을 보았으리오 우리 춘향이가 나를 보았지. 대학을 들어라. 대학지도는 재명명덕하며, 재신민하며, 재지어지선이라. ㉡재춘향이라.” 사락을 들어 놓고, “태고라. 천황씨는 이쑥떡으로 왕하여 세기섭제하여 무위이화하여 십이인이 각 일만팔천세하다.” 방자 옆에 섰다. ㉢“여보 도련님 천황씨가 목덕으로 왕하셨단 말은 들었으되 쑥떡이란 말씀은 금시초문이요” ㉣“네 모르는 말이로다. 천황씨는 일만팔천세를 살으실 양반이라 이가 단단하여 목떡을 자셨거니와, 지금 선비야 목떡 먹겠느냐. 물썩물썩한 쑥떡 먹기로 공자님이 명륜당에 현몽하고 각읍 향교로 싹 잡아 돌렸느니라.” “여보 하느님 알으시면 깜짝 놀랄 거짓말 말으시오” “등왕각서라. 남창은 고군이요 홍도는 신부로다. 웅다 이 글 내 글이다. 춘향은 신부되고 나는 신랑되어 오늘 저녁에 만나보자.”

—장자백 창본, <춘향가>³⁾

3) 김진영 외 역주, 《명창 장자백창본 춘향가》, 박이정, 1996, 55쪽.

판소리 <춘향가>의 ‘글자타령(혹은 천자풀이)’과 ‘사랑가’ 대목은 매우 재미 있게 구성되어 있다. 이들 대목은 특히 한자를 활용한 재담이 다양한 기법에 의해 펼쳐지면서 흥미를 돋운다. 판소리에 나오는 재담의 상당수가 비속한 표현, 육담(肉談)적 요소를 양념처럼 넣어 자극적 흥미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비해, <춘향가>에는 문자성(文字性)에 기반을 둔 재담이 많은 편이다. ‘천자풀이’나 ‘사랑가’ 등은 한자 문화권의 일반적 교양 담론에 익숙하다면 매우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재담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의 예문만 보더라도 《맹자(孟子)》, 《대학(大學)》, 《사략(史略)》, 《등왕각서(滕王閣序)》의 유명 구절을 재치 있게 차용하여 변용함으로써 기발한 재미를 추구하고 있다.

작품의 독자가 양반층이라면 이 대목을 접하고 당연히 깔깔거리며 웃을 수 있겠지만, 학문적 소양이 부족한 일반 서민층도 이 대목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굳이 ‘서당개 삼년에 풍월을 읊는다’는 속담이 아니더라도, 《맹자》나 《대학》의 구절은 너무나 유명하여 일종의 교양 담론이 되어 누구나 구사할 정도의 일상화된 상식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나 ㉡이 재치 있는 언어유희라는 점을 알아차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사략》이다. ‘이목덕위왕(以木德爲王)’에서 ‘목덕(木德)’은 오행 및 주역과 관련된 것으로서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철학적 사유가 담긴 개념이다. 그런데 판소리 광대는 이 구절을 ‘목떡’, 즉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에 착안하여 먹는 떡으로 치환한 후, 다시 부드러운 ‘쑥떡’으로 바뀌치기하는 기발하고 해학적인 재담을 창안하였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 ㉣의 목소리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 목소리의 주인공인 방자는 ‘목덕’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 목소리의 주인공인 이도령은 ‘목덕’의 의미는 확실히 모른 채 소리만으로 암기하여 떡으로 알고 있었고, 금시초문이라는 말을 듣자 궤변으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관노의 신분이지만 경전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방자는,

양반이라는 기득권으로 엉터리 주장을 밀어붙이는 이도령의 위세 앞에서도 ‘하늘이 알면 깜짝 놀랄 거짓말 말라’며 뜻을 굽히지 않는다. 이처럼 재담을 통해 방자와 이도령, 또는 천민과 양반의 역할이 전도(轉倒)되어 나타나고, 여기서 비판과 견제의 효과가 달성된다. 지적 허세와 허위로 백성을 억누르고 지배하려는 지배층에 대한 해학적인 풍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4. 육담에 나타난 발칙하고 자유로운 상상력

[중중머리] “높고 높은 하늘 천, 깊고 깊은 따 지, ㉠휘휘칭칭 감을 현, 꼭 눌렀다 누루 황”

[말료] “에 이 늑 상놈이다. 높으면 하늘이요 깊으면 땅이란 말이나. 천자론이 따로 있느니라. 내 이를게 들어보아라.

[중머리] 천개자시생천 하니 태극이 광대 하늘 천, 지벽축시생후 하니 오행팔괘로 따 지, 삼십삼천공부공 하니 인심이 지시 검을 현, 이십팔수 금목수화토지정색 누를 황, 일월이 생하여 천지가 명하니 만물을 위하여 집 우, 토지가 두터워 초목이 생하니 살기를 취하여 집 주, 인유이주하여 천지가 광하니 십이제국이 넓을 흥, 삼황오제 봉하신 후에 난신적자 거칠 황, (중략) 하도낙서 별인 법, 일월성신 별 진, ㉡무월동방 원앙금에 춘향 동침 잘 숙, ㉢동똥똥 입맞추며 사양말라 벌릴 열, 일야 동침에 백년을 기약, 온갖 정담 배풀 장, 금일한풍이 소소한데 금침에 들리라 찰 한, 벼개가 높거든 내 팔을 배어라 이만큼 오너라 올 래, 에후리쳐 안고 침각에 드니 설한풍에도 더울 서, 침실이 온하면 서로를 피할까 이리저리 갈 왕 (중략) 소한 대한을 염려마소 우리 님 의복 감출 장, 이 해가 어이 이리 긴고 수시로 쫓아 부를 윤, 춘향집을 어느 때 갈까 이제도 사오시 남을 여, 외로이 정담을 이루지 못하니 춘향 만난

이를 성. 나는 일각이 여삼추라 일년사시를 빌게 되니 송구영
 신 해 세, 조강지처는 오류의 반이라 대전통편의 범중 물,
 군자호구가 이 아니냐 ㉔춘향과 나와 혀 마주 물고 야드득
 쪽쪽 빨거들면 범중 러자 이 아니냐, 보고지고”

—장자백 창본, <춘향가>⁴⁾

이 예문은 앞서 다룬 ‘글자타령’에 이어지는 대목으로 흔히 ‘천자풀이’라고 불린다. 천자풀이는 <천자문(千字文)>에 대한 일종의 창의적 재해석 또는 의도적 오독(誤讀)에 의한 패러디라고 할 수 있다. ‘검다[玄]’란 발음이 ‘감다’와 유사함에 착안하여 ‘휘휘칭칭 감았다’로, ‘누렇다[黃]’란 발음이 ‘누르다[壓]’와 유사하다는 점으로 인해 ‘꼭 눌렀다’로

치환한 ㉔은 매우 창의적이다. 이 부분의 화자가 천민인 방자란 점을 감안하면, 더욱 기발하고 참신하다고 느껴진다. 물론 왼쪽에 제시한 자료 사진에 드러나 있듯, ‘가물 현’이나 ‘누를 황’ 등 당시 <천자문>의 한글 음훈 표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기존의 사고나 가치관에 안주하는 상태였다면 이러한 ‘비틀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편 양반인 이도령에 의해 전개되는 뒷부분, 특히 잘 ‘숙(宿)’에서 법칙 ‘려(呂)’에 이르는 대목은 ㉔과는 격이



<천자문> (서울대 도서관 소장)

4) 김진영 외 역주, <명창 장자백창본 춘향가>, 박이정, 1996, 55-59쪽.

완전히 다른 높은 수준의 패러디 기법을 보여 준다. ‘진숙열장(辰宿列張)’이라는 《천자문》의 해당 구절의 밑바탕에는 우리 주변의 자연을 넘어 우주를 아우르는 존재론적·인식론적 차원의 철학적 사유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춘향가>에 활용될 때에는 ㉠과 같이 춘향과 사랑을 나누는 의미로 재해석되면서 본래의 세계관은 사라지고 남녀 간의 애정을 묘사하는 도구로 치환되어 듣는 이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특히 배열을 의미하는 ‘열(列)’을 ‘벌리다’로 보는 해석(㉡)을 접하면 이 재담이 육담(肉談)으로 흐르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이러한 각성은 곧 ㉢과 같은 노골적 풀이를 접하였을 때에도 거부감으로 눈살을 찌푸리는 대신 미소를 머금은 채 감탄사를 발하게 만든다. ‘려(呂)’ 자를 입 ‘구(口)’ 자 두 개가 붙어 있는 것, 즉 이도령과 춘향의 입맞춤을 형상화한 것으로 만드는 이 독특하며 발칙한 상상력에 혀를 내두르며 감탄하게 되는 것이다.

《천자문》을 비롯, 《맹자》, 《사략》 등이 차례로 언어유희의 도구로 사용되는 현상은 자칫 유학(儒學)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매우 천박하면서도 위험한 것으로 취급될 여지도 있다. 틀에 박힌 사고나 가치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사유의 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파격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유희가 육담(肉談)과 연결되는 순간 우려와 경계의 시각은 느슨해지기 마련이다. 오히려 재치와 기발함에 의해 자극된 우리의 상상력과 이로 인한 쾌감으로 말미암아 웃음을 머금을 수밖에 없게 된다. 대다수 재담에서 희화화(戲畫化)와 패러디의 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육담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처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며 설화(舌禍) 또는 필화(筆禍)를 의식해야 했던 현실적 상황이 작용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중중머리] “궁자 노래를 들어라. (중략) 월궁 속에는 광한궁, 용궁 속에
는 수정궁, 이 산은 이 궁이요, 저리 올라 법궁이요 이 궁

저 궁을 다 버리고 너와 나와 합궁할 제, 양각 사이 ㉠오목궁
 내 ㉡가죽방망이로 궁궁궁 올려놓으면 그 아니 별궁이라.”
 -장자백 창본, <춘향가>⁵⁾

이 예문은 <춘향가>의 ‘사랑가’ 중 ‘궁자노래’라고 불리는 대목이다. ‘사랑가’는 <춘향가>의 대표적인 대목일 뿐 아니라 판소리를 대표하는 대목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유명하고 완성도도 높다. 사랑가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지만 대개 ‘긴사랑가-情자노래, 궁자노래-만첩청산-금옥사설-업고놀이, 타고놀이’ 등의 짜임을 보인다. 이 중 ‘궁(宮)자노래’는 역대 궁궐 이름을 나열하다가 점점 자극적 표현의 수위를 높여 마침내 성행위로 진입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노래이다. 다섯 군데 밑줄 친 단어, ‘합궁’, ‘오목궁’, ‘가죽방망이’, ‘궁궁궁’, ‘별궁’은 한자어와 고유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언어유희적 재담을 보여 준다. 이 표현을 접한 관객은 직관적으로 남녀 관계를 상상하게 된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과 ㉡이다. ㉠‘오목궁’은 여근(女根), ㉡‘가죽방망이’는 남근(男根)을 상징한다. 이러한 상상력과 상징은 직관적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문학적 관습의 누적을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음 두 편의 시조 작품을 살펴보기로 하자.

玉이 玉이라커늘 燐玉만 여겼더니
 이제야 보아하니 眞玉일시 적실하다
 내게 ㉢살송곳 있더니 뚫어볼가 하노라
 -《槿樂》 391, 蔓橫淸, 鄭松江⁶⁾

5) 김진영 외 역주, 《명창 장자백창본 춘향가》, 박이정, 1996, 85-87쪽.

6) 심재완 편저, 《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 755쪽.

鐵이 鐵이라커늘 섭鐵만 여겼더니
 이제야 보아하니 正鐵일시 분명하다
 내게 ㉠골풀무 있더니 녹여볼까 하노라
 -《槿樂》 392, 蔓橫淸, 鄭松江⁷⁾

㉠‘살송곳’은 납근, ㉡‘골풀무’는 여근을 상징한다. 이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근화악부(槿花樂府)》에는 ‘송강 정철과 기생 진옥이 서로 주고받은 작품(鄭松江與女妓眞玉相酬答)’이라는 부기를 통해 이 텍스트가 연행의 현장에서 실현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상대방의 이름을 활용하되, ‘번옥(인공산 옥):진옥(자연산 옥)’, ‘섭철(불순물 섞인 쇠):정철(순수한 쇠)’로 짝을 지어 ‘진가(眞假)’를 대비한 후, 이를 다시 상대방의 이름으로 치환한 기지와 재치도 놀랍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살송곳’과 ‘골풀무’라는 육담적 상상력과 연계한 발상에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옥(玉)을 세공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서의 송곳과 철을 제련하는 도구로서의 풀무를 떠올리되, ‘살[肉]’ 자를 붙여 납근을 상징하고, 골풀무[冶爐]에서 ‘골’이 환기하는 형태적 유사성을 활용하여 ‘여근’을 표상한 해학적 상상력은 그야말로 ‘기재(奇才)’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재담이 유통되고 향유되는 공간의 문화적 기반에는 발칙하고도 자유로운 상상력이 자리 잡고 있다.

5. 맺으며

지난 학기 초 개강 무렵의 일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내용이 아주 이색적이었다.

7) 심재완 편저, 위의 책, 1031쪽.

대학생이 왜 강한지 알아? 개강하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결국 설명을 듣고 나서야 웃을 수 있었다. 이 문구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라는 접사가 요즘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질이 떨어지는’, ‘헛된’, ‘쓸데 없는’, ‘정도가 심한’ 등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서, ‘개꿈, 개수작, 개죽음, 개잡놈’ 등의 예에서처럼 부정적 의미를 더하는 용도로 쓰인다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만으로 그 쓰임새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요즘 어린 학생들은 ‘개-’라는 접두사를 부정적인 데에만 쓰지 않고, ‘개 좋다’, ‘개 이뽀’, ‘개맛있어’ 등에도 쓰기 때문이다. ‘아주’, ‘매우’란 의미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개-’라는 접사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현수막에 적힌 글의 뜻은 ‘개강(開講)할 무렵 대학생은 매우 강(強)하다’쯤 될 것이다.

본디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개-’를 아무 데나 무분별하게 쓰는 현상으로 본다면, 국어를 파괴하거나 왜곡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삼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상황이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아 보인다. ‘헬조선’이란 말이 요즘 현실을 아프게 지적하듯 젊은이들에게 현재나 미래는 암담할 뿐 희망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망하고 포기하여 주저앉아 버리기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이, 어쩌면 너무나도 ‘개같은’ 세상을 살아야 하는 상황을 재치 있게 비꼬는 차원에서 ‘개-’라는 접사를 붙이는 것은 아닐까? 고전문학의 재담에서 발견되는 해학적 웃음과 예리한 풍자의 공존을 현대의 언어유희에서도 좀 더 많이 만나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일본 방언사전의 경위와 의의

양민호

성결대학교 동아시아문리학과 교수

1. 서론

한 국가의 언어사전을 편찬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국어사전조차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집필하는데 지역의 말, 즉 방언에 관한 사전을 편찬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고 고된 일이다. 몇 년 전 개봉한 영화 <행복한 사전>의 원작 소설 《배를 엮다(船を編む)》의 내용 중에 ‘사전은 언어의 바다를 건너는 배이며, 편집자는 그 바다를 건너는 배를 엮어가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많은 어휘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정리해 가며 사전을 엮어가는 작업이야말로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를 보여 준다.

방언사전은 많은 지역 언어 조사와 문헌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 방언의 역사는 일본어의 역사와 맥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방언 연구를 살펴보기에 앞서 일본어의 역사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일본어 역사를 이해하면서 시대별로 등장했던 방언에 대한 언급과 그것이 실려 있던 문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 최근의 방언 자료와 방언사전에 대해서 언급하고 왜 방언 자료와 사전들이 필요한지, 왜 지역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도록 하겠다.

2. 본론

2.1. 일본 방언 자료의 역사적 경위

한 국가의 언어는 음운, 어휘, 문법, 담화 등 모든 면에서 지역별 방언 차이가 있기에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하거나 여행을 할 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일본어의 방언은 크게 ‘본토(本土) 방언’과 ‘류큐(琉球) 방언’으로 나뉘며, 이것은 다시 세분화할 수 있다. 메이지(明治) 시대 이후 도쿄(東京) 방언을 중심으로 표준어 확립과 보급이 진행되어 지방의 방언은 표준어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파악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표준어와 방언의 공생을 시도하였지만 실제로 지역의 전통 방언은 급속히 쇠퇴하게 되었다. 과거, ‘방언’은 예를 들어 표준어인 ‘오모시로이(おもしろい, 재미있다)’의 방언형인 ‘오모로이(オモロイ)’와 같이 각 지방 특유의 어휘, 표현, 억양, 발음 등의 차이만을 가리켰으나, 현재의 언어학에서는 악센트 음운·문법 등을 모두 포함하는, 그 지역 사회의 언어 체계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쿄라는 한 지역의 일본어, 즉 ‘도쿄 방언’도 당연히 존재한다. 표준어·공통어 및 그 기반이 되는 도쿄 방언에 대해 다른 방언은 여전히 ‘교양 없는 촌스러운 말’이라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특정 방언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존재한다. 이러한 지역적 말, 즉 방언이 근대 이전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았으며 어떠한 형태로 문헌에 남겨져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겠다.

2.1.1. 근대 이전의 방언

일본어에 방언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상대 시대 이전부터이다. 《万葉集(만요슈)》 권14 ‘아즈마우타(東歌)’와 권20 ‘사키모리노우타(防人歌)’에는 당시의 아즈마노쿠니(東國) 방언에 의한 노래가 기록되어 있다. 또

820년경 ‘도다이지 후주문(東大寺 諷誦文)’에는 ‘에조 방언(毛人方言), 히다 방언(飛驒方言), 아즈마노쿠니 방언(東國方言)’이라는 부연 설명이 있다. 이것이 일본 내 문헌에서 사용된 ‘방언’이라는 단어의 가장 오래된 예이며, 헤이안(平安) 시대 초기 중앙의 방언에 대한 입장을 엿볼 수 귀중한 기록이다.

헤이안 시대부터 가마쿠라(鎌倉) 시대에 걸쳐서는 중앙부의 문화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에 방언에 관한 기술은 단편적인 것에 그쳤다. 그러나 무로마치(室町) 시대, 특히 전국(戰國) 시대에는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중앙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지방의 힘이 강해진 결과, 지방 문헌에 방언을 반영한 내용이 자주 나타나게 되었다. 아즈마노쿠니(東國) 계열 문헌에서 많이 보이며 고문 서류에도 종종 방언형으로 등장하게 된다. 아즈치모모야마(安土桃山) 시대부터 에도(江戸) 시대 초기에 걸쳐서는 포르투갈 선교사가 많은 기독교 자료를 남기면서 그 안에 각지의 방언을 기록한 것이 많다. 주로 교토(京都) 말을 중심으로 기술하면서도 규슈(九州) 방언을 다수 수집하여 병기한 《일포사전(日葡辭書)》¹⁾(1603-1604)과 지쿠젠(筑前)과 비젠(備前) 지역 방언의 언어적 특징을 담은 《일본대문전(日本大文典)》(1604-1608)이 대표적인 예이다. 예수회의 선교사로 일본을 찾은 포르투갈 사람 로드리게스(1561-1634)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통역을 맡을 정도로 일본어가 능숙하여 《일본대문전》을 정리했는데, 이것은 외국인이 만든 최초의 일본어 문법책이며, 그 안에 방언형 설명이 존재하였다.

이 시기에는 류큐 방언 자료도 등장한다. 초기 단계의 자료에 속하는 것으로는 중국 문서의 ‘류큐관역어(琉球館譯語)’가 류큐(琉球) 지역의 말

1) 《일포사전(日葡辭書, Vocabulário da Língua de Iapam)》이란 일본 예수회가 나가사키(長崎) 가쿠린(學林)에서 1603년에 간행한 일본어·포르투갈어 사전이다. 다음 해에 보완·간행 하였고, 포르투갈식 로마자로 일본어 표제어를 제시하고 포르투갈어로 설명을 붙였다. 예문에 당시의 표준어인 교토 말(京都語)과 규슈(九州) 방언의 차이에도 주목하였으며, 가어(歌語)·문어(文語) 등에도 주를 달았다. 총 어휘 수가 32,293개에 달한다.

을 음역으로 표기하여 기록하고 있다. 1609년 시마즈(島津) 침공 사건으로 류큐 왕국을 지배하였던 사츠마(薩摩) 번(藩) 기록에도 류큐의 말이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방언의 자료로 볼 때 류큐 제도에 전해지는 고대 가요 우무이(ウムイ)를 모은 《오모로소시(おもろそうし)》(1531-1623)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타 지역의 방언 모음집 자료를 압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나라(奈良) 시대부터 막부(幕府)가 성립될 때까지 긴키(近畿) 지방 방언이 중앙어의 지위에 올랐다. 도쿠가와(徳川) 가문 이후에는 에도(江戸)로 중심이 옮겨져 문화가 꽃피게 되며 에도 말의 지위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메이지(明治) 시대에는 도쿄(東京)의 말이 일본어의 표준어로 간주되었다.

2.1.2. 근대 이후

메이지 정부 성립 이후에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전국적인 통일을 도모하기 위해 말의 통일과 표준화가 거세게 요구되었다. 학교 교육에서도 ‘도쿄의 중류 사회’ 말이 사용되었으며 방송에서도 ‘공통어’ 사용이 중심이 되었다. 이렇듯 표준어 규범의식이 확립됨에 따라 방언을 교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으며, 이자와 슈지(伊澤修二)는 교원을 위한 책을 만들어 도호쿠(東北) 방언 교정법을 설명하였다. 심지어 지방 학교에서는 방언을 말한 사람 목에 ‘방언 꼬리표’를 걸게 하는 등의 벌칙까지 있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 방언 자료를 남기는 것이 쉽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성장과 함께 지방에서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시작되면서 표준어와 방언의 알력 싸움이 나타났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1950년대 후반, 표준어 화자들이 지방 출신들의 말투를 조롱하고 비웃어 지방 출신들이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방언 교정 교육도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운동은 전국적

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정치 및 경제적 고도성장 이후 방언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초반의 설문조사에서는 ‘방언을 후세에 남겨 두고 싶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90% 이상에 달한다는 결과까지 나왔다. 방언의 공통어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이른바 ‘방언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방언을 소중히 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0년대 이후에는 젊은이들이 언어유희 감각으로 방언을 사용하게 되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1995년에는 랩 ‘DA.YO.NE’를 간사이(關西) 버전 ‘SO.YA.NA’로 개사하여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수도권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청년들 사이에서도 간사이 방언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도쿄의 여고생들 사이에서도 방언을 섞어 말하는 것이 유행하여 여고생을 위한 방언 참고서와 사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젊은이들의 지역 말과 지역 신조어 등이 도쿄로 거꾸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일본 내에서 방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으나, 구체적으로 각 지역 방언을 보존하고 유지하려는 움직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국립국어연구소 설립과 동시에 많은 방언 조사 사업을 진행하면서부터였다.

2.2. 구체화된 방언 관련 자료 및 사전

2.2.1. 일본언어지도

‘일본언어지도’는 전국 각지의 방언이 지역에 따라 어떤 억양과 발음으로 나타나는지를 항목별로 표시한 지도로서, ‘언어지도’ 또는 ‘방언지도’라고 불리는 간행물이다. 실제로 지도화된 방언 자료집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전국 방언의 지리적 분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일본의 방언에 관한 기초 자료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 국립국어연구소가 편집하고 1966년부터 1974년에 걸쳐 간행되었다. 이를 간단히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언어지도(日本言語地圖)’ 총 6권, 각 권 50장의 지도, 총 300장의 지도

- 편집: 국립국어연구소
 - 발행처: 대장성(오오쿠라쇼) 인쇄국
 - 발행: 1966년-1974년(축쇄판: 1981년-1985년)
 - 조사 내용: ‘일본언어지도’는 언어지리학적 방법에 의해 현대 일본 표준어의 성립 과정 및 다양한 방언 어형의 역사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작성되었으며 각 권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 ‘일본언어지도’ 제1집 언어지도(50) 참고지도(1장)
음성·형용사 등에 관한 항목, 조사 지점 번호지도
 - ‘일본언어지도’ 제2집 언어지도(50) 참고지도(1장)
주로 동사에 대한 항목 지세도(地勢図)
 - ‘일본언어지도’ 제3집 언어지도(50) 참고지도(1장)
명사에 관한 항목(사람·인체·유희 등), 인구 도표
 - ‘일본언어지도’ 제4집 언어지도(50) 참고지도(1장)
명사에 관한 항목(가옥, 도구, 곡물, 야채 등), 산업도
 - ‘일본언어지도’ 제5집 언어지도(50) 참고지도(1장)
명사에 관한 항목(동물, 식물) 현대 도로지도
 - ‘일본언어지도’ 제6집 언어지도(50) 참고지도(1장)
명사에 관한 항목(자연, 일시 등) 및 전권에 걸친 보충지도와 근세 번령도(藩領圖)(1664년)

일본언어지도가 어휘 중심의 방언 분포 자료였다면 다음에 설명할 ‘방언 문법 전국지도’는 문법에 따른 방언 차이에 착안하였다.

2.2.2. 방언문법 전국지도

‘방언문법 전국지도(方言文法全國地圖)’는 문법 항목의 전국적인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언어지도(방언지도)이다. 방언 연구의 기본 자료이며, 국립국어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각지에 거주하는 방언 연구자 93명의 협력을 얻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 1979년부터 1982년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는 국립국어연구소가 편집한 ‘방언문법 전국지도’로 1989년부터 2006년에 걸쳐 간행되었다. 그 구성을 간단히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방언문법 전국지도’ 전 6권, 350장

국립국어연구소에서는 1989년부터 2006년에 걸쳐 간행된 ‘방언문법 전국지도’의 지도 이미지를 피디에프(PDF)의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 편집: 국립국어연구소
- 발행처: 재무성 인쇄국
- 발행: 1989년-2006년
- 조사 내용 및 각 권의 해설: ‘방언문법 전국지도’는 문법 현상의 전국 분포를 전망하고 언어지리학적으로 해명하며, 문헌 연구에 의한 일본어의 역사와 방언 분포와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이다. 전국 807지점에서 문법 현상에 관한 267항목에 대해 그 지역의 토박이 장년층 남성 제보자들을 직접 면접 조사하였으며 각 권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방언문법 전국지도’ 제1집 조사 편, 문법지도(60장), 조사 지점 번호 지도
 - ‘방언문법 전국지도’ 제2집 활용 편 1, 문법지도(45장), 투시용 조사 지점 번호지도

- － ‘방언문법 전국지도’ 제3집 활용 편 2, 문법지도(45장)
- － ‘방언문법 전국지도’ 제4집 표현법 편 1, 문법지도(55장), 조사 지점 번호지도(4~6집)
- － ‘방언문법 전국지도’ 제5집 표현법 편 2, 문법지도(65장), 투시용 조사 지점 번호 지도(4~6집)
- － ‘방언문법 전국지도’ 제6집 표현법 편 3(대우표현), 문법지도(80장)

지금까지 소개한 방언 관련 두 자료는 일본의 ‘국립국어연구소’라는 국가 연구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2.2.3.에서는 개별 방언 연구자에 의해 만들어진 방언사전 중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2.2.3. 일본방언대사전

《일본방언대사전(日本方言大辭典)》은 근세부터 현대까지 1,000개 이상의 방언 자료(각 지역의 방언집 등)에서 20만 개에 달하는 어휘를 채록 하였고 방언 자료 번호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명실공히 방언 어휘의 집대성 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전으로 이 방언사전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사토 료이치(佐藤亮一) 감수

쇼각칸(小學館) 사전 편집부 감수

편집 위원: 도쿠가와 무네마사(徳川宗賢)

- － 풍부한 ‘문헌 예’를 통한 상세한 해설

지역 이름이나 실제 사용 예를 비롯한 해설과 더불어 방언이 문헌 중에 나타난 예를 ‘문헌 예’로 소개하고 있으며 역사적 배경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 방언의 전국적 분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분포 지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말투가 비슷한 방언은 같은 항목으로 정리하여 방언형의 변천과 지리적 분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편집하였으며, 동시에 시각적으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언 분포 지도 178장을 수록하였다.

－ 표준어로 찾을 수 있는 색인 포함
별책으로 ‘표준어 조회 색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만들었다. 또 표제어는 일반 어휘 이외에도 동물·식물·조류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민속어 관련 항목을 선별하여 수십 종류로 나누어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각 지역의 음운 상태를 알 수 있는 ‘방언 음운 총람’
표준어 음절이 각 지역의 방언과 어떻게 대응되고 있는지를 일람할 수 있도록 ‘방언 음운 총람’을 사전 후반부에 게재하였다.

《표준어 검색 일본방언사전(標準語引き 日本方言辭典)》은 《일본방언대사전》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핸드북 형태로 만든 사전이다. 방언을 표준어로 쉽게 검색할 수 있고, 각각의 표준어 표제어에 해당하는 방언과 그 방언이 사용되고 있는 지역명을 표준어로 찾을 수 있다. 약 3,600개인 표준어 표제어는 오십음도 순으로 배열되었으며, 방언 수집은 홋카이도에서부터 오키나와까지 1,000개 이상의 지역 방언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그 단어 수는 총 15만 항목에 달하며 방언의 다양성에 압도된다. 예를 들어, ‘오카상(おかさん, 어머니)’, ‘하하(はは, 어머니)’를 나타내는 방언이 일본 전국에서 350개 말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록 중 ‘도도부현별 방언 개요’에서는 전국 47개 도도부현별 방언의 구분법과 어휘·문법·발음 등의 특징을 알 수 있다. 《표준어 검색 일본방언사전》은 지역어의 풍요로

음, 따뜻함, 아름다움을 재확인할 수 있는 핸드북 사전으로, 다양한 연령층을 공략하여 만든 방언사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연구기관 그리고 연구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방언 자료나 사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간 축적해 온 방대한 지역 자료가 있기 때문이다. 방대한 지역 자료가 구축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지역 방언 연구가 착실히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3.에서는 이러한 축적된 일본 방언 연구 조사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서 방언 자료 보존의 의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2.3. 일본의 방언 연구

일본의 방언 연구는 지역 조사 연구에서 그 시작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를 주도적으로 이끈 곳이 국립국어연구소이다. 현재에도 많은 연구가 이 기관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약 70년의 역사를 가진 연구소가 실시한 방언학적 조사 연구를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낼 수 있다.

표 1 일본 국립국어연구소가 실시한 방언학적 조사 연구

	명칭/조사 지점	주요 주제	실시 연도
1	하치조 섬(八丈島) 조사/도쿄 도 하치조 섬	공통어화	1949
2	시라카와(白河) 조사/후쿠시마 현 시라카와 시	공통어화	1949
3	쓰루오카(鶴岡) 조사/야마가타 현 쓰루오카 시	공통어화	1950/1971/ 1991/2011
4	우에노(上野) 조사/미에 현 우에노 시(현재 이가 시)	경어	1952
5	오카자키(岡崎) 조사/아이치 현 오카자키 시	경어	1953/1972/ 2008
6	홋카이도(北海道) 조사/홋카이도 후라노 시, 삿포로 시	공통어화	1958/ 1986-1987
7	나가오카(長岡) 조사/니이가타 현 나가오카 시	언어생활 연구	1962
8	마쓰에(松江) 조사/시마네 현 마쓰에 시	언어생활 연구	1963
9	대도시 조사/도쿄 도 23구, 오사카 시	언어생활 연구	1974-1975
10	장면 차이 조사/도요나카 시, 미야쓰 시, 도요오카 시, 미야즈 시, 도요오카 시	언어생활 연구	1983-1984

위의 표에서 세 번째로 언급된 ‘쓰루오카(鶴岡) 조사’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일본의 방언 연구 업적이다. 쓰루오카 조사는 1950년 첫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20년 주기로 총 4회의 조사가 행해졌다. 처음에는 방언의 공통어화 현상을 살피기 위한 조사였지만, 3차(1991년) 조사에서는 공통어가 거의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4차 조사에서는 기존의 조사 항목에 사회 방언적 요소를 추가하였고, 지역 방언의 보존적 측면에서 조사 대상자의 의식에 있는 그 지역의 방언을 흉내 낼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4차 조사에서는, 예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우선 쓰루오카 방언의 특징을 조사하고 기술(記述)에 힘썼다. 조사 질문은 크게 네 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하위 분류 항목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음성: 순음화, 구개음화, 유성화, 비음화, 중설모음화, 악센트
- 어휘: 부사, 외래어 등
- 문법: 명령형, 접속조사 부분
- 기타: 언어 의식 및 조사 대상자 속성

이와 같은 일본의 지역방언 연구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도 쓰루오카 시와 같이 추적 조사가 전제된 방언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언어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사이다.

언어생활 실태와 언어 변화 모델을 밝히기 위하여 국립국어연구소는 1948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 중 하나는 일본 전국 각지의 언어생활의 실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었다. 설립 이듬해인 1949년에는 후쿠시마(福島)현 시라카와(白河) 시를 모델 지역으로 선택하여 언어생활 실태 조사를 통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거기서 얻어진 연구 결과가 일본의 다른 지역에도 들어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1950년 무작위 추출 표본으로 쓰루오카 시를 대표로 선택하여 조사하게 된 것이다. 이후 1971년 2차 조사, 1991년 3차 조사, 2011년 4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 때 10대였던 사람이 2차 조사 때는 30대가 되어 있었으며, 3차 조사 때는 50대, 4차 조사 때는 70대가 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60년 동안 동일 지역 방언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언어 변화 과정 해명에 도움이 되었다. 이와 같이 방언과 공통어라는 주제로 60년간 계속된 조사는 언어 연구의 세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학문의 연구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최장’의 추적 조사이다. 이와 같이 한 지역의 방언이 기술되고 지역 방언 조사가 이루어져야 방언 관련 자료집 또는 사전 등이 완성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3. 결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본어 역사 속에서 시대별로 등장했던 방언에 대한 언급과 그것이 실려 있던 문헌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일본언어지도’와 ‘일본 방언문법 전국지도’에 대한 개관을 살펴보았다. 최근에 만들어진 《일본방언대사전》은 위에서 언급한 방언 자료를 기본으로 독자들이 방언을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방언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꾸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일본의 대표적 방언 조사 연구인 쓰루오카 조사를 통하여 앞으로 방언 연구가 왜 필요한지,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일본 방언학 분야는 공통어의 확립과 방언 규범에 관한 연구가 활발했던 시기였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방언 연구는 그러한 관점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대를 품어냈던 지역 방언의 문헌과 자료를 찾아 치밀하게 기술함으로써 그 방언

의 역사적 의의를 찾기도 한다. 도호쿠 계센(氣仙) 지방의 의사이면서 방언 연구자인 야마우라(山浦) 선생은 자신의 방언에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의 방언을 널리 알리고 싶어 계센 지역 방언 연구를 시작하였다. 수십 년간에 걸쳐 만들어진 사전이 《계센어(ヶセン語) 사전》이며 이는 지역 사회 언어 조사 및 자료를 바탕으로 집필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방언에 대한 자료의 보존과 계승을 각 지역에서 이어나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기관인 국립국어연구소를 통한 방언 연구 및 방언 자료 구축 등의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언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향후 한국에서도 국가 기관이나 개별 연구자에 관계없이 지역 방언 조사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간다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방언 자료가 한데 모아질 것이며, 이를 면밀하게 점검하여 기술해 나간다면 방대하면서 의미 있는 한국의 방언사전이 탄생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고 문헌

- 고바야시 다카시(2010), “지역어 조사·보존의 외국 사례 - 일본의 경우-”,
《새국어생활》 20-3, 국립국어원, 57-72쪽.
- 양민호(2016), “방언 연구가 나아갈 방향”, 《새국어생활》 26-1, 국립국어원,
65-77쪽.
- 양민호 외(2015), 《대도시 지역사회 방언 조사》,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 이노우에 후미오 저, 김덕호 외 역(2015), 《경제언어학 언어, 방언, 경어》, 역락.
- 정승철 외(2014), 《방언의 조사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 小林隆(2004), アクセサリーとしての現代方言, 《社會言語科學》, 第7卷 第1号,
105-107쪽.
- 木部暢子(2015), 方言研究の過去・現在・未来, 日本方言研究會第100回研究
發表會, 創立50周年記念企画 記念シンポジウム予稿集.
- 佐藤亮一 監修(2002), 小學館辭典編集部(編)《お國ことばを知る方言の
地図帳》 新版, 小學館.
- 田中ゆかり(2011), 《「方言コスプレ」の時代》, 岩波書店.
- 徳川宗賢 編(1979), 《日本の方言地図》, 中公新書, 中央公論社.
- <https://ja.wikipedia.org/wiki/%E6%97%A5%E6%9C%AC%E8%AA%9E%E3%81%AE%E6%96%B9%E8%A8%80/>.
- <http://www2.ninjal.ac.jp/keinen/turuoka/outline.html/>.

잔잔한 미소와 온화한 마음의 김방한 선생님*

권재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1. 김방한 선생님과 만나다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이 동승동에 있을 때인 1973년 2학년 1학기 말의 어느 날, 동부 연구동에 자리 잡은 언어학과 합동 연구실에 들어갔다. 합동 연구실이란, 요즘으로 말하면 학과 사무실 겸 도서관이다. 조교 선생님이 “재일이, 김방한 선생님께서 아침부터 찾으셔. 빨리 가 봐.”라고 말했다. 합동 연구실을 나오면 바로 오른쪽 방이 김방한 선생님 연구실이고 복도 맨 끝 방이 허웅 선생님 연구실이었다. 허웅 선생님 연구실은 1학년 때부터 자주 들렀던 방이지만 김방한 선생님 연구실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잔뜩 긴장한 채 선생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허웅 선생님 방과는 사뭇 달랐다. 너무나도 가지런히 정돈된 서가와 책상 위에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놓인 책들. 금방 다림질한 듯 깔끔하게 줄이 선 선생님의 바지처럼.

“자네의 성실한 학문 태도에 대해선 강의 시간에도 잘 알고 있는데 ‘비교

* 이 글은 글쓴이의 다음 두 글을 바탕으로 새로 고쳐 다듬어 쓴 글이다. [1] '잔잔한 미소, 온화한 마음'(《김방한 선생 10주기 추모 문집, 김방한 선생님을 다시 만나다》, 86-101, 한국언어학회·한국알타이학회, 2011), [2] '김방한 선생의 학문 세계'(《김방한 선생 추모 학술대회 논문집》, 1-22, 한국언어학회, 2011)

언어학' 학기 말 시험지를 보니 대단하더군. 완벽하게 썼더군. 그리고 어제 저녁에 국문과 안병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 과목도 시험을 무척 잘 봤다고 칭찬하더군. 더욱더 분발해서 학문의 길에 정진하게.” 이 말씀에 “예.”라 크게 대답하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연구실을 나왔다. 이날이 김방한 선생님과 개인의 첫 만남이었다.

이렇게 동숭동에서 김방한 선생님과 만남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8년 이 지난 2001년 10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뵈게 되었다. 2001년 여름부터 나는 미국 블루밍턴에 있는 인디애나 대학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차 10월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제1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회가 열려 그곳에 가기 위해 서울에 잠시 들렀다. 서울에 오니 선생님께서 입원해 계신다 하였다.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갔다. 가만히 누워 계시며 가끔씩 눈을 뜨셨다. 제가 왔다고 하니, 언제나처럼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손을 잡으셨다. 나는 손에 차츰차츰 힘을 더 주어 선생님 손을 꼭 잡았다. 무슨 말씀을 하려는 듯하셨지만 말을 잊지 않으시고 온화한 표정을 지으셨다. 카자흐스탄에 다녀오겠다 인사드리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김주원 교수와 함께 알마티에서 학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10월 18일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다. 아! 지난번 병원에서 뵈는 것이 마지막이 될 줄이야. 그리고 이곳에 와 있어 영결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다니. 선생님께 죄스러운 마음 가득하였다. 서울에 돌아왔을 때 선생님 댁에 들러, 북극 지역 출장 중 뒤늦게 귀국했다는 셋째 아드님을 조문하고 함께 선생님을 회고하였다. 선생님의 묘비명을 쓰라 하면 다음과 같이 써야겠다 생각하며 선생님 댁을 나섰다. “여기 우리나라 현대 언어학과 알타이어언어학의 초석을 다진 김방한 선생, 잠들어 계시다.”

2. 김방한 선생님의 학문 특징

김방한 선생님(1925년-2001년)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교수(1953년 강사, 1956년-1990년)로 재직하면서 언어학 연구와 교육에 한평생을 보낸 우리나라 제1세대 언어학자이다. 한국언어학회 회장과 한국알타이학회 회장을 맡아 초창기 학회 건설에도 공헌하였다.

선생님의 자서전 《한 언어학자의 회상》(1996)에 따르면 선생님은 중등학교부터 대학 시절에 이르기까지 영어문법학에 심취하였다. 여기서부터 선생님의 언어학이 출발하였다. 이렇게 출발한 김방한 선생님 학문의 기본 성격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현대 언어학 이론을 폭 넓게 섭렵하여 해설함으로써 초창기 한국 언어학계를 계몽하였다. 이를 위해 《언어학논고》(1970)를 발간하고 또한 ‘언어학사’ 강의를 계속하였다. 그렇게 하여 소쉬르의 구조주의언어학, 프로그래프의 기능주의언어학을 비롯한 유럽의 언어 이론, 그리고 미국의 구조주의언어학, 변형생성문법 이론에 이르기까지 세계 언어학계의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을 소개하여 넓은 시각에서 언어 이론을 바라볼 것을 강조하여 한국의 언어학, 한국의 언어학자가 세계의 흐름 속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언어학 제1세대의 책무를 다하였다.

둘째, 인도유럽어 역사비교언어학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몽골어학을 중심으로 한국의 알타이어언어학을 확립하고 나아가 한국어 계통 연구의 방향을 정립하였다. 김선기 선생님의 권유로 알타이어언어학을 연구 과제로 삼고 몽골어학을 전공하였다. 몽골어학을 비롯한 알타이어언어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선 이론인 인도유럽어 역사비교언어학을 깊이 있게 연구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김방한 선생님의 대표 저서 《한국어의 계통》(1983)의 ‘자서(自序)’에

서 밝힌 다음 서술은 바로 선생님 학문의 기본 성격을 잘 드러내 준다. “한국어의 계통을 연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론과 알타이제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에 관한 기술이 필요했다. 진정한 비교언어학의 방법론을 모르는 그리고 알타이제어에 관한 깊고 광범위한 지식이 없는 한국어 계통 연구는 한낱 사이비 한국어 계통론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개별언어 연구를 위해 일반언어학 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의 필요성과 가치를 강조한 것이다. 이렇듯 김방한 선생님 학문의 특징은 바로 ‘일반언어학에서부터 개별언어학으로’라 하겠다.

일찍이 《언어학논고》의 ‘자서’에서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언어학 연구의 올바른 방법을 천명하였다. 이론언어학의 토대가 없는 개별언어학이란 생각할 수 없다. 어느 이론이나 학설도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포착하여 봄으로써만 진정한 이해가 가능하다. 보다 높은 차원에서 시야를 넓혀야 비판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선생님은 여러 언어 이론이나 각 학파의 이론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고 중용의 태도를 취하는 연구 방법을 강조하였다. 선생님은 강의 때마다 언어학도는 처음부터 어떤 선입관에 사로잡히는 것을 피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방향을 스스로 정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선생님은 일반언어학뿐만 아니라 개별언어의 연구도 강조하였다. 언어학자는 일정한 수준의 어느 개별언어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만 개별언어의 기술은 물론 일반언어학으로의 전개가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스스로 몽골어를 개별언어로서 연구한 것이다. 한국어의 계통을 연구하고 또한 한국어의 음운사, 문법사에 관심을 가진 것 또한 그러하다. 이제 이러한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이룩한 선생님의 학문을 다음과 같은 분야로 나누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 ① 일반언어학과 언어학사 연구
- ② 역사비교언어학 연구
- ③ 알타이어언어학과 몽골어학 연구
- ④ 한국어의 계통과 역사 연구

3. 일반언어학과 언어학사 연구

선생님의 일반언어학과 언어학사에 관한 대표적인 저서에는 1970년의 《언어학논고》와 1985년의 《언어학논고(Ⅱ)》가 있다. 이를 1999년에 《언어학논고》로 합본하여 발간하였다. 《언어학논고》(1970)는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에 걸쳐 발표한 논문 가운데서 언어의 본질, 구조, 연구 방법과 원리 등, 특히 소쉬르의 구조주의언어학, 프라그학과 이론, 미국의 구조주의언어학, 변형생성문법에 이르기까지 일반언어학 이론에 관한 논문을 포함한 것이다.

특히 <언어학의 이론과 방법>은 19세기 초부터 구조주의 이전까지의 언어학 연구사이다. 19세기의 고전비교언어학, 젊은이문법학과, 심리주의언어학, 20세기 초기의 언어지리학을 비롯한 다양한 언어 이론을 해설하였다. <현대 언어학의 경향>은 구조주의 이후의 연구 경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고찰한 것으로, 소쉬르의 언어 이론, 음운 연구, 언어 분석과 층위, 영국의 언어학, 미국의 언어학, 덴마크의 언어학, 그리고 통시 음운론을 분석하였다. <현대 언어학의 언어 구조의 개념>은 당시 언어학 논저에서 구조나 체계라는 용어가 일정한 개념 규정 없이 서로 혼용되어 쓰인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구조’의 개념을 정확히 규명하였다.

《언어학논고》(1970)가 주로 언어의 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다룬 데 비해 《언어학논고(Ⅱ)》(1985)에서는 현대 언어학에서 제기되는 핵심 과

제에 중점을 두었다. 어떤 학문 분야에서 어느 특정한 분야의 연구가 활발해졌다고 해서, 다른 분야의 연구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않는 한, 그 학문 전체에 대한 연구가 발전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 언어학계의 균형적인 발전을 강조하였다. 이 책에는 김방한 선생님의 언어관과 언어 연구관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아울러 페르디낭 드 소쉬르, 로만 야콥슨, 앙드레 마르티네, 노뮈 촘스키에 대한 언어학사적인 서술이 전개되어 있다.

1953년부터 오랜 동안 ‘언어학사’를 강의하면서 선생님은 언어학사 저술을 계획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선 1982년에 밀카 이비츠의 《언어학사》를 번역하여 발간하였다. 언어에 관련된 모든 연구 분야와 여러 학파의 다양한 이론을 이해하는 데에 꼭 맞는 것이 이비츠의 책이라 회고한 바 있다.

김방한 선생님의 일반언어학의 기반은 소쉬르의 《일반언어학강의》(1916)이다. 소쉬르에 대한 연구는 선생님의 논저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1998년 《소쉬르: 현대 언어학의 원류》를 발간하여 마무리하였다. 이 책에서 언어의 본질과 소쉬르의 연구 정신을 보이려 하였다.

한편 선생님은 언어학 개설서를 집필하려는 의지가 강하였다. 언어학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과 언어의 본질과 구조에 관심을 가지는 일반 교양인들이 흥미를 가지고 언어학 전반을 쉽게 접근하여 이해할 수 있는 개설서를 집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생각의 결실은 먼저 공저로 두 권의 책을 발간하였다. 1985년의 《언어학개론》, 《일반언어학》이 그것이다. 1992년에는 단독 저술로 《언어학의 이해》를 발간하였다. 전통 언어학 이론과 현대 언어학 이론 어디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책을 의도하였다. 여러 이론들은 전적으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상보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이론에 입각하기보다는 다양한 이론을 두루 살펴 제시하였다.

4. 역사비교언어학 연구

김방한 선생님의 주된 연구 대상은 알타이어언어학이다. 알타이어언어학 연구를 위해서는 인도유럽어를 기반으로 하는 역사비교언어학을 연구해야 한다는 기본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늘 역사비교언어학의 이론 연구에서 손 댄 적이 없었다.

인도유럽어 역사비교언어학에서 출발한 선생님의 역사비교언어학 연구는 그 방향을 점차 확대해서 나중에는 어원론, 선사언어학에 이르렀다. 그래서 역사비교언어학은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공시태와 통시태의 관계, 역사언어학에서의 설명의 문제, 언어 변화의 원인, 언어 변화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언어유형론과 역사언어학과의 관계 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바로 역사비교언어학의 관심 영역의 추이와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 특히, 역사통사론, 언어유형론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역사비교언어학에 관한 저서 가운데 대표적인 두 저서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1988년에 발간한 《역사비교언어학》이다. 이 책은 어느 한 이론에 입각해서 언어 변화의 통일된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 이론을 두루 살피면서, 될 수 있는 한 그 장단점을 비교·검토하려 하였다. 구체적으로 역사언어학과 ‘설명’, 음 변화, 형태 변화와 유추, 통사 변화, 내적 재구, 비교 재구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 책에서 언어연대학과 의미 변화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언어연대학은 근거가 희박하고 이론이 불합리하여 특히 수치로 표시할 수 없는 것을 수치화하려는 데 큰 위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의미 변화의 역사적 접근은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첫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1994년에 발간한 《언어와 역사》는 그동안 ‘역사비교언어학’을 강의하면서, 또 알타이어언어학과 한국어 계통을 연구하면서 제기된 여러 가지

방법론적 문제를 고찰한 연구이다. 특히 언어학이 고고학이나 선사학 등과 접목되어 연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아울러 인도유럽어 비교언어학에서 어떤 언어 요소가 어떻게 비교되고 또 어떻게 재구되는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5. 알타이어언어학과 몽골어학 연구

알타이어언어학에 관한 김방한 선생님의 대표적인 논문은 <Altai어에 있어서의 보충법에 관한 고찰>(1963), <Relation between Korean and the Altaic languages>(1970), <알타이제어 연구의 동향>(1979) 등이다.

김방한 선생님의 주된 개별언어 연구는 몽골어이다. 몽골어와 한국어의 음운, 문법 비교에 많은 힘을 기울였고, 《황금사(黃金史, Altan Tobči)》로 대표되는 몽골 고전의 번역과 몽골어의 음운과 어휘 연구에 힘썼다. 몽골어학 연구에 대한 주요 논문은 1999년에 발간한 《몽골어연구》에 다시 수록되어 있다.

몽골어 연구의 첫 논문은 1957년의 <『원조비사』 몽고어연구 - 그 문법체계를 위한 시도 ->인데 탈격 용례에 보이는 몇 가지 특징을 밝혔다. 그리고 초기의 일련의 몽골어 관련 논문을 통해 한국어의 주격조사의 기원을 밝히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알타이어에서 주격이 '영(zero)' 형태로 실현된다는 공통 특질을 기반으로 삼아 중세 한국어에서 확인되는 주격조사 '이'의 기원을 3인칭대명사에 두었다. 《몽어노걸대》에 나타나는 i를 포폐와 같이 대격으로 보지 않고 3인칭대명사의 주격 형태 i가 화석화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몽골어, 터키어, 한국어의 인칭대명사를 비교하여 알타이어의 1인칭대명사 복수형은 단수형인 *bi에 복수접미사가 첨가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으며, 한국어의 1인칭대명사 복수형 '우리'를 *buri로 재구하여 알타이

어와 같은 기원임을 제기하였다.

《몽골어연구》(1999)에 실린 논문들은 1950년대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몽골어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ltan Tobči 연구>는 황금사 몽골어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로서 이본과 내용 검토를 통해 편술 연대의 범위를 1604-1630년으로 한정하였으며, 음운, 형태, 통사 특징을 밝혔다. <원시 몽골어의 장모음에 대하여>는 원시 몽골어의 장모음 연구를 통해서 몽구오르 방언과 통구스어의 솔론 방언에 차용된 몽골어 어휘들을 연구하였다. <몽구오르 방언의 어두자음군에 관하여>는 어두자음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몽구오르 방언의 어두자음군은 악센트가 어두음절에서 비어두의 다른 위치로 완전히 이동한 단어에서 악센트의 보호를 받지 않는 제1음절 모음 및 어두 모음이 탈락하여 나타나게 된 것임을 밝혔다. <몽구오르 방언의 차용어에 대하여>는 몽구오르 방언에 들어온 중국어, 티베트어, 만주어를 품사별로 살핀 연구이다.

6. 한국어의 계통과 역사 연구

한국어에 대한 김방한 선생님의 대표적인 연구 분야는 계통 연구이다. 알타이어언어학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섭렵한 뒤 이를 체계화하고, 여기에 한국어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 계통 연구를 전개하였다.

람스테트가 한국어 계통이 알타이어족임을 분명히 한 이후 국내 학자들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한 논문이 바로 김방한 선생님의 <한국어 계통 연구의 문제점>(1976)이다. 이 논문은 다른 연구자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포페가 그의 저서 《Introduction to Altaic Linguistics》(1965)에서 한국어는 원래 비알타이어였던 것이 알타이어를 사용하던 층에 없었던 것일 수 있다고 한 것을

바탕으로 김방한 선생님은 언어학적으로 한국어의 계통 관계가 쉽사리 밝혀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어서 한국어에 있는 비알타이어 요소를 찾기 시작하였고 그 시야는 고아시아족 언어인 길리아크어에 미쳤다. 여기서 선생님의 한국어 계통 연구는 구체화되었다.

1983년 《한국어의 계통》이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 1》이란 저서로 발간되었다. 이 저서는 한국어 계통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 보면서 그동안 선생님이 발표하였던 논문을 체계화하고 한국어 계통에 관한 선생님의 이론을 제시한 것이다. 평소에 생각해 왔던 한국어는 어디서 왔으며 그 뿌리는 무엇인가, 또 한국 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다른 어떤 언어와 친근 관계가 있으며 또 한국어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한 것이다.

저서 《한국어의 계통》에서 제시한 선생님의 계통 연구의 의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의 계통 문제이다. 저서 제4장에서 한국어와 알타이어를 음운, 형태 어휘 면에서 비교하고 공통 요소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음운 대응에 주목하였다. 아직 음운 체계 전반에 걸친 음운 대응을 정확하게 공식화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그 대응 규칙을 확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어와 알타이어의 친근 관계를 가정하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를 제시했다. 다만 그 증거가 앞으로 더 보강되고 더욱 정밀화되어야 하겠지만 이 연구를 통해서 한국어의 계통의 윤곽이 대체로 드러났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몇몇 학자는 한국어와 알타이어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한국어의 위치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한국어의 위치가 도식화할 정도로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필자의 지금 생각으로는 한국어가 퉁구스제어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을 개연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원시한반도어 문제이다. 선생님은 저서 제3장에서 고대 한반도에

는 계통을 달리하는 몇 가지 언어가 존재했을 개연성이 있음을 여러 각도에서 고찰하였다. 그리고 고대 한반도의 언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옛 지명이 보여 주는 바에 따라 두 언어층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옛 지명은 한반도의 언어가 알타이어화된 상태를 보여 주는 동시에 어떤 알 수 없는 언어의 기층이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고대 한반도에는 원시한반도어라 부르는 기층 언어가 있다고 하였다. “삼국사기 지리지의 지명에서 추정되는 언어에는 두 언어층이 있다. 하나는 통구스어계의 언어층이고 또 하나는 어떤 불명의 언어층이다. 이 불명의 언어층이 바로 필자가 원시한반도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원시한반도어는 한반도 전역 혹은 중부와 남부에 걸쳐 분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원시한반도어를 기층으로 하여 그 위에 알타이어계의 언어가 얹힌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지명에서 추정되는 언어인 것이다.”

셋째는 앞으로의 계통 연구의 과제이다. 한국어와 이웃 언어 사이의 친근 관계에 대한 증거가 더욱 보강되어야 한다는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많은 대응 예를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설명적 장치로서 원시한반도어라는 기층 가설은 포폐가 언급한 비알타이어 요소의 한 가치를 구체화한 것으로 앞으로 증명되어야 할 가설이라 하였다.

7. 김방한 선생님을 기리며

학창 시절, 선생님께서는 퇴근길에 우리들에게 자주 저녁을 사 주셨다. 중국 음식도 사 주셨고, 돈가스를 좋아하셨던지 그것도 자주 사 주셨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무렵 봉천동에서 이름난 ‘가을비 우산 속’이란 맥줏집에도 종종 데려가셨고, 시청 앞 ‘우전’이라는 일식집에도 즐겨 데려가셨다. 이미자의 <울어라 열풍아>를 좋아하신다는 말씀도 그때 하셨다. 늘 잔잔한

미소와 온화한 선비의 마음으로.

선생님을 처음 교실에서 뵈는 이래, 교실 안에서 그리고 교실 밖에서 30년 가까이 선생님을 모셨다. 학문적으로 입은 은혜 물론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잔잔한 미소와 온화한 마음과 함께 보내 주신 인간적인 선생님의 가르치심은 더욱 깊고도 높다.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 글을 맺을까 한다.

내가 강의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강의 방법이 둘 있다. 하나는 강의 시작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지각을 허용하지 않는 일이다. 지성인이라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이다. 또 하나는 필기하는 방법을 첫 시간에 알려 주고 학기 내내 노트를 확인하는 일이다. 노트 한쪽 면은 강의 내용을 정리하라 하고 나머지 한쪽 면은 각자가 강의 내용과 관련된 참고 문헌을 찾아 공부하여 보충하라고 한다. 이 두 가지는 바로 김방한 선생님께서 배운 강의 방법 그대로이다.

국어기본법 지키려 헌재 법정에 서다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국어기본법을 상대로 삼은 위헌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 변론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건 2016년 3월 22일의 일이었다. 어디 행사에 갔던 우리 연대 정인환 위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사람에게서 이 소식을 듣고 내게 알린 것이다. 얼마 후 문체부 국어정책과에서 이 공개 변론에 참고인으로 나서 달라고 부탁하는 전화가 왔다. 한자혼용을 주장하던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전통문화연구회, 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등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2012년 10월 22일에 국어기본법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3년 반 만에 공개 변론이 열리게 된 것이다. 사건번호는 2012헌마854.

청구인들은 ‘한자는 국자(나라글자), 우리 문자’라는 주장에서 출발하여 네 가지 사안에 위헌 확인을 요구하였다. 첫째, 국어기본법 제3조(정의),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제16조(국어정보화의 촉진)에서 국어를 표기하는 문자로 한자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한글전용·한자 배척의 언어생활을 강요하므로,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둘째,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공문서를 한글로만 작성하도록 하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 셋째, 국어기본법 제18조(교과용도서의 어문규범 준수)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에서 초·중등학교의 교과용도서에 한자혼용을 금

지하여 학습권과 수업권,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 넷째,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 중 ‘학교 급별 교육 과정 편성과 운영’ 부분은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한자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 현재에서는 둘째 사안을 ‘공문서 조항’, 넷째 사안을 ‘한자 관련 고시’라고 불렀다.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박성철 변호사는 이 공개 변론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소감으로 대책 회의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모든 사건에서 공개 변론을 여는 게 아니라 대체로 사회적 논란이 심할 거라 보이는 사건에 한하여 1년에 10여 건의 공개 변론을 연다고 한다. 그런데 3년 넘게 사건을 묵히다가 공개 변론을 여는 것도 그렇고, 1명씩 세우던 양쪽 참고인을 2명씩 요청한 것도 처음이라고 하였다. 청구인들의 요구를 헌재가 받아들인 결과였다. 문체부에서는 국립국어원장을 지냈고 막 한글학회장에 취임하신 권재일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님을 또 다른 참고인으로 모셨다.

설마 헌재에서 세상을 거꾸로 돌리는 판결을 내리겠냐고 전망하면서도, 헌법소원은 어떤 결정이 나든 돌이키기 어려우니 우리에게 이런 이례적인 점들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다. 특히나 청구인들 변호인은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인데다, 시기도 그다지 좋지 않아 보였다. 2014년 교육부에서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를 검토하겠노라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잠시 유보한 때라 도무지 긴장을 풀 수 없었다. 이 위헌심판 청구인들의 논리는 2014년부터 교육부에서 초등 한자 교육 강화를 검토하던 논리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둘 사이의 차이는 한자혼용이나 한자병기냐, 초등 저학년부터냐 고학년부터냐 따위 양적인 부분일 뿐이고, ‘한글전용의 폐해, 문해력 저하, 동음이의어 처리의 어려움, 한자 문화권 교류의 필요’ 등의 근거 논리는 모두 같았다. 이 심판 청구인들이 교육부에도 정치적 압력을 가했던 것이다. 혹시라도 이 재판이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 확대를 가는 징검다리

노릇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다.

현재에서는 4월 말까지 변론 요지와 참고인 의견서를 내달라고 하여, 준비할 시간도 넉넉하지 않았다. 청구인들이 처음에 낸 심판청구서는 1백 쪽이 넘고, 그 뒤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대리인들의 변론서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낸 보충의견서 역시 1백 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다. 그저 읽는 데만도 꽤 긴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다. 짧은 기간에 참으로 난감했다. 더구나 나는 자판을 쳐서 글을 쓸 수는 있어도 내가 쓴 글조차 제대로 읽을 수 없는 1급 시각장애인이다. 그런데 200쪽이 넘는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니…….

게다가 내 의견만 밝히는 형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을 인용하고 반박하는 논쟁적인 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터라 의견서 작성은 더더욱 힘든 일이었다. 나의 논리 전개에 맞춰 청구인들의 글 가운데 인용할 대목들을 배치하는 수고를 피할 수 없었다. 나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서와 보충의견서에서 인용할 만한 글을 하나하나 따내고, 인용문 조각들을 내 논리 전개 흐름에 따라 분류한 뒤, 글을 쓰면서 인용문의 위치와 반박 논리를 수없이 조정했다. 약간 남아 있는 시력을 온통 쏟아부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글쓰기였다.

내 의견서는 애초 예상보다 길어져 무려 120여 쪽에 이르렀다. 단 한 차례 공개 변론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니 무엇 하나 가벼이 넘길 수가 없었다. 정말 막판에는 밤을 새워 가며 글을 쓰고 고치고 했다. 그런데 나는 나의 이 고통스러운 작업 과정이야말로 청구인들의 핵심적인 주장, 즉 한자어는 한자로 적어야 뜻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그들이 도무지 방어할 수 없는 강력한 반증이라는 사실을 공개 변론 전날에 깨달았다. 나는 그들의 청구서를 눈으로 읽은 게 아니라 소리로 바꾸어 귀로 들었고, 내 의견서 역시 글자를 소리로 바꾸어 귀로 들어가며 고치고 또 고쳤던 것이다. 아홉 분의 재판관 앞에서 나는 이렇게 공개 변론을 시작했다.¹⁾

1) 이 공개 변론은 현재 누리집 '변론 동영상'에서 변론 날짜(2016년 5월 12일)로 검색하면 볼 수 있다.

“저는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저는 중학교부터 한문 과목에서 한자를 공부했습니다. 지금 저는 한자뿐만 아니라 한글도 읽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청구인들이 냈던 아주 긴 심판청구서와 보충의견서를 저는 음성 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동음이의어도 있었고 제가 모르는 낱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성 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소리로 듣고 그 뜻을, 그리고 문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모르는 낱말은 옆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사전을 찾아서 이해했습니다. 한자 어렵고 해서 한자로 표기되지 않으면 뜻을 알 수 없을까요? 저는 이런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로 이해할 수 있는 한자어 낱말을 왜 그 낱말 소리대로, 한글로 적었을 때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청구인들은 그리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단적으로 중국의 시각장애인들 예를 들어 보죠.

중국은 분명히 한자라는 표의문자를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누구나 다 표의문자를 쓰고, 중국의 모든 말은 표의문자에 근거한 낱말들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시각장애인들은 표의문자인 한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중국어 낱말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화와 체험을 통해서, 남의 설명과 자신의 사용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의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중국에서 사용하는 점자는 어떤 것일까요? 많은 사람이 표의문자의 원리일 거라 추측하겠지만, 중국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는 전적으로 표음문자 원리에 입각해 있습니다. 중국의 시각장애인들은 표음원리의 점자를 이용하여 중국어로 된 책을 읽는 거죠. 무슨 말씀이나 하면 우리가 말로 사용하는 단어, 말을 사용하는 경험들이 실제로 문자로 되어 있는 단어를 읽는 경험보다 앞서고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 참고인 진술 내용 중

다들 20쪽 미만이었는데, 120쪽 가까운 방대한 의견서를 낸 참고인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헌법재판관들은 매우 깊은 관심을 보였고, 나중에 박한철 헌재 소장은 내게 존경의 마음까지 표현하는 바람에

꽤나 쑥스러웠다. 어쨌거나 시작은 성공이었다. 문제는 논쟁의 구도였다. 한자혼용 표기와 한자 교육 강화가 필요하나 아니냐가 이 심판 사건의 요지이고, 두 사안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로 갈라지는 참으로 오래된 논쟁 구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사실, 2013년 봄에 문체부에서 처음 변론서를 준비할 때만 해도 나는 한자 문제의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했었다. ‘한자 표기 강화’와 ‘한자 교육 강화’가 어떻게 다른 효과를 내는지 잘 분간하지 못했다. 청구인들의 문제의식이 매우 혼란스럽다는 점을 깨달은 것은 2014년 10월 31일에 헌법 재판소에 ‘참고자료’라는 제목으로 내 의견서를 내면서였다. 이 자료에 바탕을 두고 그 뒤로 1년 넘게 교육부와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 문제로 논란을 펼치면서 내 문제의식은 더 날카로워졌고, 그 경험을 종합해 나는 2016년 1월에 《한자 신기루: 한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단행본을 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요모조모 반박할 자료와 증거, 논리는 충분했다. 하지만 그렇게 청구인들의 주장을 따라가면서 비판하다 보면, 그들이 만든 틀 안에 갇힐 위험이 높다. 미국의 인지 언어학자 레이코프가 말한 ‘프레임 전쟁’이 여기서도 벌어지는 것이다.

나는 공개 변론 전날까지 이 문제를 아주 끈질기게 고민했다. 의견서는 5월 2일에 제출했지만, 그 의견서에서도 명확하게 나의 ‘논쟁 구도’를 밝히지 못한 게 못내 짊어졌다. 공개 변론에서는 먼저 10분 동안 참고인의 의견을 요약하여 말해야 한다. 밋밋하고 장황하게 이것저것 말할 게 아니라 논쟁의 구도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재판관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 텐데, 참으로 초조했다. 난 내가 쓴 의견서를 다시 들고 또 들었다. 의견서 첫머리에서 지적했듯이, 청구인들의 주장은 참으로 혼란스러웠다. 원칙적으로 한자어는 한자로 적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전제인데, 여기서는 그리 말하다가도 저기서는 말을 바꾼다. 모든 한자어를 한자로 표기하자는 건 아니며, 특정 영역에서 한글전용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다. 사실 그쪽으로 무게가 쏠려 있었다. 물론 그러면서도 한자혼용이 필요함을 다시 주장하고…….

난 이 혼란이 어디에서 오는지 헤아려 보았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개인적 혼란이 아닐 거라는 깨달음이 어느 순간 내 머리를 쳤다. 그렇다. 한자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그들 역시 헛갈리고 있었고, 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대다수에게 마찬가지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 혼란은 공개 변론 당시 청구인 쪽 대리인과 참고인 진술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나는 머리를 쥐어짜던 막바지에 이 혼란을 ‘필수:교양’이라는 구도로 정의하여 그 실체를 분석하기로 마음먹었던 터라, 참으로 다행이다 싶었다.

“저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는 건지 몇 번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의 선택은 ‘한자를 모른다면 우리는 절대 한자어의 뜻을 모른다’는 논리에서 이어지는 결론입니다. 이때 한자를 모른다 함은 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자로 표기하지 않으면 한자어 뜻을 알 수 없다라는 주장이라면 우리의 문자 생활은 전적으로 국한문혼용으로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청구인들이 그렇게 주장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일본이나 중국처럼 반드시 한자 교육을 철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한자를 알면 한자어 낱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한자를 알면서 글자를 쓰지 못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자의 그 뜻은 알고 있다든지 또는 대강 유추를 할 수 있다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한자를 알면 한자어 낱말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 이런 차원이라면 한자를 ‘교양’으로서, 특히 예로부터 내려왔던 고급 교양 문화로서 한자를 생각하고 거기에 걸맞게 한자를 대우하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구인들은 공문서에서 한자혼용을 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말자는 것인가. 그냥 교육만 잘 시키면 된다는 것인가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참고인 중에 한 분께서 ‘한글전용으로 하다가 필요할 때 한자혼용을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

면 그 필요는 누가 정할까요. 저는 공문서는 학력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봐야 하는, 볼 수 있는 문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문서는 정부에서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그 공문서를 작성하는데, 어떤 공무원은 100% 한자를 혼용하고, 어떤 공무원은 1%만 한자를 혼용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100%의 한자혼용을 할 수도 있는 공무원에 대비해서 100% 한자혼용에 적합한 한자 능력을 반드시 갖추어야만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혼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생활에서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그리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공문서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정부의 정책을 알리는 거고 그 정책을 통해서 국민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또는 자기가 어떤 손해를 볼 수 있고 어떤 이익을 볼 수 있고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청구인들의 보충의견서에 나왔듯이 ‘적정한 수준의 한자혼용’이라고 설명되어서는, 그리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 참고인 진술 내용 중

나는 청구인들의 모호한 주장대로 공문서에 한자혼용을 허용한다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한자 위주의 문서 읽기를 ‘필수’로 강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제약하는 결과를 부르리라고 경고하였다. 한자를 ‘교양’ 수준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 논리적 귀결은 일본과 같은 국한문혼용 문자 생활일 수밖에 없음을 밝힌 것이다. 그다음에는 청구인들의 관심이 한자 모양 익히기에 있는지, 한자어 뜻 이해에 맞춰져 있는지 그들의 혼란을 더 명료하게 밝히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공개 변론 현장에서 청구인 쪽 대리인과 참고인들은 한자혼용이라는 ‘한자 표기’에 집착하면서 정작 현실의 문제점으로는 한글 세대가 한자어 낱말의 뜻을 모른다는 이야기만 쏟아 놓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한자어 낱말의 뜻을 가르치는 교육 방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엉뚱하게도 문자 표기 문제를 걸고넘어진 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한글전용 때문에 문해력이 낮아졌다는

청구인들의 근거 없는 주장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의거하여 비판한 뒤, 한자 어원 풀이로 낱말 뜻을 가르치려는 접근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참으로 안타까웠다. 나는 이미 ‘한자어의 뜻이 구성 한자의 훈을 기계적으로 결합하여 얻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논리를 제법 체계화하여 《한자 신기루》에서 한자 조합의 대표적인 유형 몇 가지를 제시했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각 유형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아직 계량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상태였다. 2015년 말에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학교 교사들과 함께 초·중·고 3~6학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한자어를 샅샅이 뽑아 놓았지만, 아직 분류하지 못한 상태였다. 현재 재판관들이 ‘기계적 결합’이라는 나의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내 논리를 청구인 쪽 대리인과 참고인에게 들이대며 질문을 던지는 마당에, 한자 훈을 더하여 낱말 뜻에 도달할 수 없는 한자어가 많다는 구체적인 통계를 낸다면 청구인들의 주장 상당 부분을 물리칠 수 있었으련만…….

결국 이 작업은 현재 공개 변론 뒤부터 시작되어, 9월 23일야 ‘한자어의 이해 과정과 어원 지식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한글문화연대 토론회에서 마무리되었다. 특히 수학 용어에 관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초·중·등 수학 용어를 분석한 광운대학교 수학과 허민 교수님의 연구가 있었기에 나는 국어, 사회, 과학, 도덕의 한자어만 분류하여 결과를 냈다. 구성 한자의 훈과 낱말 사이에 상관성이 높은 것은 32%뿐이고, 나머지 한자어는 상관성이 매우 낮거나 동어 반복에, 자칫하면 잘못된 개념에 이를 수 있는 낱말이었다. 수학자 허민 교수에 따르자면 수학 용어 가운데 한자가 도움이 되는 것은 21%뿐이었다. 한자어 교육에 한자 지식을 동원하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통계였다. 나는 이 연구 결과를 헌법재판소에 참고인 보충의견서로 제출하였다.

2016년 11월 24일, 헌재는 이 헌법소원 사건의 판결을 내렸다. 국어기본법의 공문서 한글전용을 밝힌 ‘공문서 조항’과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한자/한문 교육의 선택 과목화를 담은 ‘한자 관련 고시’에 위헌 확인을 청구한 두 가지는 기각하고 나머지는 모두 각하하였다. 공문서의 한글전용에 대해 헌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이 사건 공문서 조항은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여 공적 영역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확보하고 효율적·경제적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들은 공문서를 통하여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으므로 한자혼용 방식에 비하여 특별히 한자어의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문서 조항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헌법재판소, ‘2012헌마854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 확인 사건 판결 요지’ 중에서(2016. 11. 24.)

각하한 사안과 한글전용에 관한 기각 판결은 재판관 전원 일치였으며, 한자 교육 관련 고시에 대해서는 위헌 의견을 낸 4명이 있었지만 5:4로 기각하였다. ‘한자 관련 고시에 대한 기각’ 이유를 밝힌 다음 대목은 한자에 관한 과장 광고를 차분히 비판하고 있어서 눈여겨볼 만하다.

“한자어는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낱말에 담긴 뜻은 결국 그 단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실제 생활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 정확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낱말이 한자로 어떻게 표기되는지를 아는 것이

어휘 능력 향상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독해력이나 사고력의 향상도 근본적으로는 꾸준한 독서와 다양한 경험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한자 지식이라는 하나의 요소가 학생들의 독해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헌법재판소, ‘2012헌마854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 확인 사건 판결 요지’ 중에서(2016. 11. 24.)

게다가 ‘한자 관련 고시에 대한 반대 의견(재판관 박한철,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에서도 문제가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있지 않음을, 즉 중고교 한자 교육부터 먼저 정상화하여야 함을 수차례 밝혔던 나의 생각과 비슷한 견해를 이렇게 말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모국어의 기초 낱말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우리글의 기본과 언어 예절, 대화 방법 등 기초적인 언어 학습을 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한자 교육을 한글 교육과 동시에 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은 우리말과 글에 대한 이해와 사용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로, 한자 교육이 한글 학습이나 기초적인 언어 습관 형성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적절한 수준의 한자 교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전통에 대한 이해와 사고를 기르고, 우리말의 어휘력을 향상시키며, 각 교과 과목의 필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중략) 최소한 중고등학교에서부터 기본적인 한자 지식을 갖추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에서는 보다 심화된 내용의 한자 학습과 학문적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헌법재판소, ‘2012헌마854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 확인 사건 판결 요지’ 중에서(2016. 11. 24.)

숨죽이고 판결을 듣던 나는 환호성을 지를 수도 없는 분위기 때문에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와 미리 준비해 간 한글문화연대 논평을 법정 건물 앞에서 발표했다. 언론에도 바로 뿌린 논평에서는 이 판결의 의미를 다음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이 판결은 일부 식자층 위주의 말글살이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말글살이가 중요하다는 ‘언어 인권’ 정신이 우리나라에 뿌리내림을 뜻한다. 둘째, 이 판결은 우리 한민족의 문자 역사가 19세기 말부터 대략 1백여 년의 과도기를 거쳐 한자 시대에서 한글 시대로 완벽하게 옮겨왔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셋째, 청구인들과 동일한 논리를 펼치는 지나친 한자 숭상론이 더 이상 우리 교육을 망가뜨려선 안 된다는 주장의 올바름을 확인해 준 것이다.”

— 한글문화연대 논평 중에서(2016. 11. 24.)

우리 사회에서 한번은 제대로 짚고 넘어갈 일이었으므로, 나는 현재의 이번 공개 변론과 판결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믿는다. 넓은 시야로 보자면, 한자혼용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일종의 과도기 혼란이다. 국한문혼용이라는 표기 방식은 우리 선조들이 사용한 일반적인 문체가 아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말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한자로 기록했고, 이 ‘한문’이 19세기 말까지 주된 문체였다. 말의 순서와 글의 순서, 말의 표현과 글의 표현이 달랐던 것이다. 이런 번역 시대로부터 말과 글이 순서와 표현 모두 일치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1백 년가량 국한문혼용이라는 문체가 주로 사용된 것이다. 한자를 사용하여 한문 번역 생활을 하던 지식인들이 당연히 자신에게 익숙한 한자를 버리지 못하고 국한문혼용으로 옮겨간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변화일지도 모른다. 그 과도기에 어린 시절의 호기심과 젊은 날의 총명함을 모두 바쳐 글을 읽고 쓰던 분들 입장에서 요즘의 한글전용은 참으로 걱정스러운 삶의 방식이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열정적으로 살던 시대의 삶의 방식, 생각의 방식을 자연스럽게 진실하며 가장 사람다운 것이라고 여긴다. 누구에게나 ‘그때가 좋았던’ 바로 그때가 있다. 그것은 자기 삶의 정체성과 정당성의 표출이니, 어찌 이를 그저 탓하기만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세상은 바뀌고 사람살이도 변한다는 점만은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자연스러운 세상의 움직임을 돌이키려는 시도가 바로 한자어로 ‘반동(돌이킬 반反, 움직일 동動)’이다. 대부분 노년 세대인 청구인들의 걱정이 그저 헛되거나 사리사욕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 이분들의 걱정이 반동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젊은 세대와 꾸준히 대화하면서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들을 믿어야 할 것 같다. 미래는 미래 세대에게 맡겨야 한다.

국립국어원 소식

1. 2016년 용역 사업 보고서 및 교재 목록(총 46건)

용역 사업명	연구 책임자/소속	사업 담당자
2016년 개방형 한국어 지식 통합 사전 다국어 사전 중국어판 구축	홍종선/ 고려대학교	박정아
2016년 개방형 한국어 지식 통합 사전 다국어 사전 통합 정비	정호정/한국외국어대학교	박정아
2016년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홍보	전상훈/ (주)이지스커뮤니케이션즈	위진
2016년 국립국어원 국어 정책 학술 대회 개최	박희중/ (주)유니커뮤니케이션즈	홍혜진
2016년 국어정책 통계 연보 구축	최경봉/원광대학교	홍혜진
2016년 남북 언어의식 조사	박종선/주한국리서치	이대성
2016년 남북 전문용어 구축	신종진/한양대학교	이대성
2016년 방송언어 개선 사업	정희창/성균관대학교	이윤미
2016년 북한어 말뭉치 구축	소강춘/전주대학교	이대성
2016년 신어 조사 및 사용 주기 조사	남길임/경북대학교	김형배
2016년 어문규범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윤을로/주다이렉스트	이대성
2016년 역사자료 종합 정비	황선엽/서울대학교	위진
2016년 전문용어 재분류	이지연/연세대학교	위진
2016년 주요 외국 인명과 지명의 한글 표기 구축	박한상/홍익대학교	박선
2016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구본관/서울대학교	이윤미
2016년 지역어 정보 활용 체계 구축	박철희/주씨엠월드	김문오
2016년 표준 국어 문법 개발	유현경/연세대학교	김문오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연계 활용 기능 개발 및 시스템 운영 통합 점검	윤철진/주다이렉스트	이현주
공공 용어 통합 운영 서비스 체계 구축	강락근/주다이렉스트	구지민
국군 장병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와 교육 자료 개발	박재현/상명대학교	최용기
국내 한국어교원 재교육 관련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해영/이화여자대학교	이보라미

용역 사업명	연구 책임자/소속	사업 담당자
국어 어휘 정리를 위한 언어 자원 구축·활용 기초 연구	김한샘/연세대학교	최정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점검 및 보완 연구	김종섭/경희대학교	이보라미
문화 정보 해설 한국수어 영상 자료 구축	윤병천/㈜한국농아인협회	이수미
분야별 화법 분석 및 향상 방안 연구(교사 대화법)	권순희/이화여자대학교	최용기
수형 기반 한국수어사전 구축	이준우/강남대학교	이수미
외한 번역의 후부 요소 표기 실태 조사	박기환/㈜팬트렌스넷	구지민
작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자료 개발	이삼형/한양대학교	최용기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최호철/고려대학교	김문오
점자 활용 규격 표준화 및 사용자별 교육 과정 개발 - 유니코드 표준을 고려한 점자·점형 체계 표준화 연구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수미
점자 활용 규격 표준화 및 사용자별 교육 과정 개발 - 점자 규격 표준(안) 개발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수미
점자 활용 규격 표준화 및 사용자별 교육 과정 개발 - 중도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 과정 개발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수미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연구	민병곤/서울대학교	강경림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윤철진/㈜다이케스트	황용주
한국어 학습자 맞춤형 연구 및 구축 사업	강현화/연세대학교	김수현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실태 조사 연구	이선웅/경희대학교	이보라미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	김창영/㈜월드리서치	박선
함께 가꾸는 우리말 우리꿈	민병곤/서울대학교	강경림
바르고 쉬운 공공언어(교재)		이기연
바르고 쉬운 어문규범(교재)		이기연
바른 국어 생활 - 교사 직무연수(교재)		서광철
바른 국어 생활 - 국어전문교육과정(교재)		최용기
쌍생 한국어(교재)		김수현
작문과 국어 능력 향상(교재)		최용기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위한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쑥쑥! 국어교실(교재)		이기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위한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쑥쑥! 국어교실(교재)		이기연

2. 2017년 제1회 국립국어원 원내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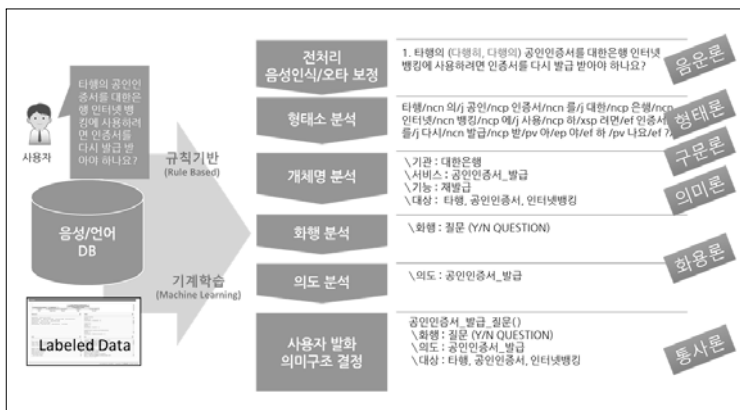
- 주제: 언어 처리를 적용한 인공지능(AI)
- 발표자: 김정선(다이렉스트 기술연구소장)
- 일시: 2017년 3월 27일(월) 16:00~18:00
- 장소: 국립국어원 3층 강의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국립국어원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 보기 위해 ‘언어 처리를 적용한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특히 근래 들어 거대 자료(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언어 처리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자연어 처리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발표는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대화 인터페이스’의 세 꼭지로 이루어졌다. 먼저 ‘인공지능’ 꼭지에서는 인공지능의 개요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 수 있었다.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총 세 번의 유행이 있었는데 추론·탐색 기술(1차), 지식(2차), 기계 학습 및 특징 표현 학습(3차)이 그것이다. 지금은 3차에 해당하는 기계 학습 및 특징 표현 학습 시대로 1차, 2차 때에 비해 훨씬 높은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의 기반은 거대 자료(빅데이터)이다.

그간 많은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정의하였다.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오류까지도 인정하는 시스템을 가리키는 입장과 ‘이성적, 합리적인’ 모습으로 오류를 용납하지 않는 시스템을 가리키는 입장으로 대분된다. 또 인지적인 관점의 ‘생각하는’ 시스템을 가리키는 입장과 공학적인 관점의 ‘행동하는’ 시스템을 가리키는 입장으로 나뉜다. 각각의 두 가지 관점이 상호 결부되어 네 가지의 입장을 보이는데, 언어 처리 분야는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두 번째 꼭지인 ‘자연어 처리’는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핵심 자연어 처리(Core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에 주목하여 ① 형태소 분석 ② 구문 분석 ③ 개체명 분석 ④ 화행 분석 ⑤ 의도 분석의 다섯 단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세 번째 꼭지인 ‘대화 인터페이스’에서는 기계 학습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수 있는 인공지능을 통해 인간과 기계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꾀하는 최근 업계의 연구 동향을 살폈다. 자연어 대화 인터페이스 연구 초기에는 개인의 디바이스나 서비스 기능 활용, 관심사 검색, 채팅 등을 지원하는 개인 비서봇이 주류를 이뤘으나, 현재는 금융이나 쇼핑 등의 영역에서 상담봇 형태로 상용화되고 있다. 또한 초기에는 주로 스마트폰 서비스 위주였으나 지금은 착용 가능한(웨어러블) 기기, 자동차, 로봇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발표가 끝난 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국립국어원이 다루고 있는 여러 문제를 인공지능과 언어 처리로 해결할 수 있는지 질문이 이어졌다. 기계 번역의 과정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립국어원이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질문으로 제기되었고, 발표자는 빈도와 사용성을 담보로 한 표준의 제정이 우선된다면 번역의 기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언어 처리를 통한 인공지능이 국립국어원의 정책 수행과 국민의 언어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상호 확인하며 토론회가 마무리되었다.

3. 「2016년 표준어 추가 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았던 ‘겉판지다, 겉올음, 까탈스럽다, 실뭉치, 엘랑, 주책이다’ 등 6항목의 어휘를 표준어 또는 표준형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2016년 표준어 추가 결과」를 발표하고 2017년 1월 1일 자로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main.jsp>)에 반영하였다. 복수 표준어 추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어규범정비위원회, 국어심의회 등 여러 단계의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국립국어원은 1988년 표준어 규정을 고시한 이후, 2011년에 처음으로 ‘먹거리, 손주, 짜장면’ 등 39항목을 복수 표준어로 추가한 바 있고, 2014년부터는 매년 복수 표준어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2014년에는 ‘꼬시다, 놀잇감, 섬췌’ 등 13항목이, 2015년에는 ‘이쁘다, 앞새, 푸르르다’ 등 11항목이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표준어로 인정한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현재 표준어와는 뜻이나 어감이 달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로서 모두 4항목이다. 그동안 ‘실뭉치’는 ‘실뭉당이’로 고쳐 써야 했으나 ‘실뭉치(실을 한데 뭉치거나 감은 덩이)’와 ‘실뭉당이(실을 풀기 좋게 공 모양으로 감은 뭉치)’는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뭉치’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이렇게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실뭉치, 겉판지다, 겉올음, 까탈스럽다’ 등이다.

둘째는, 비표준적인 것으로 다루어 왔던 표현 형식을 표준형으로 인정한 경우로서 모두 2항목이다. 그동안 ‘주책’에 ‘이다’가 붙은 ‘주책이다’는 잘못된 용법으로 다루어져 왔고 그 대신 ‘주책없다’를 쓰도록 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책이다’도 널리 쓰일 뿐만 아니라 문법적으로도 잘못되었다

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주책이다’도 표준형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그동안 ‘그곳엘랑’은 『표준어 규정』에 따라 ‘그곳에는’으로 고쳐 써야 했으나 ‘엘랑’ 역시 ‘에는’과는 어감상 차이가 있고 문법에 어긋난 표현도 아니므로 표준성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추가된 표준어 6항목은 2016년 11월 30일에 열린 국어심의회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된 것으로서, 그동안 국립국어원이 어문 규범과 《표준국어대사전》의 보완을 위해 시행해 온 어휘 사용 실태 조사와 말뭉치 검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고 표준어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것들을 선별한 것이다.

앞으로도 국립국어원은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및 여론 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규범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이 국어를 사용할 때에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 추가 표준어(4항목): 뜻이나 어감이 달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할 경우

추가 표준어	현재 표준어	뜻 차이
겉판지다	거방지다	겉판지다 [형용사] ① 매우 푸지다. ♣ 술상이 겉판지다 / 마침 눈먼 돈이 생긴 것도 있으니 오늘 저녁은 내가 겉판지게 사지. ② 동작이나 모양이 크고 어수선하다. ♣ 싸움판은 자못 겉판져서 구경거리였다. / 소리판은 옛날이 겉판지고 소리할 맛이 났었지.
		거방지다 [형용사] ① 몸집이 크다. ② 하는 짓이 점잖고 무계가 있다. ③ =겉판지다①.
겉울음	건울음	겉울음 [명사] ① 드러내 놓고 우는 울음. ♣ 꼭꼭 참고만 있다 보면 간혹 속울음이 겉울음 으로 터질 때가 있다. ② 마음에도 없이 겉으로만 우는 울음. ♣ 눈물도 안 나면서 슬픈 척 겉울음 울지 마.
		건울음 [명사] =강울음. 강울음 [명사] 눈물 없이 우는 울음, 또는 억지로 우는 울음.
까탈스럽다	까다롭다	까탈스럽다 [형용사] ① 조건, 규정 따위가 복잡하고 엄격하여 적응하거나 적용하기에 어려운 데가 있다. ‘가탈스럽다①’보다 센 느낌을 준다. ♣ 까탈스러운 공정을 거치다 / 규정을 까탈스럽게 정하다 / 가스레인지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에게 지루하고 까탈스러운 솥 굽기 작업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로 비칠 수도 있겠다. ② 성미나 취향 따위가 원만하지 않고 별스러워 맞춰 주기에 어려운 데가 있다. ‘가탈스럽다②’보다 센 느낌을 준다. ♣ 까탈스러운 입맛 / 성격이 까탈스럽다 / 딸아이는 사 준 옷이 맘에 안 든다고 까탈스럽게 굴었다. ※ 같은 계열의 ‘가탈스럽다’도 표준어로 인정함.
		까다롭다 [형용사] ① 조건 따위가 복잡하거나 엄격하여 다루기에 순탄하지 않다. ② 성미나 취향 따위가 원만하지 않고 별스럽게 까탈이 많다.
실몽치	실몽당이	실몽치 [명사] 실을 한데 몽치거나 감은 덩이. ♣ 뒤텁긴 실몽치 / 실몽치 를 풀다 / 그의 머릿속은 엉클어진 실몽치 같이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실몽당이 [명사] 실을 풀기 좋게 공 모양으로 감은 몽치.

◎ 추가 표준형(2항목): 비표준적인 것으로 다루어 오다가 표준형으로 인정한 경우

추가 표준형	현재 표준형	비고
엘랑	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어 규정 제25항에서 '에는'의 비표준형으로 규정해 온 '엘랑'을 표준형으로 인정함. ○ '엘랑' 외에도 '르랑'에 조사 또는 어미가 결합한 '에설랑, 설랑, -고설랑, -어설랑, -질랑'도 표준형으로 인정함. ○ '엘랑, -고설랑' 등은 단순한 조사/어미 결합형이므로 사전 표제어로는 다루지 않음. (예문) 서울엘랑 가지를 마오. 교실에설랑 떠들지 마라. 나를 앞에 앉혀놓고설랑 자기 아들 자랑만 하더라.
주책이다	주책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어 규정 제25항에 따라 '주책없다'의 비표준형으로 규정해 온 '주책이다'를 표준형으로 인정함. ○ '주책이다'는 '일정한 짓대가 없이 되는데로 하는 짓'을 뜻하는 '주책'에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은 말로 봄. ○ '주책이다'는 단순한 명사+조사 결합형이므로 사전 표제어로는 다루지 않음. (예문) 이제 와서 오래 전에 헤어진 그녀를 떠올리는 나 자신을 보며 '나도 참 주책이군' 하는 생각이 들었다.

4. 국립국어원, 「2016년 남북 언어의식 조사 결과」 발표

국립국어원은 남북 언어에 관한 우리 국민의 의식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남북 언어 통합 정책을 수립하고자 시행한 ‘2016년 남북 언어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조사 대상: 일반 주민(전국 성인) 2,021명, 북한이탈주민 305명, 북한이탈주민 접촉 주민* 200명, 남북 관계 전문가 50명
- * 북한이탈주민 접촉 주민: 일상생활이나 직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주민
- 조사 내용: 남북 언어에 대한 태도, 남북한 소통 문제, 통일 대비 언어 정책 등
- 조사 기간: 2016. 8. 8.~9. 19.(* 전문가 조사는 별도로 진행)
- 표집 오차: 95% 신뢰 수준, 오차 범위 $\pm 2.2\%p$ (* 일반 주민 대상 설문조사에 한함)
- 조사 방법: 대면 면접 조사
- 조사 기관: (주)한국리서치·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년 남북 언어의식 조사”는 그동안 학계와 정치권 및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남북 언어 이질화 문제와 언어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은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본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접촉 주민’을 따로 표본으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남북 언어의 접촉 경험과 언어 의식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번 설문조사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남북 언어 소통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의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통일 시기 언어 문제를 예상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주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일반 주민이 북한 말에 대해 가장 많이 연상되는 이미지는 ‘강하거나 세다’이며, 이외에 ‘낯설거나 이질감이 든다’, ‘다른 지역의 방언 같다’는 등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7명은 북한에서 남한 말을 접해 본 적이 있으며, 주요 인지 경로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62%로 가장 높았음.
- 일반 주민들은 북한 말에 대해서 ‘직설적이다, 순우리말을 많이 쓴다, 공격적이다’ 등의 인상을 주로 가지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말에 대해서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 비속어를 많이 쓴다, 빈말이나 가식적인 말을 많이 한다’ 등의 인상을 주로 가지고 있음.
- 일반 주민의 62%는 북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불편하고 낯설다’고 느끼고 14%만이 ‘편하고 친근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 접촉 주민의 38%가 ‘불편하고 낯설다’, 45%는 ‘편하고 친근하다’라고 응답한 것과 대조를 이룸. 남북 간 언어 접촉과 교류 빈도가 높아질수록 상호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질 것임을 알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7명은 북한 말씨 때문에 구직이나 이웃과의 교류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하였고, 일반 주민의 경우에는 약 7%가 출신 지역의 방언을 사용했을 때 사회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8명은 남한 말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남한 말에 충분히 익숙해지는 데 4~5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30%였으며, 6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도 50%가 넘음.
- 북한이탈주민은 존댓말이나 호칭, 지칭 등의 표현상 차이(42%)나 사과, 칭찬, 거절, 요청 등의 표현상 차이(39%)를 일반 주민(각각 21%, 18%)에 비해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통일 시기 언어 문제는 발음이나 어휘보다는 오히려 언어 문화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함.

- 일반 주민의 78%, 북한이탈주민의 66%는 남한 말을 기준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북한이탈주민 접촉 주민의 경우 50%는 남한 말을 기준으로, 46%는 새로운 기준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남북 언어 교류의 경험이 남북 언어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 언어 통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립국어원의 역할을 강화하거나(44%) ‘언어통합위원회’와 같은 총괄 기관이 필요하다는 응답(26%)이 높게 나타남.

이번 조사를 통해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 언어에 대한 풍부하고 올바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서로의 언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송철의 국립국어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남북 언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고, “앞으로 국립국어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남북 언어 통합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적극 활용할 것이며, 앞으로 남북 언어의식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인 조사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5. 국립국어원장, 사회 복지 시설 위문 봉사 활동 실시

국립국어원장(송철의)은 설을 맞이하여 따뜻한 사회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회 복지 시설을 방문하여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 일시: 2017. 1. 19.(목), 15:00
- 방문 시설: 우리 집(주간 단기 보호 시설)
※ 2013년 9월부터 매년 2회 지원 중
- 방문자: 원장, 이정희 사무관, 이진희 주무관

6. 국어문화학교, 제12회 강사연수회 추진

국어문화학교는 국어문화학교 강사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국어문화학교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제12회 강사연수회’를 추진하였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개편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국어문화학교 교육 과정의 발전 방안 등을 토의하였다.

- 연수회명: 국어문화학교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제12회 강사연수회
- 기간: 2017. 2. 15.(수)~2. 17.(금), 2박 3일(합숙)
- 장소: 대구예술발전소(강연), 대구 유니온호텔(숙박)
- 참가 인원: 국어문화학교 및 전국 국어문화원 강사 66명
- 주제: 국어문화학교 교육 과정 개편에 따른 이해도 제고
- 내용: 기조강연, 주제발표, 종합토론회 및 평가회, 문화예술행사
- 주관: 경북대학교 한국어문화원(원장: 김덕호 교수)

7. 2017년 상반기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운영 계획

7.1. 2017년 상반기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가. 교육 개요

- 내용: 어문 규범, 공문서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등 국어 관련 과목
20강좌 35시간
- 대상: 공무원/일반인
- 장소: 국립국어원
- 기간: 5일간(월~금), 비합숙

나. 교육 일정(2017년 상반기)

- 3월 1기(제346기): 2017. 3. 6.(월)~3. 10.(금)
- 3월 2기(제347기): 2017. 3. 13.(월)~3. 17.(금)
- 4월 1기(제348기): 2017. 4. 17.(월)~4. 21.(금)
- 4월 2기(제349기): 2017. 4. 24.(월)~4. 28.(금)
- 5월 1기(제350기): 2017. 5. 15.(월)~5. 19.(금)
- 5월 2기(제351기): 2017. 5. 22.(월)~5. 26.(금)
- 6월 1기(제352기): 2017. 6. 12.(월)~6. 16.(금)
- 6월 2기(제353기): 2017. 6. 19.(월)~6. 23.(금)

다. 수료생에게는 교육 훈련 점수(선택 전문 교육 훈련 과정, 35시간) 부여

라. 교육비(수강료): 100,000원(식비 20,000원 별도)/ * 일반인은 수강료 무료

마. 연락처: 02-2669-9662, 9729, 9752(전송: 02-2669-9787)

7.2.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강좌 소개

가. 어문 규범

- 어문 규범의 이해
- 한글 맞춤법의 이해
- 띄어쓰기의 이해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의 이해
- 한글 맞춤법 연습
-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기

나. 직무 역량

- 공공언어의 이해
- 보도자료의 이해와 실제
- 공공언어 바로 쓰기 연습
- 말 다듬기 및 쉬운 언어 쓰기
- 바른 문장 쓰기

다. 국어 문화·교양

- 수어의 이해
- 훈민정음의 이해
- 통일 시대의 국어
- 자기표현의 글쓰기
- 공감과 협력의 의사소통
- 매체와 읽기
- 언어란 무엇인가: 언어가 가지는 힘
- 국어사전의 이해와 활용
- 특강(문학과 예술)

8. 2017년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일정 공고

8.1. 2017년도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일정(3회)

구분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	비고
심사 계획 공고	'17. 2. 2.	'17. 7. 28.	'17. 11. 6.	
심사 신청 접수	'17. 3. 2. ~ '17. 3. 10.	'17. 8. 30. ~ '17. 9. 8.	'17. 12. 6. ~ '17. 12. 15.	
심사 결과 발표	'17. 4. 28.	'17. 11. 3.	'18. 2.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http://kteacher.korean.go.kr)
자격증 교부	'17. 5. 중순	'17. 11. 중순	'18. 2. 말	주소지로 등기 우송

8.2. 2017년도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일정(2회)

구분	1차 심사	2차 심사	비고
심사 계획 공고	'16. 12. 2.	'17. 5. 26.	
심사 신청	'17. 1. 2. ~ '17. 1. 6.	'17. 6. 26. ~ '17. 6. 30.	
1차 심사 결과 발표	'17. 1. 26.	'17. 7. 14.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http://kteacher.korean.go.kr)
재심사 신청	'17. 1. 31. ~ '17. 2. 6.	'17. 7. 17. ~ '17. 7. 21.	
2차 심사 결과 발표(최종)	'17. 2. 20.	'17. 8. 4.	

※ 불가피한 경우 위의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매회의 심사 계획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위원회 개최 현황

위원회 명단	회의 개최일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2017. 2. 22.(수)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7. 2. 10.(금) 2017. 2. 17.(금) 2017. 3. 3.(금) 2017. 3. 10.(금) 2017. 3. 17.(금) 2017. 3. 24.(금) 2017. 3. 31.(금)
한국수어연구자문위원회	2017. 3. 3.(금)
《새국어생활》 편집위원회	2017. 3. 8.(수)
《표준국어대사전》 정보보완심의위원회	2017. 3. 10.(금)
우리말다듬기위원회	2017. 3. 22.(수)
국어규범정비위원회	2017. 3. 24.(금)
점자규범정비위원회	2017. 3. 24.(금)

10. 위원회 위촉 현황

10.1. 국어규범정비위원회(임기: 2016. 12. 10.~2018. 12. 9.)

- 위원: 김창섭(서울대 국문과, 위원장), 구본관(서울대 국교과), 구현정(상명대 한국어문과), 배주채(가톨릭대 국문과), 유현경(연세대 국문과), 윤준채(대구교대 국교과) 이문규(경북대 국교과), 최경봉(원광대 국문과), 한재영(한신대 국문과), 홍성호(한국경제), 정희원(어문연구실장)
- 신규 위촉: 윤준채, 최경봉, 홍성호

10.2. 우리말다듬기위원회(임기: 2017. 3. 22.~2017. 12. 31.)

- 위원: 강재형(문화방송), 김선진(서울대 체육교육과), 김윤희(제천 남당초등학교), 김은영(방송작가), 김창섭(서울대 국문과), 김태일(네이버 다국어처리연구실), 안상순(전 금성출판사), 여규병(동아일보), 유지철(한국방송), 윤종수(네이버 상담사(컨설턴트)), 이경우(서울신문), 이광복(한국문인협회), 이용원(전 서울신문), 정경희(번역가), 정철(다음카카오), 조현용(경희대 국제교육원), 김문오(공공언어과장)
- 신규 위촉: 김윤희, 김은영, 이광복, 조현용

11. 인사이동

11.1. 승진

- 김문오: 공공언어과장(2016년 12월 31일)
- 김형배: 학예연구사 → 학예연구관(1월 1일)
- 김미경: 행정서기 → 행정주사보(3월 10일)

11.2. 전보

- 최혜원(학예연구관): 공공언어과장 → 특수언어진흥과장(2016년 12월 31일)
- 이정희(행정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운영과(1월 1일)
- 이현주(학예연구관): 언어정보과 → 어문연구과(1월 9일)
- 우상일(일반직고위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연수부(2월 3일)
- 최훈창(서기관): 국립중앙도서관 → 기획운영과(2월 3일)
- 신호석(부이사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어진흥과(2월 3일)

11.3. 신규 임용

- 방지수(한시임기제6호): 공공언어과(2017년 3월 8일~2018년 2월 9일)
- 이하얀(한시임기제6호): 어문연구과(2017년 3월 8일~2018년 8월 31일)
- 이나래(한시임기제6호): 언어정보과(2017년 3월 8일~2018년 7월 21일)

11.4. 시보 해제

- 이수미: 학예연구사 시보 → 학예연구사(1월 1일)

11.5. 지원 근무

- 홍혜진(학예연구관): 어문연구과 → 언어정보과 지원 근무(1월 31일~)

11.6. 직무 대리

- 이정희(행정사무관): 기획운영과장 직무 대리(1월 1일~)

11.7. 직무 대리 해제

- 정호성(어문연구과장): 특수언어진흥과장 직무 대리를 면함(2016년 12월 31일)
- 이정희(행정사무관): 기획운영과장 직무 대리를 면함(2월 3일)

11.8. 복직

- 박미영(학예연구사): 공공언어과(2월 22일)

11.9. 휴직

- 김아영(학예연구사): 동반 휴직(2017년 1월 25일~2019년 1월 31일)
- 구지민(학예연구관): 육아 휴직(2017년 2월 10일~2018년 2월 9일)
- 박정아(학예연구관): 육아 휴직(2017년 2월 20일~2018년 7월 21일)

11.10. 교육 파견

- 황두연(서기관): 공로 연수(1월 1일~12월 31일)
- 홍용택(서기관): 공로 연수(1월 1일~6월 30일)

11.11. 퇴직

- 강정림(한시임기제6호): 근무 기간 만료(3월 1일)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수정 내용

연번	표제항 (영역별 가나다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1	경주 ^ㅅ 무열왕릉	%	경주 ^ㅅ 무열왕릉(慶州武烈王陵) 『고적』 경상북도 경주시 서악동 에 있는 신라 태종 무열왕의 능. 사적 제20호.	표제어 추가
1-2	경주 ^ㅅ 불국사	%	경주 ^ㅅ 불국사(慶州佛國寺) 『고적』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의 토함 산 기슭에 있는 절. 신라 법흥왕 15년(528)에 법흥왕의 어머니인 영제부인(迎帝夫人)과 기윤부인 (己尹夫人)이 창건하였고 경덕왕 10년(751)에 김대성이 크게 중창 하였다. 석굴암과 함께 신라 불 교 예술의 귀중한 유적으로 삼층 석탑, 다보탑, 백운교, 연화교 따 위가 있다. 석굴암과 더불어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 산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대한 불교 조계종 제11 교구 본사로 되어 있다. 사적 제502호.	표제어 추가
1-3	머리둘레	%	머리-둘레 「명사」 머리의 가장 굵은 부분을 둘러 낸 길이. ㄴ두 위03(頭圍).	표제어 추가
1-4	엉덩이둘레	%	엉덩이-둘레[영 : ----] 「명사」 엉덩이의 가장 굵은 부분을 둘러 낸 길이. ㄴ둔위03(臀圍).	표제어 추가
1-5	열차표	%	열차-표(列車票) 「명사」 열차를 타기 위하여 돈을 주고 사는 표. ㄴ[열차표] 예매/ㄴ[열차표를] 끊다/ {열차표를} 팔다/청량리역에서 제 천 가는 {열차표를} 두 장 샀다. 《황석영, 어둠의 자식들》	표제어 추가
1-6	영화표	%	영화-표(映畫票) 「명사」 영화를 보기 위하여 돈을 주고 사는 표. ㄴ[영화표를] 끊다/ㄴ[영화표를] 사	표제어 추가

			다/〈영화표를〉 팔다/나는 인터넷으로 {영화표를} 예매해 두었다./남자 친구는 할인 쿠폰을 써서 {영화표를} 싸게 구매했다.	
1-7	와닿다	%	와-닿다[-다타] [-닿애[다], -닿으니[다-], -닿느[단-], -닿소[다쓰]] '동사, 【...에/에게】 '1, 어떤 글이나 말, 음악 따위가 마음에 공감을 일으키게 되다. ¶초 선생님의 말씀은 구구절절 내 마음에 {와닿는다}/남자 친구와의 이별로 힘든 나에게 그 음악은 크게 {와닿았다}. '2, 어떤 사실이나 경험 따위가 실감이 되다. ¶새로 맡은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직까지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표제어 추가
1-8	제삼	%	제삼(第三)제 : -] '명사, 논의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전혀 다른 것. ¶{제삼} 장소/{제삼} 후보자/{제삼의} 나라/{제삼의} 대안/{제삼의} 인물/{제삼의} 방안을 강구하다.	표제어 추가
2-1	네덜란드령^ 동인도	네덜란드령 동인도	네덜란드령^동인도	표제어 수정
3-1	뚝이	'1, '뚝이1'의 준말. ¶아기는 아버지를 빼다 박은 {뚝} 닮았다./꼬마는 잘 모르겠다는 {뚝} 눈만 꺾박이고 있었다./마치 구름을 걷는 {뚝} 도무지 생사가 아닌 것만 같았다./지금도 하얀 눈을 보면 그때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뚝} 느껴진다./하늘이 맑으니 남산이 손에 잡힐 {뚝} 가깝게 다가온다. '2, ((‘은 뚝 만 뚝’, ‘는 뚝 마는 뚝’, ‘을 뚝 말 뚝’ 구성으로 쓰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 같기도 함을 나타내는 말. ¶잠을 잔 {뚝} 만 {뚝} 정신이 하나도 없다./그는 신문	'1,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뚝이1 '1, '의 준말. ¶아기는 아버지를 빼다 박은 {뚝} 닮았다./마치 구름을 걷는 {뚝} 도무지 생사가 아닌 것만 같았다./지금도 하얀 눈을 보면 그때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뚝} 느껴진다./하늘이 맑으니 남산이 손에 잡힐 {뚝} 가깝게 다가온다./경호는 속에서 불덩이가 치미는 {뚝}, '에 이 더워! <심훈, 영원의 미소> '2,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뚝이1 '2, '의 준말. ¶꼬마는 잘 모르겠다는 {뚝} 눈만 꺾박이고 있었다./우중충 흐린 하늘은 곧 눈발이라도 세울 {뚝}, 이제 한창 밝을 정월 보름달이 시세를 잃고 있는 밤이었다. <전상국, 동행>	뚝풀이 추가

		을 보는 {듯} 마는 {듯} 뒤적거리고만 있다./돌탑이 무너질 {듯} 말 {듯} 위태로워 보인다.	<p>『3, ((‘은 듯 만 듯’, ‘는 듯 마는 듯’, ‘을 듯 말 듯’ 구성으로 쓰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 같기도 함을 나타내는 말. 『잠을 잔 {듯} 만 {듯} 정신이 하나도 없다./그는 신문을 보는 {듯} 마는 {듯} 뒤적거리고만 있다./돌탑이 무너질 {듯} 말 {듯} 위태로워 보인다.</p> <p>『4, ((‘-르 듯 르 듯 하다’ 구성으로 쓰여)) ‘행동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임’의 뜻을 나타내는 말. 『안타깝게도 수돗물은 나을 {듯} 나을 {듯} 하면서도 나오지 않았다./영희가 무엇인가 말할 {듯} 말할 {듯} 하다가 끝내는 종종걸음 치며 사라졌다./선혜는 자신과 권오송의 인연을 접치듯 끊어질 {듯} 끊어질 {듯} 하며 이어지는 배 곱질을 바라본다. <박경리, 토지></p>	
3-2	뜻이01	<p>((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짐작이나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말. 『떨 {듯이} 기뻐하다/아는 {듯이} 말했다./거울 같은 매얼을 속으로 모가 죽은 둥근 자갈과 물이끼와 모래알이 손에 잡힐 {듯이} 가깝게 보이고... <김남천, 남매></p>	<p>((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1, 유사하거나 같은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말. 『떨 {듯이} 기뻐하다/아는 {듯이} 말했다./거울 같은 매얼을 속으로 모가 죽은 둥근 자갈과 물이끼와 모래알이 손에 잡힐 {듯이} 가깝게 보이고... <김남천, 남매></p> <p>『2, 짐작이나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말. 『그의 행동을 보아하니, 곧 떠날 {듯이} 보인다./그녀는 답답하다는 {듯이} 말하였다.</p>	뜻풀이 추가
3-3	문안01	사대문 안. 『그는 저녁때가 돼서야 {문안에} 들어섰다./임공리란 늙은 각궁 나인과 {문안} 부잣집 여인들을 유인하여 돈 수십만 냇을 거두어... <독립신문>	<p>『1, 문의 안쪽. 『{문안에} 당도하다/{문안으로} 들어와 안을 살펴다/{문안으로} 걸어 들어오다.</p> <p>『2, 사대문 안. 『그는 저녁때가 돼서야 {문안에} 들어섰다./임공리란 늙은 각궁 나인과 {문안} 부잣집 여인들을 유인하여 돈 수십만 냇을 거두어... <독립신문></p>	뜻풀이 추가
3-4	씩0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그 수량이나 크기로	<p>『1,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그 수량이나 크기로 나뉘거나 되풀이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p>	뜻풀이 추가

		나누거나 되풀이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조금씩』/『며칠씩』/『하나씩』/『두 사람씩』/『열 사람씩』/『다섯 마리씩』/『한 번씩』/『한 걸음씩』/『한 사람 앞에 수건을』/『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조금씩』/『며칠씩』/『하나씩』/『두 사람씩』/『열 사람씩』/『다섯 마리씩』/『한 번씩』/『한 걸음씩』/『한 사람 앞에 수건을』/『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2,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화자가 예상하거나 기대한 수준을 넘어서는 말 뒤에서 '아주 뜻밖' 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속성이나 정도의 강조를 나타낸다. 주로 '씩이나' 꼴로 쓰인다.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고기씩이나』 사 왔니?	
3-5	주다1	<p>[1][1] 【…에/에게 …을】</p> <p>『1,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 『개에게 먹이를 {주다}/아이에게 용돈을 {주다}/왜 고기만 {주니}, 털도 {주고} 가죽도 {주지}. <오정희, 중국인 거리></p> <p>『2, 남에게 어떤 자격이나 권리, 점수 따위를 가지게 하다. 『일등 항해사에게 가산점을 {주다}/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다}.</p> <p>『3,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게 하다. 『고통을 {주다}/상처를 {주다}/피해를 {주다}/어머니는 동생과 싸웠다고 나에게 편지를 {주셨다}.</p> <p>『4, 실이나 줄 따위를 풀리는 쪽으로 더 풀어 내다. 『연줄을 더 많이 {줘라}.</p> <p>『5, 시선이나 몸짓 따위를 어떤 곳으로 향하다. 『대문 위로 눈을 {주니}, 가시철사가 치어져 있었다. <황순원, 카인의 후예></p> <p>『6, 주사나 침 따위를 놓다. 『영덩이에 주사를 {주다}/발목이 삐었다고 하니 침을 좀 {줘야겠군}.</p> <p>『7, 속력이나 힘 따위를 놓다. 『손에 힘을 더 {줘라}.</p> <p>『8, 다른 사람에게 정이나</p>	<p>[1][1] 【…에/에게 …을】 『1,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 『개에게 먹이를 {주다}/아이에게 용돈을 주다/왜 고기만 {주니}, 털도 {주고} 가죽도 {주지}. <오정희, 중국인 거리></p> <p>『2, 시간 따위를 남에게 허락하여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 『너에게 3일의 시간을 {주겠다}/바쁜 일상이지만 나는 나 자신에게 여유를 {주려고} 노력한다./나에게 며칠 말미를 {주면}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어떻게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켜?</p> <p>『3, 남에게 어떤 자격이나 권리, 점수 따위를 가지게 하다. 『혜택을 {주다}/일등 항해사에게 가산점을 {주다}/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다}.</p> <p>『4, 남에게 어떤 역할 따위를 가지게 하다. 『너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겠다}.</p> <p>『5, 남에게 어떤 일이나 감정을 겪게 하거나 느끼게 하다. 『고통을 {주다}/기쁨을 {주다}/사랑을 {주다}/상처를 {주다}/피해를 {주다}/어머니는 동생과 싸웠다고 나에게 편지를 {주셨다}.</p> <p>『6, 실이나 줄 따위를 풀리는 쪽으로 더 풀어 내다. 『연줄을 더 많이 {줘라}.</p> <p>『7, 남에게 경고, 암시 따위를 하</p>	뜻풀이 추가 (수정)

		<p>마음을 베풀거나 터놓다. 『그는 친구에게도 좀처럼 정을 {주지} 않는다.</p> <p>『9, 여자가 남자에게 몸을 허락하여 성적 관계를 맺다.</p>	<p>여 어떤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다.</p> <p>『수업 시간에 친구 한 녀석이 계속 떠들자 선생님께서 그에게 주의를 {주셨다}/그는 나에게 아무런 암시도 {주지} 않고 갑자기 떠났다.</p> <p>『8, 시선이나 관심 따위를 어떤 곳으로 향하다. 『{눈길을} 주다/나에게 괜한 관심 {주지} 마/대문 위로 눈을 {주니}, 가시철사가 치어져 있었다.《황순원, 카인의 후예》</p> <p>『9, 주사나 침 따위를 놓다. 『영덩이에 주사를 {주다}/발목이 뻐었다고 하니 침을 좀 {줘야겠군}.</p> <p>『10, 속력이나 힘 따위를 내다. 『손에 힘을 더 {줘라}.</p> <p>『11, 다른 사람에게 정이나 마음을 베풀거나 터놓다. 『그는 친구에게도 좀처럼 정을 {주지} 않는다.</p>	
3-6	탄약	<p>『1, 탄알과 화약을 아울러 이르는 말. 『{탄약} 몇 발/총에 {탄약을} 재다.</p> <p>『2, 『군사』 =탄환01(彈丸) 『2』.</p>	<p>『1, 탄알과 화약을 아울러 이르는 말. 『{탄약} 몇 발/총에 {탄약을} 재다.</p> <p>『2, 『군사』 =탄환01(彈丸) 『2』.</p> <p>『3, 『군사』 전투나 시설물 파괴 등에 사용하는 폭발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화약제, 신평탄, 점화용 화합물, 세균 및 화학방 물질 따위가 장전되어 있다.</p>	<p>뜻풀이 추가</p>
3-7	해맑다	<p>하얗고 맑다. 『{해맑은} 얼굴/{해맑은} 눈망울/{해맑은} 미소/{해맑은} 음성/소나무 가지 새로 {해맑은} 아침 햇살이 들이비치고 있었다.《황순원, 카인의 후예》</p>	<p>『1, 물질적인 대상물이 환하게 맑다. 『{해맑은} 박꽃/{해맑은} 살결/{해맑은} 이마/{해맑은} 피부.</p> <p>『2, 사람의 모습이나 자연의 대상 따위에 잡스러운 것이 섞이지 않아 티 없이 깨끗하다. 『{해맑게} 웃다/{해맑은} 눈동자/눈망울이 {해맑다}/{해맑은} 미소/{해맑은} 표정/이튿날 아침 눈을 떠 보니 하늘은 언제 비를 뿌렸느냐는 듯이 닦아 놓은 면경알처럼 {해맑았고},...《문순태, 타오르는 강》/소나무 가지 새로 {해맑은} 아침 햇살이 들이비치고 있었다.《황순원, 카인의 후예》</p> <p>『3, 소리 따위가 탁하지 않고 경</p>	<p>뜻풀이 추가 (수정)</p>

			쾌하다. 『(해맑은) 음성/(해맑은) 웃음소리/(해맑은) 교회당의 종소리/(해맑은) 피아노 소리/멀리서 {해맑은} 풍경 소리가 들린다.	
4-1	간과되다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u>넘어</u> 가다.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u>넘겨</u> 지다.	뜻풀이 수정
4-2	거방지다	『3』 매우 푸지다.	『3』 =결판지다『1』.	뜻풀이 수정
4-3	결판지다	『1』 → 거방지다. 『2』 『북』 너무죽하고 듬직하다. 『얼굴이 {결판지게} 생기다.《선대》	『1』 매우 푸지다. ≡거방지다 『3』. 『2』 동작이나 모양이 크고 어수선하다. 『3』 『북』 너무죽하고 듬직하다. 『얼굴이 {결판지게} 생기다.《선대》	뜻풀이 수정
4-4	다큐멘터리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을 극적인 허구성이 없이 그 전개에 따라 사실적으로 그린 것.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의 드라마나 소설, 기록 따위가 있다.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을 사실적으로 담은 영상물이나 기록물.	뜻풀이 수정
4-5	대륙01	『1』 넓은 면적을 가지고 해양의 영향이 내륙부에까지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 육지. 일반적으로 유라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극의 여섯 대륙을 이룬다.	『1』 넓은 면적을 가지고 해양의 영향이 내륙부에까지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 육지. 일반적으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극 등을 이룬다.	뜻풀이 수정
4-6	마침표01	『2』 문장 부호의 하나. 주로 문장을 끝맺을 때 쓰는 것으로 온점(.), 고리점(), 물음표(?), 느낌표(!)가 있다. ≡종지부01·종지점.	『2』 이전 문장 부호 규정에서 온점(.), 고리점(), 물음표(?), 느낌표(!)를 아울러 이르던 말. 2014년 문장 부호 개정 시에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 ≡종지부01·종지점.	뜻풀이 수정
4-7	십자가상 [△] 제사	(十字架傷祭祀)	(十字架上帝祭祀)	원어 수정
4-8	안은문장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이루어지며 성분절을 가진 문장. ‘지구가 동글다는 것은 오래전에 증명되었다.’에서 ‘지구가 동글다는 것’은 안긴문장이고,	하나의 문장 안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이루어지며 성분절을 가진 문장. ‘철수가 그린 풍경화가 전람회에서 특선으로 뽑혔다.’에서 ‘철수가 그린’이 안긴문장이고, 이를 포함하	뜻풀이 수정

		전체의 문장은 안은문장이 다. ◻가진월·내포문·안은 월·유숙문·포유문.	는 전체의 문장이 안은문장이 다. ◻가진월·내포문·안은월·유 숙문·포유문.	
4-9	장애인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 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 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 활에 <u>제약을 받는</u> 사람. ◻ 장애자.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u>정 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u> . ◻장애자.	뜻풀이 수정
4-10	저귀	저귀(가) 둘다 「관용구」 <u>저 귀가 씌워</u> 몹시 얇게 되다.	저귀(가) 둘다 「관용구」 <u>저귀에 씌 어</u> 몹시 얇게 되다.	관용구 뜻풀이 수정
4-11	페미니스트	'2,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 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 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던 말.	뜻풀이 수정
4-12	하교05	[2]((체언 뒤에 붙어))((구어 체로) 둘 이상의 사물을 같 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하며.	[2]((체언 뒤에 붙어))((구어체로)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 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 사. ◻하며.	뜻풀이 수정
4-13	한국어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 형 태상으로는 교착어이고, 계 통적으로는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 한반도 전역 및 제 주도를 위시한 한반도 주 변의 섬에서 쓴다. 어순(語 順)은 주어, 목적어(또는 보 어), 술어의 순이며 꾸미는 말이 꾸미를 받는 말의 앞 에 놓이는 것 따위의 특성 이 있다. ◻한국말·한말01· 한어03.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 형태상 으로는 교착어이고, 계통적으 로는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고 보 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반도 전 역 및 제주도를 위시한 한반도 주변의 섬에서 쓴다. 어순(語順) 은 주어, 목적어(또는 보어), 술 어의 순이며 꾸미는 말이 꾸미 를 받는 말의 앞에 놓이는 것 따 위의 특성이 있다. ◻한국말·한 말01·한어03.	뜻풀이 수정
4-14	화번공주	(花蕃公主)	(和蕃公主)	원어 수정
4-15	히파티아	고대 이집트의 철학자(370? ~414). 아름다운 용모로 <u>널리 알려졌으나</u> , 알렉산드리 아의 대주교인 키릴로스의 선동으로 군중에게 맞아 죽 었다.	알렉산드리아의 수학자(370?~ 414). 신플라톤주의의 입장을 취 했으며 학식, 강의로 유명했다.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인 키릴 로스의 선동으로 군중에게 맞아 죽었다는 설이 있다.	뜻풀이 수정
5-1	주저05	◻(주저) 없이 말하다/필요한 게 있으면 {주저} 말고 말	◻(과연 그 무섭고 비밀한 소굴에 발을 들여놓게 할 만큼 믿을 만	용례 수정

		<p>씀하세요./~/내가 조금의 {주저도} 없이 배달 대상자의 집을 찾아 우유를 넣는 것을 보고 주인은 놀란 모양으로 중얼거렸다.《이병주, 지리산》</p>	<p>한 사람일까? 역시 {주저가} 되는 것이다.《염상섭, 무화과》/나 이 든 치안대원의 표정이 잠깐 {주저로} 굳어지더니 이내 풀어졌다.《이문열, 영웅 시대》/~/건달기가 많고 겁이 없어 보였으나 이시명도 천주당에 가는 데는 약간 {주저를} 느꼈던 것이 분명했다.《한무숙, 만남》</p>	
--	--	--	---	--